

기본연구 2008-14

#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이인배 · 양광호 · 최영문 · 김희수



# 발 간 사

2007년에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지역의 관광산업에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어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관광수요의 감소로 투자위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류유출이 발생한 후 서해안의 관광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해안 유류유출에 의한 관광위기 대응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해극복의 과제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역 차원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극복과정의 개선, 관광피해 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와 제도의 마련,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지역 관광대응 전략의 수립과 정책 추진, 협력적 관광피해 극복과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마케팅의 전략적 전개, 자원봉사와 언론을 통한 새로운 환경관광지역으로 발전, 세계 환경 및 관광기구와 연계한 피해극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서해안 유류유출을 극복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별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으로는 서해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 특별법과 연계한 시·군별 관광개발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의 지원대책 마련으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관광피해조사단 구성·운영, 서해안 관광사업체 등록 및 협력체 조직 운

영,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셋째, 관광시장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의 추진으로는 서해안 ‘관광살리기 운동’과 다크투어리즘 관광마케팅의 전개, 국제적 이벤트의 정기개최, 자원봉사 감사대축제의 지속 개최, 서해안의 특색이벤트 축제의 개최와 언론 홍보 실시 등이다.

넷째, 협력적 관광 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사업의 전개로는 특별재난지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주민 관광사업의 육성, 지역 펜션과 민박 등 중소기업체의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다섯째,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프로그램의 마련으로는 지역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여섯째,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진으로는 ‘봉사관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환경관광지대’ 육성과 환경관광상품의 개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후 서해안의 관광위기 대응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정책추진 시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원의 이인배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와 연구자문에 도움을 준 양광호 교수, 최영문 교수, 김희수 책임연구원, 최인호 교수, 유기준 교수, 황길식 박사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 연구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14만6,800톤급) 유류유출 사고’는 지역의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태안군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변에 숙박업, 음식업 등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태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사고 직 후 2008년 1~3월에는 2007년에 비하여 74.9%가 감소하였고, 가장 성수기인 7~9월 여름철에는 84.5%가 감소하였다. 특히 태안 해수욕장 피서객은 2007년에 비하여 89%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관광객 감소 현상은 유류유출 오염의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서해안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 민간기업의 관광사업 투자 등에서 투자위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적 의미와 관광위기상황을 인지하면서 이를 대응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류유출이 발생한 후 서해안의 관광위기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2. 주요 연구내용

유류유출, 지진과 해일 등에 의한 지역의 관광위기에 대응한 사례 연구로는 국내의 경우 관광분야에 대한 피해현황이나 복구 지원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에 의한 외국 재난관광 피해 및 국제관광기구 지원 사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지역 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에 의한 지원 대책 마련, 피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오게 하는 적극적 마케팅의 전개, 시장조사에 의한 지역 인지도 파

악 및 마케팅 자료 활용, 지역주민과 중소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관광종사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과 인적프로그램의 개발, 미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다양한 위기관리 프로그램 마련, 국제관광기구의 협력에 의한 관광피해 극복사업 추진 등을 찾을 수 있다.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지역 영향으로서 사고 이후 서해안 6개 시·군의 관광객의 방문추이를 분석한 결과,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의 관광객 방문이 당진군과 서천군에 비하여 매우 많이 감소하였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태안군 관광객수는 월별 관광수요 증감률을 2007년 대비로 살펴보면 2008년 1월은 90.1%가 감소하였다가 여름철에는 7월에 84.8%, 8월에는 84.5%, 9월에는 82.2%가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태안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름 성수기 기간 중 해수욕장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89% 감소해 유류유출사고의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유류 유출 사고 후 태안군의 관광성향을 살펴보기 위한 관광객 조사분석에서는 태안 이미지 손상 정도에 관해서는 ‘이미지 손상을 주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87.3%로 ‘이미지 손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은 9.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질 회복 가정하의 관광 목적의 태안 지역 방문 의향은 ‘갈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42.5%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 22.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지역에 방문해서 하고 싶은 해변활동은 ‘갯벌체험’이라는 응답 비율이 42.3%로 가장 높고, ‘바다경관 관람’ 38.8%, ‘해수욕’ 23.0%, ‘해양박물관·수족관 관람’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안군을 포함하는 서해안 관광 대응태세에 따라 관광객의 방문의사가 결정될 것이라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서해안 유류유출에 의한 관광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광활성화의 과제로는 ① 국가 및 지역 차원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극복과정의 개선, ② 관광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와 제도의 마련, ③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지역 관광 대응 전략의 수립과 정책 추진, ④ 협력적 관광피해 극복과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 ⑤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마케팅의 전략적 전개, ⑥ 자원봉사와 언론을 통한 새로운 환경관광지역으로 발전, ⑦ 세계 환경 및 관광기구와 연계한 피해극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 3. 결론 및 정책 제언

서해안 유류유출에 대응하여 관광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과 특별법과 연계한 시·군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에 의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관광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충남관광협회에 서해안 관광사업체 등록 및 협력체를 조직하여 운영관리하며,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보고서 작성시 관광산업편을 포함하여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관광시장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해안 관광 살리기 운동’과 다크투어리즘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고,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2012 국제해양환경엑스포’ 개최 등 국제적 이벤트의 정기개최, 자원봉사 감사대축제의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개최, 서해안의 특색이벤트 축제의 개최와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협력적 관광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 사업을 전개 한다. 따라서 특별재난 지역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주민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역 펜션과 민박 등 중소기업체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관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류유출 사고지역과 주변의 ‘환경관광지대’로 육성하며, 환경관광상품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후 지역주민의 피해보상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이 아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서 본 연구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차 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5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4. 연구의 구성 .....	6
제2장 이론연구와 관련사례 고찰 .....	8
1. 이론연구 고찰 .....	8
1) 관광위기의 개념과 관리 .....	8
2) 관광위기의 이론연구 동향 .....	15
3) 국내 관광분야 재난재해 대책 .....	25
2. 국내외 재난 관광피해와 지원 사례 .....	28
1) 유류유출사고 사례 .....	28
2) 국내 태풍 관광피해 현황과 지원 사례 .....	35
3) 해외 지진과 해일의 관광피해 사례 .....	38
4) 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관광피해 지원 사례 .....	44
3. 이론연구 및 사례분석의 시사점 .....	49
1) 국내 재난피해 관광대책과 지원 사례의 시사점 .....	49
2) 외국 재난관광 피해 및 국제관광기구 지원사례의 시사점 .....	51
제3장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 분석과 과제 .....	57
1. 실태분석의 틀과 방법 .....	57
1) 분석의 틀 .....	57
2) 분석방법 .....	58



2. 유류유출 및 관광피해 대책 추진 현황 .....	58
1) 서해안 유류유출의 개요와 피해 현황 .....	58
2) 정부의 대응 및 대책 추진현황 .....	63
3) 피해규모 추정 및 접수현황 .....	66
4) 오염복구 상황 .....	67
3. 유류유출의 관광영향 변화 분석 .....	69
1) 서해안 관광객 수 변화 추이 분석 .....	69
2) 관광객 설문조사 분석 .....	81
3) 관광산업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86
4) 관광객 수요예측 .....	91
4. 유류유출 관광위기 대응실태 분석 .....	93
1) 실태분석의 방법과 내용 .....	93
2) 국가지원 정책 및 사업의 변화 .....	94
3) 충청남도 정책 및 사업의 변화 .....	98
4) 서해안 6개 시·군 정책 및 사업의 변화 .....	100
5) 타시도 지원정책 및 사업의 변화 .....	103
6)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활동의 변화 .....	104
7) 자원봉사 및 단체 등 지원활동의 변화 .....	108
8) 신문보도 정보제공 활동의 변화 .....	112
5.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극복과제 .....	119
1) 국가 및 지역 차원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극복과정의 개선 .....	119
2) 관광피해 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와 제도의 마련 .....	119
3)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지역 관광대응 전략의 수립과 정책 추진 .....	120
4) 협력적 관광피해 극복과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 .....	121
5)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마케팅의 전략적 전개 .....	121
6) 자원봉사와 언론을 통한 새로운 환경관광지역으로 발전 .....	122
7) 세계 환경 및 관광기구와 연계한 피해극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	123
<b>제4장 유류유출 관광위기 극복의 개선방안 .....</b>	<b>124</b>
1. 관광활성화의 전략과 개선방향 .....	124
2.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의 추진 .....	125

1) 서해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 .....	125
2) 특별법과 연계한 시·군별 관광개발 사업 추진 .....	126
3.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에 의한 지원대책 마련 .....	128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관광피해조사단 구성·운영 .....	128
2) 서해안 관광사업체 등록 및 협력체 조직·운영 .....	128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보고서 작성 : 관광산업편 포함 .....	129
4. 관광시장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 추진 .....	129
1) 지역이미지 개선방안 .....	129
2) 관광마케팅 추진사업 .....	145
5. 협력적 관광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사업의 전개 .....	155
1) 특별재난지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	155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주민 관광사업 육성 .....	156
3) 지역 펜션과 민박 등 중소기업체의 활성화 사업 추진 .....	156
6.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프로그램 마련 .....	158
1) 지역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58
2) 관광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실시 .....	158
7.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159
1) ‘봉사관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	159
2) ‘환경관광지대’ 육성과 환경관광상품 개발 .....	160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164</b>
1. 요약 및 결론 .....	164
2. 정책제언 .....	166
3. 연구의 한계 .....	167
<b>참고문헌 .....</b>	<b>168</b>
부록 1 : 일반적인 재난관리의 정의와 관리단계 .....	172
부록 2 : 세계 관광기구의 관광피해 세부 지원사업 사례 .....	178

## 표 차 례

<표 2-1> 위기 단계별 관리요소 .....	24
<표 2-2> 시간대별 위기전개과정 .....	26
<표 2-3> 단계별 대응조치 .....	27
<표 2-4> 국내 유류사고 손해배상 현황 .....	29
<표 2-5> 피해보상 인정금액 .....	31
<표 2-6> 프레스티지호 사건으로 인한 관광 피해현황 .....	32
<표 2-7> 프레스티지호 사건 전후의 갈리시아지역 숙박관광객 현황 .....	33
<표 2-8> 스페인의 보상청구 내역 .....	33
<표 2-9> 프랑스의 보상청구 내역 .....	34
<표 2-10> 관광피해 보상의 주요 사례 .....	35
<표 2-11> 강원도 IOC 실사대상 리조트 시설 피해 현황 .....	38
<표 2-12>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업 .....	47
<표 2-13> 지역사회 구호(Community Relief) 사업 .....	48
<표 2-14> 직업훈련(Professional Training) 사업 .....	48
<표 2-15>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사업 .....	49
<표 2-16> 지속 가능한 재개발(Sustainable Redevelopment) 사업 .....	50
<표 3-1> IOPC 발표 피해추정액 .....	66
<표 3-2> 2000-2007년 충남 관광객수 변화추이 및 증감율 .....	69
<표 3-3> 충남의 서해안 시군의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0
<표 3-4> 충남의 서해안 시군의 1~9월 관광객 증가율 비교(2007/2008년) .....	71
<표 3-5> 보령시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2
<표 3-6> 서산시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2
<표 3-7> 서천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3
<표 3-8> 홍성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3
<표 3-9> 태안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4
<표 3-10> 당진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	75
<표 3-11> 2008년 전국 주요 해수욕장 관광객수 변화분석 .....	76

<표 3-12> 2007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추이 .....	77
<표 3-13> 2008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추이 .....	78
<표 3-14> 2008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관광객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	80
<표 3-15> 방문 횟수 .....	82
<표 3-16> 평균 체류일 수 .....	82
<표 3-17> 주요 활동(복수응답) .....	82
<표 3-18> 숙박 장소 .....	83
<표 3-19> 1인당 여행 경비 .....	83
<표 3-20>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 태안 이미지 손상 정도 .....	83
<표 3-21> 방문 의향 .....	84
<표 3-22>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	84
<표 3-23> 선호 관광활동(복수응답) .....	85
<표 3-24> 선호 해변활동(복수응답) .....	85
<표 3-25> 우선 개선사항 .....	86
<표 3-26> 태안지역 어업현황 .....	87
<표 3-27> 충청남도 어업통계 .....	88
<표 3-28> 태안군 월별 방문객수 .....	91
<표 3-29> 시나리오별 방문객수 추정 .....	93
<표 3-30> 국가지원 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	95
<표 3-31> 충청남도 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	98
<표 3-32> 서해안 6개 시군 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	101
<표 3-33> 타시도 지원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	103
<표 3-34> 지역주민 및 지역내 활동의 기간별 보도내용 .....	104
<표 3-35> 자원봉사 및 단체 등 지원활동의 기간별 보도내용 .....	109
<표 3-36> 신문보도 정보제공 활동의 기간별 보도내용 .....	113
<표 4-1> 서해안 6개 시·군 주요 관광개발 사업 예시 .....	127
<표 4-2> 연도별 태안 및 유류유출 관련 언론보도 건수 .....	130
<표 4-3> 태안 해수욕장 개장 보도건수 .....	132
<표 4-4>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공동 추진사업 .....	139
<표 4-5>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기획특집 프로그램 .....	144
<표 4-6> 관광재난관리구조(TDMF)의 대응요소 .....	159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	7
[그림 2-1] 관광부문 위기의 전개과정 .....	13
[그림 2-2] 관광부문에서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구조 .....	17
[그림 2-3] 관광재난관리구조(TDMF) .....	19
[그림 2-4] 위기와 재난 관리: 전략적 구조 .....	20
[그림 2-5]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 .....	27
[그림 3-1] 분석의 틀 .....	57
[그림 3-2] 유류유출 초기 오염 광경 .....	60
[그림 3-3] 해수욕장 피해 장면 .....	61
[그림 3-4] 바닥에 가라앉은 타르볼 .....	62
[그림 3-5] 충남의 서해안 분기별 시군 관광객수 변화추이 분석 .....	70
[그림 3-6] 태안군 해수욕장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 .....	81
[그림 4-1] 서해안 관광활성화의 전략과 개선방향 모색 개념도 .....	124
[그림 4-2] 태안군 보도건수 .....	131
[그림 4-3] 관광목적지 선택과정 .....	134
[그림 4-4] 환경관광의 위치 .....	161
[그림 4-5] 환경관광지대 개념도 .....	16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해상 크레인을 실은 부선(舢舨·동력 없이 떠 있는 배)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14만6800톤급)’와 충돌하면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름 유출량은 1995년 여수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700톤 유출, 남북 30Km, 동서 15Km 범위) 때보다 2.5배가 많아 양식 어장 타격과 바다 오염 및 관광산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는 일본 나호토카호(1997년)의 1.7배, 여수 씨프린스호(1995년)의 2.5배 규모로, 피해 6개 시군지역은 충남 방문 관광객의 2/3 및 관광지출액의 73%를 점유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프랑스 남서해안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원유유출 사고로 익년도 프랑스 해안지역 관광객 예약률 50% 감소 및 관광산업 전업률 60%가 일어났고, 스페인 갈리시아(Galicia) 지방은 사고 익년도에 내국인 숙박여행객 15%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하였다(최영문, 2007)

이러한 유류유출사고는 해안과 바다에서의 1차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염의 완전복구 시점에 따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된다. 재난·사고에 의한 지역 관광산업의 피해는 회복기간과 피해대상, 지역경제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연구가 요망된다.

충남 서해안은 유류유출로 해수욕장과 해안절벽과 갯벌, 섬 등이 오염되었고 사고 직후 일정기간이 지나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복구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래사장 토양의 오염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류유출로 인해 관광객 및 관광수입 감소에 따른 관광업체 등의 파급효과가 있으며, 지역의 관광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영업 피해로는 서해안과 태안군, 피해지역 주변에 위치한 숙박업, 음식점 등의 전반적 침체와 현저한 관광객 수 감소가 대표적이다. 서울신문(2008. 8. 20)에서는 태안 해수욕장 피서객이 2007년에 비하여 86%가 감소하여 태안의 오염지역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 방문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류유출 오염의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숙박업, 음식점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펜션, 민박, 찻집 등의 영업피해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소매점, 택시운송업, 주유소업 등 간접산업에도 피해가 파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나아가 유류오염으로 인한 관광피해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가치와 이미지 훼손, 관광개발의 외부자본 투자위축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환경오염의 복구시기와 연계되므로 상호 관련성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 생태계가 변화됨에 따라 갯벌 체험, 철새관찰 등의 생태관광과 주변의 새조개 등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축제도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 민간기업의 숙박업 및 음식점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유류유출로 인한 관광수요의 감소로 투자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청정해역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유류유출로 인한 서해안 관광산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시켜, 새롭게 재도약하는 환경재난 관광지역으로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태안 및 인접지역의 해수욕장, 해안, 섬, 갯벌, 어촌마을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유류유출 후 지역관광산업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및 서해안 관광산업의 피해극복과 관광개발의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태안을 포함한 서해안지역에 관광객 감소로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관된 농어업 및 서비스산업의 피해,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투자위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류유출 사고 후 기름에 오염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청정한 해양지역으로 복구되었다는 인식전환을 통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의 모색도 필요하다.

서해안의 유류유출 사고 극복은 환경, 어업, 관광업 등 복합적인 사업의 추진과 중앙과 지방간에 연계, 지역주민과 단체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광정책의 전략적 추진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 및 연관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피해복구의 대응전략을 민·관·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앙의 관련부처와 충남 및 6개시·군, 지역주민과 단체가 공유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는 재난에 의한 관광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관광목적지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지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1) 김희수(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관광정책 대응방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관광부문 대응방안 전문가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의 발제 내용을 재정리



목적지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위험에 의한 충격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의 위험은 관광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태안의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역시 서해안의 주요 관광목적지들은 관광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에 관광위기관리체계가 필요하듯, 지역관광에도 관광위기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관광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많은 지역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지방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광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텔,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 관광시설의 위기관련 대응방안이 미비하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 행동계획의 수립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의 경우 재해, 재난관련 기반의 약화로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대응방안 및 관광위기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김대관, 2005). 이제 더 이상 관광과 관련된 위기상황의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도 테러,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또한, 관련 지역의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광 관련 산업에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광부문위기관리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경희, 2008).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역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해양 및 연안이 오염되어 해수욕장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까지 오염되어 이러한 관광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에 의한 관광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 관광자원과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이란 역사적으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것으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9.11 테러의 참상이 새겨진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미국 “토네이도” 관광상품 등이 있으며, 최근 구미에서는 다크투어리즘이 하나의 역사문화관광 패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적 의미와 관광위기상황을 인

지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류유출이 발생한 후 서해안에 미친 관광영향과 대응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관광위기 상황의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해안 유류유출이 지역에 미치는 관광영향과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사고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재난 관광위기관리에 대한 이론 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 관광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적 활용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유류유출 사고의 서해안 관광영향과 대응 실태분석을 통해 관광피해 극복을 위한 도출과제를 제시한다.

셋째, 이론연구의 시사점과 실태분석의 도출과제에 근거하여 서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전략과 사업추진 계획을 제안한다.

##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한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관광위기의 개념과 관리, 관광위기의 이론연구 동향,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실태분석은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군 유류유출사고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자료원은 문서자료, 기록자료, 신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부터 2008년 8월까지 9개월 동안의 중앙 및 충청남도, 태안군 등 정책

자료와 신문기사를 피해극복 대응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난 충청남도 서해안의 유류유출 사고 기간과 그 이후의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2007년 12월에서 2008년 8월로 한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태안군을 포함한 서해안 6개 시·군으로 한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실태분석을 통한 과제도출과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시, 이론연구 고찰 및 관련 사례 연구,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 분석과 과제도출, 유류유출 관광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결론 및 정책제언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의 배경에서 태안 유류유출로 인한 서해안 관광객 및 관광수입 감소 등의 관광산업 침체 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목적에서는 연구배경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연구와 관련 사례 분석에서는 관광위기의 개념과 관리, 관광위기의 이론연구 동향과 국내외 재난 관광피해 현황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연구와 사례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피해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관광영향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피해극복을 위해 해결해야할 도출과제를 제시하였다. 서해안 유류유출 관광위기 극복방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전략과 주요 추진 사업계획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 제2장 이론연구와 관련 사례 고찰

### 1. 이론연구 고찰

#### 1) 관광위기의 개념과 관리

##### (1) 재난의 정의

재난·재해의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로,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홍수·호우·폭설·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항공기·선박·철도사고·건축물 붕괴·가스폭발 등 각종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인위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난과 재해는 분명한 구분 없이 사용되며 재난이라는 용어는 영문으로는 Disaster, Hazard, Catastrophe, Crisis, Risk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말로는 재해, 재난, 위기, 위험, 위난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남궁근, 1995).

재해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바,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 및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와 인위재난(Man-made-Disaster)으로 구분된다. 자연재해의 종류에는 홍수, 폭풍, 지진 등이 있고, 인위적 재난은 폭발사고, 붕괴사고, 위험물사고 등의 종류가 있다. 인위적 재난은 인간의 기술발달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술적 재난(Technical Disaster)이라고도 한다. 재난을 발생원인과 사회에 미치는 충격속도, 규모, 발생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김영수, 1997).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로 구분하고 피해속도에 따른 구분은 만성재난과 급성재난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의해서는 육상재난과 해상재난, 광역재난과 국지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나종민, 2007).<sup>2)</sup>

## (2) 관광위기의 개념

재난은 언제, 어느 곳,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수 있으며 위기로 인해 사회, 경제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의 갑작스런 마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재난은 정치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또는 문화적이거나 감성적일 수 있다. 재난은 위기의 다음 단계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재난은 생명과 재산의 손상 또는 위협을 받는 경우라 말할 수 있다(UNDP, 2003).

위기란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치명적인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위협, 동식물·재산·정보에 대한 피해, 대상지 및 대상국가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 그리고 재정적 위협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자연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관광목적지에서의 재난을 정의하면 관광목적지가 갑작스럽고,

---

2) 일반적인 재난의 정의와 분류, 관리단계, 재난·재해의 관리 이론에 대한 세부내용을 부록으로 제시함

예측하지 못한 비극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황, 즉 관광위기로부터 초래된 영향의 심각한 발전 양태라 할 수 있다.(Beirman, 2003).

관광은 위기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관광과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은 지역에서 나타난 위기, 그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인지적 불안에 대한 관광산업의 유일한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의 위협과 불안전을 느낀다면 그들은 해당 목적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관광목적지 관광산업에 매우 큰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세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들은 재난 발생지역이라는 평판 때문에 해당 목적지 방문을 기피하는 결정을 할 것이며, 둘째, 관광객들이 목적지에서 불안감을 느낄 경우 그들은 외부적인 활동을 자제하고자 할 것이고, 셋째,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관광객들은 그 목적지를 재방문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목적지를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광목적지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후 위기가 닥치더라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관광위기도 일반적 위기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관광은 목적지와 연관해서 위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적지라 함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로 마을, 도시(시·군), 도 및 광역시, 주, 국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목적지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지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목적지 지역의 개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며, 실업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가난 또는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관광부문에서 위기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위기 그 자체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3) 관광위기의 유형

관광위기도 그 유형을 크게 자연적 위기와 인위적 위기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학자나 기구 등에 따라 유형분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eirman(2003)은 관광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으로 첫째, 국제적 전쟁 또는 갈등, 또는 국제적 갈등의 장기적 대치국면 등, 둘째, 테러 행위, 특히 관광객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테러 등, 셋째, 대형 범죄 또는 범죄 극성, 특히 관광객이 타겟이 되었을 경우, 넷째, 자연재해, 즉 도시 지역이나 자연환경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특히 관광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 폭풍, 화산 등, 다섯째, 전염병, 질병 등 보건 및 건강 관련된 것으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동물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광객이 관광 목적지 및 관광매력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경우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PATA(2003)는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를 자연적 위기와 인위적 위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 위기로는 눈사태, 홍수, 의학(의) 전염병, 지진, 허리케인, 격렬한 폭풍, 화재, 산사태, 붕괴 등이 있다.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 위기로는 테러행위, 화재, 개인적 위협, 하이재킹, 정치적 행위, 항공기 사고, 쟁의행위, 폭동, 공격, 유괴, 육상교통사고, 건물화재 및 붕괴, 살인, 테러리즘, 정치적 불안, 인질상황, 전쟁 크루즈 및 페리 재난, 기계 및 시스템 고장 등으로 제시하였다.

Lynch(2004)는 관광위기의 유형을 자연적 위기(지진, 홍수, 허리케인 등), 사고 및 환경 또는 인위적 위기(산불, 스모그현상, 기름유출, 전염병, 질병, 구제역 등), 그리고 정치적 위기 또는 테러리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 (4) 관광위기의 전개과정

관광산업에 있어서 관광객,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충격 또는 위험을 바라보는 제3의 시각은 사건·사고를 직·간접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단기간·중기간·장기간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9·11테러 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위험에 의한 충격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관광의 위험은 관광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관광부분에서 간접적 충격의 결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잠재적 위기, 위험, 충격을 명시하는 것은 위험관리, 위기관리, 재난관리 등을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위기가 처음에는 경미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점차 확대되어 공공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들로는 위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관련된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위기가 더 커질 수 있음), 관련된 사람들의 연령(미디어는 아동들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보도를 함), 관련된 사람들의 지명도(유명한 사람 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미디어는 더 많은 관심을 보임), 미디어의 흥미 정도 또는 접근 정도(비록 대부분의 미디어가 취재원에게 위기와 관련하여 잠재력 연관성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 보장할 지라도 리포터들은 헤드라인을 잡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위기에 연관된 조직 및 기관의 취약한 대응은 별 다른 주의 없이 보도될 것임), 사고의 특성(대부분의 사고는 최근에 보도된 사고와 유사할 수 있으나 더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특이한 사고의 경우임), 시각적 효과(휴대용 및 비디오 및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시대에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전 세계의 전파를 탈 수 있음) 등이 있다.

[그림 2-1] 관광부문 위기의 전개과정



자료 : 김대관(2005), "관광부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005 가을 통권 제21호

관광부문 위기의 전개 과정은 위기의 출발이 되는 관광부문 위협요소의 증폭을 거쳐 관광부문 위기 상황으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심각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관광산업의 치명적 타격 등을 동반하는 관광부문 재난으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부문 위기의 영향으로는 심리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보건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영향에는 관광부문위기로 인한 관광객, 관광종사원, 지역주민 및 관련당사자들의 정신적 균형 상실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관광사업자의 시설파괴 및 손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관광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의 파괴 및 훼손과 특정 지역의 관광위기는 국제관광시장과 국민의 여행계획 취소, 목적지 대체, 여행심리 위축 등을 유발한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관광종사원들이 일자리 손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관광종사원의 이주가 발생할 수 있고, 관광산업의 전반적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문화적 영향으로는 주요한 관광자원인 문화자원의 파손이 우려되며, 축제를 개최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 관습 및 전통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관광과 기타행사 등을 개최·유치하기 어렵다.

보건적 영향은 관광객, 관광종사자 등이 전염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들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으며, 구제역 등으로 관광객의 관광목적지에 대한 기피가 증가할 것이다.

환경적 영향으로는 대표적 관광자원인 자연자원이 파괴될 수 있으며, 관광객 및 관광목적지에 공급되는 수자원이 오염되거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토양침식 및 산림벌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5) 관광위기관리

관광위기관리는 관광부문에서 관광객 및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쟁, 테러, 범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관련 대상자들로부터 신속히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PATA, 2003;Beirman, 2003).

가장 효과적인 관광위기관리는 잠재적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것이며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관광위기관리는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위험이 가장 심각한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명시하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타당성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PATA, 2003).

관광위기관리의 기능으로는 인지, 분석, 계획, 탐지, 조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은 전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인지란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전에 인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둘째, 분석은 개별 위험의 잠재적 영향 및 가능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위험 데이터를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항목별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셋째, 계획은 의사결정 정보를 개별 위험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넷째, 탐지는 위험 데이터를 재분석함으로써 계획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다섯째, 조절이란 위험 완화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수정, 보완하는 기능이다. 여섯째, 커뮤니케이션이란 위험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내·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

을 받는 기능을 말한다.

효과적인 관광위기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관광위기관리를 위한 다섯 단계를 따르는 것과 이를 연계하고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컨설팅, 그리고 모니터링과 점검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APEC, 2004; Queensland Government, 2005) 위기관리 내용과 범위 수립, 위기정의,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처리 5단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관광위기관리의 방향은, 첫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광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관광위기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관광위기관리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등의 국제협력의 강화와 관광목적지에 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는 관광위기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위기발생 상황 대비훈련과 준비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현대 관광위기관리에 있어 지역주민 및 관광종사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사전의 충분한 준비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 발생 이후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방 및 완화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sup>3)</sup>

## 2) 관광위기의 이론연구 동향

### (1)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

관광분야에서 위기관 관광지역에서 관광객의 신뢰에 영향을 주거나, 관광업체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WTO,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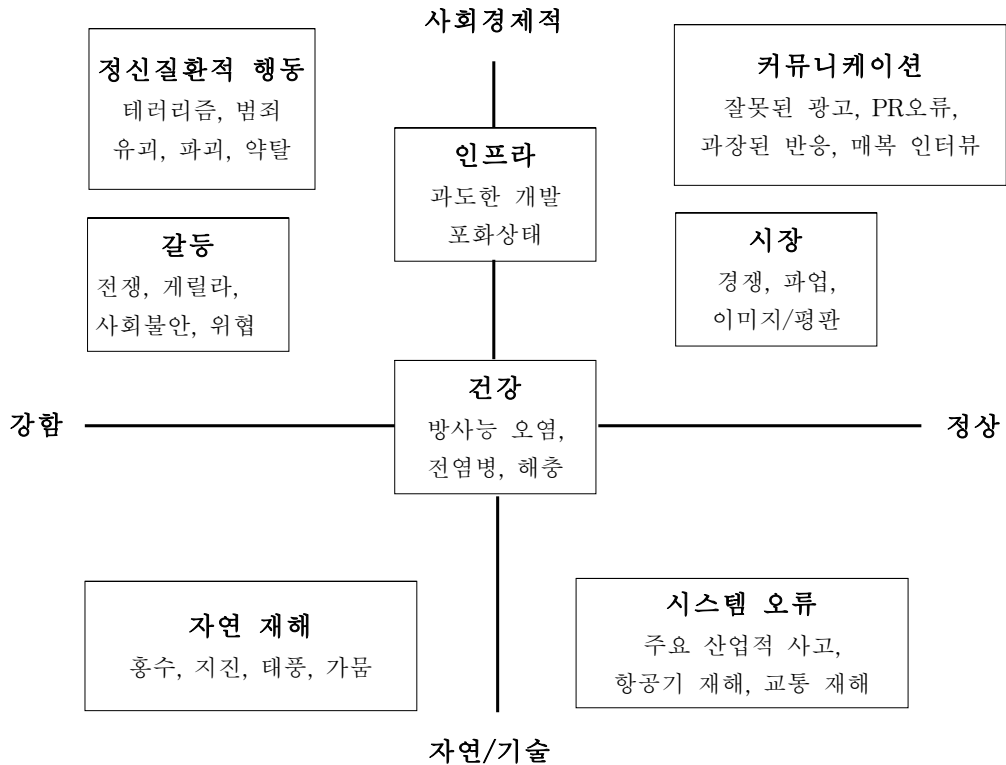
---

3) 김대관(2005), "관광부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005 가을 통권 제21호에서 요약 정리

즉, 위기란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치명적 사건을 말하며, 관광위기도 일반적 위기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관광은 목적지와 연관해서 위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대관, 2005). 여기서 목적지라 함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로 마을, 도시(시·군), 도 및 광역시, 주, 국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목적지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지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목적지 지역의 개인들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업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가난 또는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Santana(2003)는 관광과 관련되어 발생되었던 위기는 관광시설물과 관광자 자체에 관련된 위기로, 관광객과 관련된 폭력적인 범죄, 항공기 재난, 호텔화재, 유괴, 엄청난 인파, 식중독, 사회적 불안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위기사이의 원인-결과의 관계를 가지며, 이에 따라 군집화 몇 개의 군집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산업적 사고는 환경오염 혹은 방사능과 같은 오염에 기인하며, 잘못된 광고는 장소이미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림 2-2] 관광부문에서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구조



자료 : 박향일·김창수(2005), “국제회의산업의 위기관리 모형 연구” 재인용.

PATA(2003)는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를 자연적 위기와 인위적 위기로 분류하고 있다. Lynch(2004)는 관광위기의 유형을 자연적 위기, 사고 및 환경 또는 인위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 또는 테러리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Glaesser(2003)은 지난 20년간의 관광에서의 위기를 나열하고, 그 원인을 전쟁, 환경, 질병, 테러, 교통, 정치·경제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관광위기관리는 관광부문에서 관광객 및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쟁, 테러, 범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언론을 비롯

한 관련공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Faulkner(2001)는 재난 관리 전략을 통해서 많은 잠재적인 위험은 피할 수 있거나 혹은 계획에 의해 착수된 즉각적인 대응의 결과에 의해 위험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Turner(1994), Quarantelli(1984)의 이론연구에 기초하여 재난 구조 전략을 추가하였고, Cassedy(1991)와 Drabek(1995)에 의해 개발된 관광재난 전략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관광재난관리구조(Tourism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 TDMF)를 개발하였다.

Ritchie(2004)의 위기와 재난 관리 모형은 주요 사건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요 세 단계, 예방과 계획, 전략적 실행, 해결·평가·피드백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 내에는 다양한 관리 업무와 활동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유형, 규모, 중요성은 전략 개발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기 및 재난에 대한 이해와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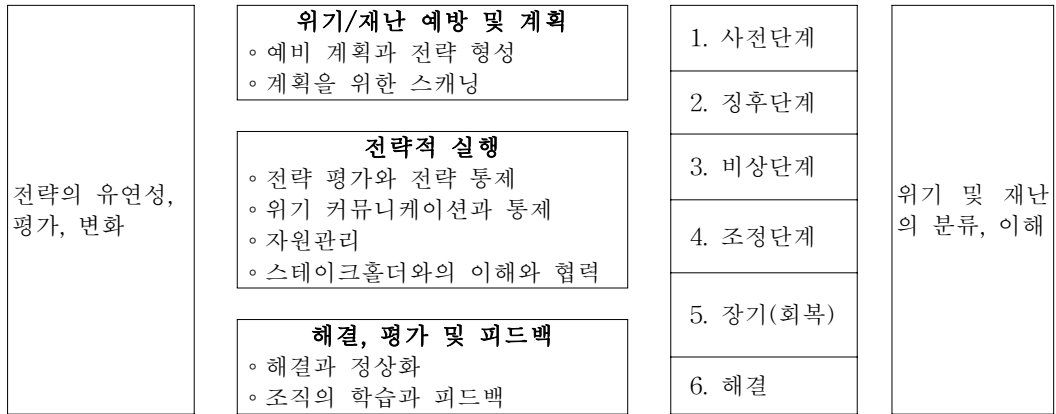
[그림 2-3] 관광재난관리구조(TDMF)

재난 과정 단계	재난 관리 대응 구성요소	재난 관리 전략의 주요 내용
<b>1. 전 단계</b> 잠재 재난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활동 수행단계	<b>전조</b> 재난관리팀 지정 및 구축 관련 민/관 분야 기관/조직 규명 조정/집행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전략 개발, 문서화, 통보 산업 이해관계자, 종사자, 고객, 공동체의 교육 활동 프로토콜에 승인 및 수행	<b>위기평가</b> 잠재 재난과 발생 가능성 평가 잠재 재난의 기원과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 재난 임시 계획 개발
<b>2. 전조</b> 재난이 닥쳐올 것이 명백한 단계	<b>운용</b> 정보 시스템(일반 대중매체 포함) 재난관리명령센터 구축 안전시설	재난 임시 계획 위기에 대한 영향과 그룹규명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와 방문자 역량 평가 개별 임시계획의 목적 명확화 각 단계별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활동 규명 각 단계별 전략적 우선순위 프로파일 고안 - 전조 - 응급 - 조정 - 장기적 회복 진행 검토와 개정 - 경험 - 조직구조와 인력의 변화 - 환경에서의 변화
<b>3. 응급</b> 재난의 영향이 감지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계	<b>활동</b> 구조/피난 절차들 응급 숙박장소와 음식물 제공 의료/건강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b>4. 조정</b> 단기적인 필요가 나타나는 지점이며 활동의 주요 핵심은 정상으로 복구시키기 위함	<b>회복</b> 피해 조사/모니터링 시스템 제거 및 복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략	
<b>5. 장기회복</b> 이전단계의 지속, 신속하게 투입되지 않은 항목은 이 단계에서 수행. 사후검토, 자기 분석, 회복	<b>재건 및 재평가</b> 기반시설 피해 복구 환경적으로 피해 지역 복구 희생자 상담 사업자/고객의 확신과 투자개발 복구 재난 전략 수정 보고	
<b>6. 해결</b> 일상으로 복구	리뷰	

Faulkner(2001). Towards a framework for tourism disaster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22:135-147



[그림 2-4] 위기와 재난 관리: 전략적 구조



자료: Ritchie (2004). Chaos, Crises and disasters: a strategic approach to crisis management in the tourism industry. *Tourism Management*, 25:669-683.

관광에 있어서 위기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해외의 경우 그 연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Deuschl(2006)는 『Travel and Tourism Public Relations』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관광기업을 위한 위기커뮤니케이션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위기관리 계획 또는 계획표를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기 후 24시간 내에 CEO를 기자회견장과 사고 장소에 데려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희생자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보상에 대해 말하며, 네 번째로 한사람의 대변인을 선정한다. 다섯 번째로 위기센터와 위기팀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로는 뉴스 배포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회사의 웹사이트 정보를 업데이트 하며, 여덟 번째로 특별공중을 위해 전화기 800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 직원, 환경운동가, 정부 대표자들과 같은 핵심 공중과 항상 접촉하고 매일 위기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R 대표자를 위기센터와 위기장소에 급파하는 것이다.

## (2) 이론연구의 동향

위기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홍보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산업에서 뿐만 아

나라 컨벤션, 이벤트에서도 위기관리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관광분야에서도 위기관리시스템구축과 그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관광부문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이론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국내 관광분야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김대관(2005)은 우리나라도 테러,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며, 관련 지역의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광 관련 산업에 파생되는 마이너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광부문 위기관리 체계 수립의 필-오성을 제기하였다. 관광위기와 관광위기관리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관광위기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체계구축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향일·김창수(2005)는 타 학문 분야 및 관광분야의 위기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산업에 적용 가능한 위기관리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제회의산업 관련학문의 이론연구들의 위기유형 및 관리체계 이론을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위기관리 모형을 도출하였다.

주현식(2006)은 컨벤션센터 조직의 위기시스템을 진단하고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Mitroff & Pearson(1993)의 양파모형을 통해 위기의 유형, 단계, 시스템분석, 관련공중에 대해 분석하고, 컨벤션시설 관리에 있어 필요한 위기와 재난관리에 필요한 주요요인을 도출하여 조직의 위기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컨벤션시설 관리를 위해 컨벤션산업의 위기관리구조형성과 조직문화 형성, 집단 간의 협동 등을 제안하였다.

유재홍(2005)은 여행사 경영에 있어서 관광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위기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위기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시내 소재 일반여행사 및 해외여행사의 여행사 근무경력 8년 이상의 경영자급을 대상으로 이론연구에 기초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기기입식법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적 위기로인 중,

경제 불황, 전쟁·테러, 자연재해, 질병·전염병의 순으로 우선적 위기관리 대상이 됨을 파악하였고, 위기의 진행속도와 영향정도를 예방적 위기와 즉각적 위기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있어서 예방적 위기에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즉각적 위기에는 매뉴얼에 의한 대응방안의 적절함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여행사의 규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대형 여행사와 중·소규모 여행사의 위기관리의 차이점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해외의 위기관리 관련 연구에서 Hystad & Keller(2007)는 오랜 재난을 겪은 후의 지역관광산업의 영향과 회복 그리고 변화된 위기관리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60여명의 관광산업 경영자의 인터뷰와 산업 관련자의 서베이를 통해 관광목적지로서의 지역관광산업의 위기관리체계의 부족한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담을 위기의 단계별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Paraskevas & Arendell(2007)은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테러 방지를 위한 전략적 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광지 관리조직은 테러 위기상황에서 관광이해관계자들의 조정에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전제하고, 테러와 관광관련 전문가들 인터뷰를 분석하여 관광지 테러방지 전략 개발을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Cioccio & Michael(2005)은 최근 자연재난에 대한 공동체와 사업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주류를 이루며 지역의 재난의 실제적 영향을 받는 작은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northeast Victoria의 영세관광산업의 위기계획과 준비의 실태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지역산업 대표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세산업의 위기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위기관리는 대부분의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Okumus, Altinay & Arasli(2005)은 터키의 Northern Cyprus지역의 2001년 경제위기에 의한 관광분야에서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78개 호텔로부터 설문지와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호텔이 위기에 대한 예측이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Ritchie(2003)는 혼돈, 위기 그리고 재난에 관하여 기존의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위기관리의 전략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관광분야의 위기·재난 관리의 연구 부족을 언급하고, 위기와 재난관리의 전략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고려한 관광산업의 위기와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관광산업의 위기는 외부요인이 많기 때문에 위기를 스캐닝하고 계획하며, 위기발생 시 전략을 실행하고, 위기 후 전략을 평가하여 계속되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nderson(2002)은 위기시 기업의 위기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항공기의 충돌이후, 싱가포르 에어리인의 위기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당시 배포된 뉴스와 미디어 브리핑을 분석하였으며, 이론연구 고찰을 통해 기업의 위기 단계별 전략 분석과 위기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회사의 위기대응커뮤니케이션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서 책임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며 보상하는 단계로 변화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자료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Faulkner(2001)는 관광재난관리모델을 1998년 호주 Katherine지방의 홍수 사건에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관광사업자와 관광지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광지의 위비 전 대비계획의 중요성과 위기 시 세부 계획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역관광협회차원에서의 계획수립과 협력을 위한 중재 역할 그리고 홍보역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관광분야에서 위기는 위기가 발생하는 단계별로 설명될 수 있는데, 김경희(2008)의 연구는 학자들의(Fink, 1986; Roberts, 1994; Coombs, 2001; Fearn Banks, 2005) 위기 단계를 참고하여, 위기전, 위기, 위기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관광위기관리는 관광부문에서 관광객 및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쟁, 테러, 범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명향을 최소화하고, 언론을 비롯한 관련 공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은 관광위기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관광위기에 대응하는 조직, 정보, 커뮤니케이션, 평가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Coombs(1999)는 위기를 3단계로 나누고, 위기관리요소를 예방, 대비, 실행, 학습으로 설정하였다. Hitchie(2004)는 위기를 6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리요소를 위기·재난 예방 및 계획, 전략적 실행 그리고 해결, 평가 및 피드백으로 구성하였다. Gonzalez & Pratt(1995)은 위기커뮤니케이션 관리 모델을 통해 위기관리요소를 쟁점관리, 계획과 예방, 위기, 사후위기로 구성하고 하위요소를 세분화하였다.

김경희(2008)의 연구에서는 제학자들의 위기관리이론과 위기커뮤니케이션이론들을 종합하여 위기단계를 크게 위기전, 위기사, 위기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실행적 의미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표 2-1>과 같이 제시하였다.<sup>4)</sup>

<표 2-1> 위기 단계별 관리요소

위기전	대부분의 학자들이 위기전 관리요소를 예방과 대비를 언급하였으며, 여기에 Mitroff(1987)과 신호창(2003)은 사전위기예측을 추가하였다.
위기사	많은 학자들이 위기시의 관리요소를 관리와 계획 실행으로 보고 있으며, Mitroff(1987)와 Faulkner(2001)는 위기로 인한 충격 축소와 회복이라고 분류하였으며, Sturges(1994)는 커뮤니케이션전략과 집행을 강조하였다.
위기후	위기후단계의 공통적 관리요소는 학습 또는 평가 및 피드백이며, Faulkner(2001)는 재건 및 재평가 그리고 리뷰로 관리요소를 분류하였다.

자료: 김경희(2008), 지방정부의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 체계분석-강원도 수해대책을 사례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김경희(2008), 지방정부의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 체계분석-강원도 수해대책을 사례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 3) 국내 관광분야 재난재해 대책

국내 관광분야에서의 재해재난대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나 대책을 원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로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유원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과 "외국관광객 안전대책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두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중 "유원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원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문화관광부 소관 유원시설에서의 대규모 화재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화관광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여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단체의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재난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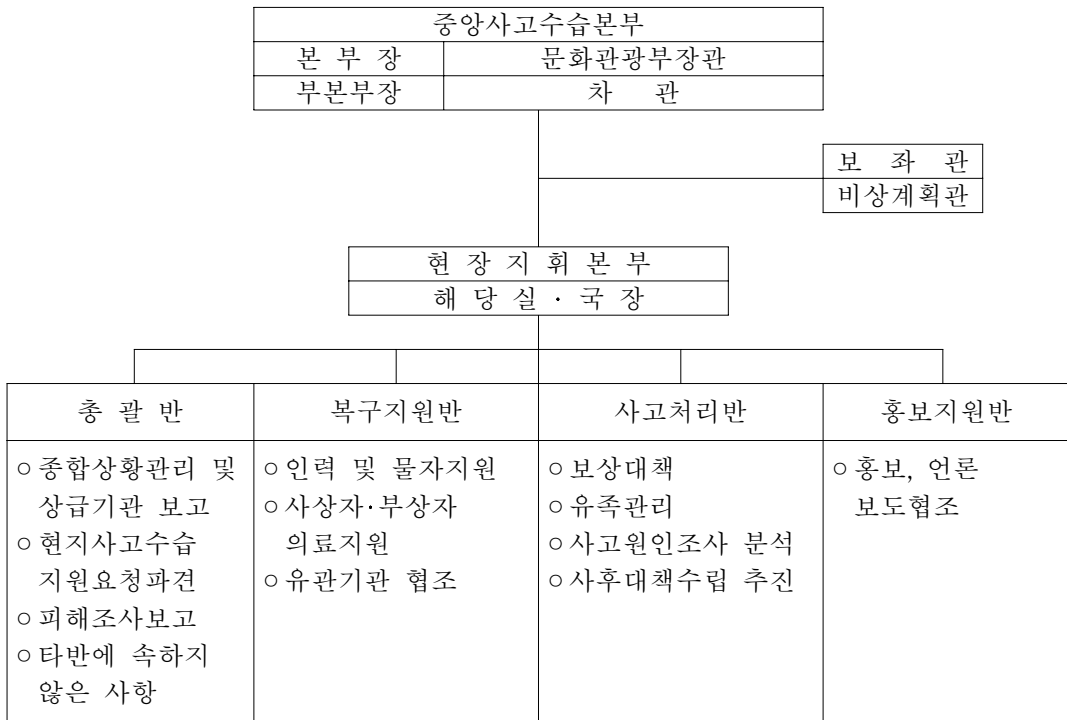
이 매뉴얼은 시간대별 위기전개과정에 따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시간대별 위기전개과정

구 분	관 단 기 준	비 고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청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경보 발령으로 화재 특별 경계활동 강화</li> </ul> </li> <li>○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화재 빈발</li> <li>○ 취약시기 유원시설의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li> <li>○ 사회 불만자 등에 의한 유원시설 방화 급증</li> </ul>	대비업무 수행
대응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 초기화재 발생 신고</li> <li>○ 불특정 다수인 건물내 존재, 인명·재산피해 예측불가</li> <li>○ 화재발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 화재발생 신고 출동요청</li> <li>- 자위소방대 가동 및 상황보고·전파</li> </ul> </li> <li>○ 문화관광부 관광산업팀 「상황실」 운영</li> </ul>	일상적 화재
대응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 화재 연소 확산</li> <li>○ 유원시설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자 다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 5명, 부상 10명 이상의 피해 우려 상황 전개</li> </ul> </li> <li>○ 화재발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사고수습본부 구성, 자위 소방 활동 지속추진</li> </ul> </li> <li>○ 문화관광부 관광국 : 「현장지휘본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일부 가동</li> </ul> </li> </ul>	대형화재 연소확대
대응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 화재로 급격히 연소 확산</li> <li>○ 유원시설 내부에 다수인이 피난하지 못하여, 100 여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국가적 위기상황)</li> <li>○ 화재발생기관: 현장사고수습본부 활동 강화</li> <li>○ 문화관광부 관광국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li> </ul>	대형화재 국가위기 발생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인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지원 체계 구축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li> </ul> </li> <li>○ 응급복구단계(기초시설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도로 가설, 가스, 수도, 통신시설 응급복구</li> <li>- 시설피해로 기관(단체)기능 상실에 대한 대책수립</li> </ul> </li> <li>○ 항구복구단계(기관의 기능 항구적인 복구)</li> </ul>	기관기능 복구, 신속한 업무재개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종합 상황관리, 사고처리,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림 2-5]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



<표 2-3> 단계별 대응조치

단 계		대 응 조 치 내 용
대응 단계	초동 조치	○ 상황파악·전파 및 적기수습을 위한 보고체계
	대응 조치	○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협조·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필요 시 현장조사 지원반 파견
처리단계		○ 사고수습처리 및 필요 시 사고처리대책반 구성 운영 ○ 재난피해 배상(보상) 대책 수립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사후처리		○ 재난피해 현황 및 복구대책 등 평가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아울러 위기발생시 단계별 대응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사후평가 등 사후처리 대책도 수립 운영하고 있다.<sup>5)</sup>



## 2. 국내외 재난 관광피해와 지원 사례

### 1) 유류유출사고 사례

#### (1) 씨프린스호(한국,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는 1995년 7월2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14만4천567톤급)가 운항 중 암초에 좌초되면서 원유 및 연료유 5천 35톤을 유출한 사고이다.

여수 유류유출 사고 후 방제비 20,709백만원, 잔존유 제거 8,420백만원, 환경평가 723백만원 등의 방제비용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보상으로는 어업피해 19,836백만원, 관광피해 538백만원 등이 선주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여수 소리도에서 포항까지 230km, 부산 해역 해안 73km가 기름에 오염돼 어장과 양식장 피해가 736억원에 달했고 224억원이 투입된 기름 회수 작업도 5개월이나 걸렸다. 씨프린스호 사고가 발생한 여수 소리도 부근에서는 아직도 잔존유류가 발견되며 어장이 원상태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씨프린스호 사건 당시 해상 방제와 해안 방제를 거쳐 사고 이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방제조치 완료를 선언하였는데 이것이 다소 성급했고 환경의 복구는 물론 피해 보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씨프린스호 유류 오염사고의 경우 사고에서 어민 피해보상 청구액이 약 735억임에 불구하고 실제 보상액은 2006년 4월 현재까지 약 193억에 불과하여 손해 보상율이 2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피해는 538백만원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상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구체적인 피해내역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5) 라종민(2007), 관광산업 위기 대응방안-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국가 지원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echnical Paper, 2007.2에서 재정리

<표 2-4> 국내 유류사고 손해배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사건	사고 일자	유출량 (톤)	피해배상액				배상주체	
			총액	방제비용	청구액	배상액	선주 보험사	IOPC
씨프린스 호	'95.7 여수	5,035	50,227	방제비 20,709 잔존유 제거 8,420 환경평가 723	73,554	어업피해 19,836 관광피해 538	18,308	31,919
여명호	'95.8 여수	40	1,553	방제비 684	24,003	어업피해 600 관광피해 269	561	992

주 : 2006년 4월 기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93.3 이후 발생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관련사고임

## (2) 엑슨 발데즈(미국, 1989년)

1989년 3월 24일 미국 윌리엄 프린스(William prince)만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국제석유자본인 엑슨 모빌사의 원유수송선인 발데즈호가 좌초하여 1,100만 배럴의 원유를 유출하였다. 이로 인해 원유는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752Km까지 확산되었으며, 약 2,0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낚시와 같은 위락스포츠로 창출되던 편익 손실, 관광객 감소, 해산물 식품산업 타격, 장기적인 주거인구 감소 등의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였다. 사고 전 코르도바 지역인구는 2,500명이었으나, 코르도바 어업인구 가운데 30%가 이주하여 현재 1,400명만 거주하고 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던 자연경관의 파괴와 90종 50십만 마리의 조류 폐사, 300마리의 바다표범 및 5천 마리의 해달, 그리고 프린스만 지역에서 서식하던 36마리의 범고래 가운데 3년 이내에 14마리 사망,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에 따른 동물폐사율이 증가하는 환경적 영향을 미쳤다.

인근 알래스카 관광객수는 최대 35% 가량 감소하였고, 59%의 관련 예약이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1천9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McCammon, 2003).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엑슨사는 공동으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름 유출이 있기 전년도와 비교하여 관광객이 5%나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엑슨 발데즈(Exxon Valdez) 사고에서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민, 관련 기업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직접사용가치)에 대한 보상과 자연경관 및 동·식물 등과 같은 관광자원의 파괴에 따른 간접사용가치 혹은 비사용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였다.

직접적인 사용가치는 수상스키, 낚시 등과 같은 여가와 어로 및 항해와 같은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치이다. 간접사용가치는 관광객이 자연경관이나 생태 감상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이다. 알래스카 인근지역에서는 고래 관찰 관광이 활발한데, 유류유출사고로 고래가 폐사하여 관광이 중지되었을 경우 관광업체가 입은 피해는 직접가치에 근거한 것이며, 고래관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관광객(잠재관광객 포함)의 안타까움은 간접가치에 근거한 것이다.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는 지금 즉시 알래스카 해당지역의 관광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관광계획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혹은 향후 관광계획이 없더라도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이 파괴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도 포함된다.

### (3) 에리카호(프랑스, 1999년)

1999년 12월 12일, 말타의 테베레 해운(Tevere Shipping)이 운영하는 3만 7,283천톤급 원유 운반선 에리카호가 프랑스 브레타뉴 남방 30마일 해상을 통과하던 중 악천후로 인해 선체가 두 부분으로 절단되면서 침몰하여 원유 1만 2,000톤을 유출하였다. 이 사고로 르 킬비넥(Le Guilvinec)에서 생길레 크르와드

비(St. Gilles Croix de Vie)에 이르는 400Km에 달하는 해역이 오염되어 굴양식장, 염전, 해안관광지대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2007년 8월 30일 현재, 관광업을 포함한 전체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및 해결 상황이다. 2007년 8월 30일 항소심 법원은 총보상 청구 제출건수 중 99.7%에 해당하는 6,977건과 보상청구액 388.5백만 유로에 대해 심의하여 5,751건의 청구와 총 보상금액 128,928천 유로를 승인하였다.

<표 2-5> 피해보상 인정금액

분야	보상청구평가 건수	보상청구 기각건수	보상건수	금액(유로)
양식업	1,004	90	846	7,763,339
조개수확	534	114	370	889,189
어업	319	30	282	1,099,551
수산물 가공	51	7	43	976,832
관광	3,690	452	3,206	75,930,210
재산피해	711	290	416	2,452,680
방제작업	145	12	125	31,871,530
기타	523	53	463	7,945,619
Total	6,977	1,048	5,751	128,928,950

IOPC펀드와 보험사는 일부 호텔의 경우 홍보브로셔의 ‘비즈니스 호텔’ 명칭을 문제 삼아 관광업 보상 부문에서 배제시켰다. 일반 관광객보다는 사업차 출장 온 숙박객들이 주로 머무는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유류사고로 인해 출장객들이 줄었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논리였다. 관광업 분야는 주로 호텔업, 보트 판매 및 대여업 등에서 피해배상을 청구에 하였고, 호텔측에서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나 정신적 피해 부문은 기각되었고 사고 발생 9개월 이후부터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4) 프레스티지호(스페인, 2002년)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북서부 해안에서 200여km 떨어진 바다에서 원유 77,000톤을 실고 가던 프레스티지호(Prestige)가 폭풍우에 좌초되었다. 그 후 대서양으로 견인되던 프레스티지호는 11월 19일 스페인의 포르투갈 인접 항구 도시 비고(Vigo)에서 17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두 쪽으로 분단되었으며 63,000톤의 원유를 배출하였다.

프레스티지호 사건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남서부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관광 관련 주요 피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사고발생 1차 년도에 프랑스 해안지역은 관광객 예약율 50% 감소 및 관광산업 종사자의 60%가 전업하였고, 사고발생 1차 년도에 스페인 갈리시아(Galicia) 지역에서는 내국인 숙박여행객 15%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하였다.

<표 2-6> 프레스티지호 사건으로 인한 관광 피해현황

구분	주요 내용
프랑스 남서해안 지역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년도에 관광객 예약율 50% 감소, 관광산업의 60%가 전업</li> <li>- 27,000명이 영구 실직하였고, 45,000명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상실</li> </ul>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년도에 내국인 숙박여행객 15%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li> <li>- 관광비용에 있어서도 내국인숙박관광객 19%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li> </ul>

자료 : 1) BBC News(2003년 3월 7일), Oil threat to French tourism

2) MDolores Garza-Gil, Albino Prada-Blanco and M. Xosé Vázquez- Rodríguez (2005), "Estimating the short-term economic damages from the Prestige oil spill in the Galician fisheries and tourism", Ecological Economics, pp. 842-849

<표 2-7> 프레스티지호 사건 전후의 갈리시아지역 숙박관광객 현황

구분 방문형태	2002년		프레스티지호사건 발생후(2003년)		차이			
	숙박객수 (백만)	Million € - 03	숙박객수 (백만)	Million € - 03	숙박객수		Million	
					(백만)	비율(%)	€ - 03	비율(%)
내국인 숙박여행객	16.90	211.25	14.43	170.25	-2.47	-15	-41.0	-19
외국인 숙박여행객	10.30	477.92	8.16	384.62	-2.14	-20	-93.3	-20

자료: M.Dolores Garza-Gil, Albino Prada-Blanco and M. Xosé Vázquez- Rodríguez (2005),  
 “Estimating the short-term economic damages from the Prestige oil spill in the Galician  
 fisheries and tourism”, *Ecological Economics*, pp. 842-849

2003년 6월과 2004년 7월에 스페인 정부는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관련해 특  
 별법 2개를 제정하여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IOPC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민으로부터 인수하는 선보상을 시행하  
 고 이후 정부와 IOPC 간에 협상을 통해 지금까지도 보상금이 정부에 지급되  
 고 있다. 국영보험사에서 피해규모 조사를 시행하여 피해주민 95%를 보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8> 스페인의 보상청구 내역

(단위 : 유로)

분 야	보상청구건수	청구 요청된 금액
재산피해	232	2,065,970
방제작업	17	3,923,652
양식업	14	19,096,081
어업 및 조개 수확	180	3,610,885
관광	14	688,303
수산물 가공 및 노점상	299	20,145,298
기타	74	1,761,785
스페인 정부	9	559,376,830
합 계	839	610,668,804

프랑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474건, 118,540,358유로의 보상이 청구되었으며 이중 400건(84%)가 평가되고, 나머지는 서류미비로 보류되었다. 관광업의 보상청구 금액이 25,268,938유로로 스페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2-9> 프랑스의 보상청구 내역

(단위: 유로)

분 야	보상청구건수	청구 요청된 금액
재산피해	9	87,772
방제작업	59	10,461,115
양식업	125	12,220,546
조개 수확	3	116,810
어업	59	1,601,717
관광	194	25,268,938
수산물 가공 및 노점상	9	301,446
기타	15	982,860
프랑스 정부	1	67,499,154
합 계	474	118,540,358

##### (5) 국내외 유류유출사고 사례의 시사점

피해규모가 큰 경우 피해 보상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선보상을 한 이후 정부가 IOPC와 직접 협상하는 사례가 최근의 대형 유류유출사고의 보상과정에서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리카호, 엑슨 발데즈호의 경우에서 보면 가해기업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징벌적 배상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관련 입법의 개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상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피해금액 산정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상과정에서의 지원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 보상은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 비중이 다르고 입증의 명확성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관광피해 규모 추정에서도 관광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숨겨진 피해와 오염의 지속기간까지 고려하여 연도별 관광피해 발생 규모 총액을 산출하는 것이 보상과정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요 유류유출 사고의 관광업 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씨프린스호(1995년) 538백만원, 나호토카호(1997년) 1,344,157천엔(약 120억원), 에리카호(1999년) 76,450천유로(약 1,100억원), 프레스티지호(2002년) 25,957천유로 청구(약 4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sup>6)</sup>

<표 2-10> 관광피해 보상의 주요 사례

구분	관광 보상	IOPC 보상한도	유출량
씨프린스호(한국, 1995)	538백만원	50,227백만원	5,035톤
나호카호(일본, 1997)	1,344,157천엔	26,089,893천엔	6,200톤
에리카호(프랑스, 1999)	76,450천유로	184,760천유로	14,000톤
프레스티지호(스페인·프랑스, 2002)	25,957천유로	171,520천유로	25,000톤
허베이스피리트호(한국, 2007)	720억원~1,440억원	3,216억원	1만여톤

자료 : 김희수(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 국내 태풍 관광재난 현황과 지원 사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빈도가 높고 관광분야에 파괴력이 크게 미친 집중호우와 태풍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특히 유사 이래 한반도 상에 가

6) 김희수(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보고서에서 요약 정리함



장 큰 피해를 준 2002년의 태풍 루사가 발생하였을 때의 강원도, 2003년의 태풍 매미 경우의 경상남도, 2006년의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시 강원도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2002년 강원도 피해 및 지원현황

2002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2년은 전국이 집중호우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2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호우와 태풍 라마손, 루사로 인한 홍수피해는 전국적으로 인명은 27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농경지 유실 19,990ha을 포함하여 총 피해액이 6조 1,153억 원이라는 최대 피해를 기록하게 되었다.(소방방재청, 2003)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 사망, 실종이 151명, 총 피해액이 2조 7,388억 원으로 단일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강원도 2003)

이중 관광분야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나 복구나 지원에 관한 자료는 소방방재청 자료나 강원도의 수해백서 어디에서든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부분적으로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별도의 정리된 항목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강원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재해복구 사업 신청한 자료와 문화관광부의 재해복구사업 결정서를 검토한 결과, 동해시의 무릉계곡 등 28개소의 관광시설에 대해 81억여 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문화관광부, 2002) 물론 동 자료는 공공부문에 국한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 없었다.

### (2) 2003년 경상남도 피해 및 지원 현황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 129명과 5조 40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소방방재청, 2003) 이중 경상남도는 65명의 인명 피해와 복구액이 3조 80억 원으로서 전국의 47%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2002년의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이중 관광분야에 대한 피해 현황 자료나 복구나 지원에 관한 자료는 소방방재청 자료나 강원도의 수해백서 어디에서든 찾을 수 없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의 재해복구사업 결정서를 검토한 결과, 통영 도남관광지 등 25개소의 관광시설에 대해 86억여 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문화관광부, 2003)

### (3) 2006년 태풍·집중호우 피해 및 지원현황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총 16개 시·도 213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49명, 실종 13명의 인명피해와 총 1조 8,344억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이중 강원도가 1조 3,098억 원의 피해를 보아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2006) 이 경우에도 여타 피해 사례와 같이 관광분야 공공, 민간 부문을 망라한 피해현황 자료나 복구·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었다. 다만,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문화관광부 자료에서 관광지 피해 및 지원계획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동 자료는 공공부문에 국한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고씨굴 관광지 등 36개의 관광지에서 45억 6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2006)

2006년 호우 지원사항에서 특이한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2007년 2월과 3월 기간에 동계올림픽 유치후보지인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IOC실사 대상시설인 용평리조트 등 주요 관광시설을 포함한 접근도로망, 경기장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시설만 총 99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IOC 실사 대상 리조트 시설이 647억 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실사 대상 지역으로의 접근도로망 4개 노선 (국도 59호선, 지방도 456호선, 지장도 408호선, 군도 12호선)에서 346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 또한, 경기장 4개 시설에서 2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문화관광부 2006)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 실사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 원을 저리로 긴급 지원하기도 하였다.

<표 2-11> 강원도 IOC 실사대상 리조트 시설 피해 현황

대 상	지 역	금 액(억원)	피 해 내 용
용평리조트	평창	539	호텔, 진입로 등
보광휘닉스	평창	60	골프, 스키장
성우리조트	횡성	48	스키장, 건물파손
오색그린야드호텔	양양	100	침수, 파손 등

자료 : 라종민(2007). 관광산업 위기 대응방안-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국가 지원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echnical Paper.

또한, 2006년 호우 복구 과정에서는 예전과는 아주 다른 단기적인 관광지 회복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가장 호우 피해가 큰 강원도에서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강원도와 함께하는 여름휴가 3·1·2"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여름휴가 3일 중 1일은 수해복구에 자원봉사하고 나머지 2일은 마음껏 휴가를 즐기자는 개념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수해 피해로 인한 휴가객들의 정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인 강원도의 경제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었다.<sup>7)</sup>

### 3) 해외 지진과 해일의 관광피해 사례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은 2개 대륙, 12개국에 피해를 줬으며 특히 인도양 연안의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몰디브, 스리랑카 등 아시아국들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피해국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사망, 실종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며 유엔은 지진 해일 피해복구에 향후 3-5년간 총 100억-1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유엔, 2005)

전체 규모 면에서 가장 피해가 큰 인도네시아와 관광분야 피해가 큰 스리랑카, 태국, 몰디브의 경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사망 12만6천473명, 실종 9만 3천943명으로 전체피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지진해일 최대 피해지인 아체(Aceh)지역과 2,000km 이상 떨어진 인도네시아 대표적 관

7) 라종민(2007), 관광산업 위기 대응방안-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국가 지원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echnical Paper, 2007.2에서 요약 정리.

광지인 발리 섬 등은 지진해일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인도네시아, 2005)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05년 1월 발리로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나 급감하였다.(세계관광기구, 2005)

몰디브는, 국가 전체가 평균 해발 1m의 저지대이나 산호초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았다(사망, 실종 107명).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전체 87개 휴양지 중 19개 휴양지가 피해를 보았으며 2억 5천만 불의 관광수입 손실을 추정하였다. (몰디브, 2005)

스리랑카는 수도인 콜롬보 등 1,126km에 이르는 해변이 피해를 보았으며 39,957명 사망, 5,637명의 실종 피해를 보았다. 15만 명의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휴양지 복구비용으로 2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스리랑카, 2005)

푸켓(Phuket), 피피섬(Phi Phi Island), 카오락(Khao Lak) 등 대표적인 관광지가 심한 피해를 본 태국은 사망 5,395명, 2,991명 실종, 412개 마을 6,824채의 집이 파괴되었고 10억 불의 관광부문 인프라 손실이 추정되며 전체 숙박시설(53,860실)의 25%(13,417실)가 피해를 보았다.(태국, 2005)

세계여행관광위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가 제5차 세계여행관광정상회의(World Travel Tourism Summit 2005, 4, 8-10, 인도, 뉴델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해일로 인한 2005년 관광산업 피해는 30억 불 정도,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태국의 경우 22.8%의 관광객 수입 감소와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의 16.7% 손실 또는 12억 불 감소, 94,78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몰디브는 29.9%의 관광객 수입 감소, 30.4%의 국내총생산 감소 또는 5,500만 불 손실, 10,440개의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스리랑카는 21.4%의 관광객 수입 감소,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의 14.1%또는 2억 1백만 불 손실, 66,84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9.11 테러의 금전적 피해는 지진해일의 37.5배, 고용의 2.8배였으며 홍콩에서 발생한 SARS는 지진해일 금전 피해의 40%, 고용의 10%이며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섬 폭탄테러는 지진해일 금전 피해의 20%, 고용기준

1.8배이었다고 밝혔다.(세계여행관광위원회, 2005)

한편,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지진해일 관련 제2차 긴급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항공교통과 입국자료 및 주요 시장조사에 기초한 지진해일 피해국의 관광통계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 항공교통량은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하였으나 아시아 태평양지역 항공사의 항공교통은 2004년 12월 7%, 2005년 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몰디브 입국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04년 12월 24% 감소, 2005년 1월 70% 감소하였으며, 스리랑카는 2004년 12월 15% 증가, 2005년 1월 24%의 감소를 보였으며 태국 방콕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2004년 12월 2% 증가, 2005년 1월 12%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세계관광기구, 2005)

세계관광기구가 작성한 2005년 3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위한 제2차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보고서 원문을 통하여 세계의 재난에 의한 관광피해 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수년 동안 세계관광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분위기에서 지내 왔다. 9.11 테러, 이라크에서의 지리 정치적 갈등, 사스 전염병 같은 위기들을 경험한 데 이어 세계관광은 다시 한번 2004년 말 비극을 맞이했다. 인도양을 강타한 강력한 지진해일은 관광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킨 세계관광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재해였다.

비록 인간 생명과 물리적 인프라에 심각한 충격을 준 예측되지 않은 비극이었지만, 관광분야에 대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관광 인프라에 대한 충격은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 3개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경우 수마트라 인근 작은 섬인 니아스(Nias)만 피해를 보았다. 인도 동부 해안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는 지역이며 말레이시아, 세이셸(Seychelles)은 한 한정된 피해만 입었다.

지진해일의 관광분야에 대한 충격은 한정적이지만 그 비극은 여전히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재해였다. 태국의 피해지역은 국민관광량이 9%이지만 관광으로 인해 이제 막 가난에서 벗어났다가 재해 때문에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었다.

몰디브는 국내총생산의 비율로 볼 때 심각한 정도였다. 지진해일피해 및 일 전 몰디브는 저개발국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지진해일의 강타는 대체로 아시아 관광에 있어 제한적이었지만 그 피해는 특별히 가난한 지역사회의 관광 중소기업에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의 비극에 이어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대체로 엄청난 사망자를 내고 물리적으로 파괴된 지역과 관광지를 연관시키는 황폐화된 이미지 형성으로 인한 2번째 지진해일(Second Tsunami)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지진해일 피해를 본 아체(Aceh) 주와는 2,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관광객 수가 급락했다. 태국의 다른 지역과 스리랑카 내부지역까지 직접적으로 관광분야는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지진해일과 관련 없는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본 4개국들은 지진해일이 없었다면 2004년도 국제관광은 대체로 완전성장의 시기였다.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4년 입국자가 2003년 사스로 인한 감소를 보전하는 19%, 18% 각각 증가하였고 사스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스리랑카, 몰디브는 각각 13%, 9% 성장했다.”라고 보도했다.(세계관광기구, 2005)

또한,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1월 31일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 후 관광공급 측면에서 지진해일피해 회복과정의 다양한 발전들을 모니터하였다. 즉, 해당지역에서의 관광량, 목적지 입국자수, 항공교통 패턴, 주요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호텔의 80% 이상이 정상이거나 운영 준비 중이다.
- 여행에 대한 확신은 높고 성숙한 시장에서는 더하다.
- “뜨거운 가슴과 함께 휴가를(holiday with your heart)”이라는 메시지는 인기를 얻고 있다.
- 독일, 영국에서 전세기는 점차 재취향하고 있지만 예약은 여전히 낮다.
- 간단히 말해 시장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은 강하고 아시아는 탄력적인 회복을 하고 있다.(세계관광기구, 2005)

이어서 동 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광의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과 호텔시설과 서비스 등의

준비에도 지진해일 피해를 본 4개국에서의 호텔 점유율은 여전히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관광지의 준비태세와 주요 시장에서 이에 대한 지식의 부족 간의 엄청난 차이였다.

세계관광기구 긴급 태스크포스에 제출하기 위하여 VISA 아시아태평양이 실시한 “지진해일 후 세계여행 의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sup>8)</sup>

“지진해일 후 아시아를 방문하려는 의도를 가진 관광객의 대다수는 피해지역의 보건 위생·정화 정도, 인프라 및 관광객 시설들에 대한 지진해일의 피해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지진해일 재난 후 태국 푸켓, 스리랑카, 몰디브 같은 피해를 본 관광목적지에서 국제여행은 현저히 떨어졌고 관광수입에 의존해 사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지진해일의 범위와 집중적인 언론 취재의 여파로 국제여행객들은 아시아 목적지의 상태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의 관광산업계와 관광당국은 재건의 임무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관광지와 관련한 관광객의 확신을 제고시켜야 하는 힘든 도전에 직면했다.

또한, 아시아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운 방문객 중 65%가 대체로 지진해일은 그들의 여행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52%는 지진해일은 특별히 피해지역에 대한 그들의 여행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30%는 지진해일 여파는 피해지역에 대한 여행을 연기시켰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동보고서는 지진해일의 충격은 다른 국가 방문객과 비교할 때 한국인, 일본인 여행객들에게 훨씬 더 심각했고 지진해일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머지지역방문의향도 좌절시켰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49%의 일본인 여행객과 60%의 한국인 여행객이 지진해일 때문에 아시아지역 여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54%의 일본인 여행객과 63%의 한국인 여행객이 2005년에 지진해일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인(69%), 프랑스인(65%), 독일인(60%), 호주인(60%)들은 지진

---

8) 동 조사는 2005년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10개국 13,256명의 국제여행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일이 피해 지역으로의 여행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몇몇 국가에서는 지진해일은 사실 아시아로의 여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대략 5분의 1의 여행객들은 지진해일피해가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고 싶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타적인 감정의 반영이고 그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표현이다. 이는 특별히 캐나다인, 영국인, 스웨덴인, 호주인 여행객들이었다.

동 보고서에서 그들은 피해국에서 휴가를 갖는 것이 지역사회와 경제가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와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강한 확신을 밝혔다. 그러나 또한 피해 지역민들은 어려운 시간을 갖는데 휴가를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ISA의 조사는 아시아로의 여행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은 주요 시장에서 현저하게 다양함을 보여준다. 몇몇 국가의 여행객들은 지진해일 피해국 방문에 높은 염려와 반감을 갖는 반면, 다른 국가의 여행객들은 훨씬 덜 영향받고 호의적이어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에 있어 각기 다른 주요 시장에 맞추어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피해 지역의 보건, 위생, 청결 상태, 인프라와 관광시설물 등의 지진해일 피해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했다. 이는 여행에 관한 대부분의 장벽은 여행지의 인프라 구축과 안전에 대한 부정확함에 근거하는 듯하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는 이점이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서 관광지 복구와 관련하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인프라, 서비스, 분위기의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깊은 인식은 회복을 촉진하고 쇠퇴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세계관광기구의 초기 인식은 전체 피해에 비해 관광분야에 대한 피해는 한정적이지만 생계를 관광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막대했다고 보았고 세계관광의 역사상 가장 큰 재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매일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진피해의 현장 소식은 폐허가 되고 모든 게 황폐화되어버린 장면들이었다. 이러한 소식은 세계 각국의 인도적인 지원 등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동 피해지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거나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여행을 주저하게 하여 간신히 피해로부터 벗어나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지진해일(Second Tsunami)을 맞이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05년 2월 실시한 “지진해일 후 세계여행 조사”에 근거하여 피해지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최우선 순위의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sup>9)</sup>

#### 4) 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관광피해 지원 사례

##### (1) 푸켓 액션플랜

2004년 12월 24일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하자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5년 1월4일 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국인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관광지 피해의 상징 지역인 태국 푸켓에서 2005년 2월1일 세계관광기구 설립 이래 최초로 긴급 집행이사회<sup>10)</sup>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 집행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긴급 지원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관광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의장 인도 관광부 장관)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sup>11)</sup>를 2005년 1월31일 개최하였다.

2005년 2월1일 개최된 집행이사회는 탁신 태국총리,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인도 등 16개국의 장관 등 43개국 정부기관, APEC, ASEAN 등 4개 국제기

---

9) 라종민(2007), 관광산업 위기 대응방안-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국가 지원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echnical Paper, 2007.2에서 요약 정리

10) 집행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 29개국으로 구성되어 세계관광기구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11) 분야별 전문가,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남아아 4개국 대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세계여행관광위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 VISA 등 7개 민간분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태국, 몰디브,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피해국으로부터의 피해현황 보고에 이어, 세계관광기구가 위촉한 전문가들의 국가별 피해상황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가 있었다.

집행이사회 의장인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은 의장성명을 통해 세계관광기구 회원국들에 대해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액션플랜의 집행상황을 집행이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제안하였다. 또한,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인 프란체스코 프랑지알리 (Francesco Frangialli)는 "우리는 관광산업의 인간중심적인 측면과 일자리 구제, 소규모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판매촉진 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관광객 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태국의 국무총리 탁신 시나왓 (Thaksin Shinawatra)은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사람은 그들의 생계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기서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후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된 푸켓 액션플랜은 지진해일 피해 국가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관광산업의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활동 계획들을 담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보다는 이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한 마케팅 지원, 지역 내 중소 관광업체 지원, 직업 교육, 지속 가능한 관광 재개발, 위기 관리 5개 영역으로 나뉘지며 계획에 포함된 몇몇 활동 내용은 성격적, 지역적 성향을 나타내는 반면 스리랑카, 태국, 몰디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특수한 활용내용을 담고 있다.

- ① 피해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 ② 관광관련 일자리 구제와 중소규모 관광 산업체의 재출발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구호
- ③ 관광종사원의 직업훈련 또는 재훈련
- ④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굳건한 재개발
- ⑤ 관광분야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즉, 푸켓 액션플랜의 주요 목표는 피해 관광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음으로써 관광산업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며, 기존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소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관광사업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피해지역의 지속개발 가능성을 강화하고 유엔과 협력하여 재해를 줄이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었다.

이후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3월 10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기간에 제2차 세계관광기구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 목적은 더욱더 많은 국제적인 지원과 관광산업 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푸켓 액션플랜의 실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있었다.

동 회의에서 세계관광기구는 피해국들의 관광산업 회복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 3개국 호텔의 80% 이상이 정상운영 또는 영업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스리랑카는 246개 호텔 중 200개 이상의 호텔이 영업 중이며 오직 5개만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몰디브에서는 87개 리조트 중 19개만이 피해를 보았고 태국 푸켓의 경우 호텔 등이 지진해일 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며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관광객이라고 하였다.

## (2) 세부 지원 사업

세계관광기구는 푸켓 액션플랜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국들과 협의 및 국제관광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5개 영역 44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대상 팸 투어, 여행업자 대상 팸 투어, 언론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 중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한 지원금 이용방법의 제공, 위기관리 워크숍 개최 등이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언론, 여행업계 대상 팸 투어 실시, 관광박람회 부스비용 경감, TOURCOM(The World Conference on Tourism Communications) 개최, 범세계적인 구호 캠페인 실시, 세계관광기구 웹사이트에 지진해일피해 특별링크 운영, 시장조사 실시 등을 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표와 같다.

<표 2-12>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언론, 여행업계 대상 팸 투어 실시	언론이나 여행업계 대상 팸 투어는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스리랑카 및 몰디브에 국제투어오퍼레이터 연맹(IFT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our Operaors) 회장과 이탈리아 투어오퍼레이터연맹(ASTOI: Association Tour Operators Italiani)의 전 회장 등 고위급 투어오퍼레이터를 현지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관광박람회 부스비용 경감	2006년 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FITUR를 시작으로 3월의 한국 DAEGU TOUR EXPO, 3월 헝가리의 UTASZAS, 4월 스페인 발렌시아의 TCV, 4월 중국 BITTM, 4월 멕시코의 TIANGUIS, 6월의 한국 KOTFA, 9월 일본 WTF, 10월 한국 BITF, 11월의 중국 CITM 등에서 지진해일 피해국들에 대한 박람회 부스비용의 경감 또는 면제를 하였다
TOURCOM (The World Conference on Tourism Communications) 개최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피해지역은 아니면서 관광객들의 오도된 인식으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인식도를 높이고 지진해일 피해 극복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 5월20일부터 21일까지 TOURCOM을 개최하였다.
범세계적인 구호 캠페인 실시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피해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범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지진해일피해, 관광이 복구를 돕는다(Tsunami-tourism helps recovery)"는 슬로건 아래 스티커 2만 매 및 포스터 3천 장을 제작하여 2005년 3월에 열린 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여행업계, 투어오퍼레이터, 관광관련 언론 등에 배포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세계관광기구 웹사이트에 지진해일피해 특별링크 운영	푸켓 액션플랜의 하나로 지진해일피해 국가의 관광분야 피해상황 및 복구 진전도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e-Turbo News 및 해당 피해국들과 협조하여 세계관광기구 공식 사이트에 지진해일 관련 특별링크를 운영하였다.
시장조사 실시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발생 초기 관광분야에서 극심한 타격을 받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몰디브 4개국에 대한 2차례의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세계관광기구의 범세계적인 구호 캠페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 ② 지역사회 구호

지역사회 구호(Community Relief)를 위한 사업으로는 몰디브 지진해일 충격 평가 실시와 관광관련 중소기업체의 복구기금 이용방법 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3> 지역사회 구호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몰디브 지진해일충격 평가 실시	세계관광기구는 현장의 실상을 지진해일 피해관련 지원국가나 단체 등에게 제대로 알려 관광분야에 더 많은 지원금이나 기금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3월에 몰디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진해일의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하였다.
관광관련 중소기업체의 복구기금 이용방법 등 지원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3월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관광관련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진해일 피해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그들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금에 관한 이용절차를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 주민공동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진해일피해 지원국가나 기부단체에도 보내 활용하도록 하였다.

## ③ 직업훈련

직업훈련(Professional Training)은 세계관광기구 PRACTICUM 참가 지원과 세계관광기구 TEDQUAL 참가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표 2-14> 직업훈련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세계관광기구 PRACTICUM 참가 지원	세계관광기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PRACTICUM은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정부 관광조직이나 관광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세계관광기구는 한국정부의 협조 아래 지진해일피해 국가를 대상으로 2명씩의 공무원을 무료로 초청하였는데, 2005년 4월과 10월에 태국을 제외한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세계관광기구 TEDQUAL 참가 지원	TEDQUAL은 관광분야의 교육, 훈련,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조사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방법을 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 또한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2005년 5월에 10일간의 일정으로 안도라공화국에서 진행 되었다

#### ④ 위기관리

위기관리(Risk Management)사업은 위기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와 위기관리 전문가의 스리랑카 파견 등을 시행하였다.

<표 2-15> 위기관리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위기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세계관광기구는 남아시아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전시회인 남아시아여행관광교류전(South Asia Travel & Tourism Exchange)조직위 원회와 함께 2005년 4월 20-21일 양일간 인도 델리에서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위기관리 전문가의 스리랑카 파견	2005년 5월에 1개월간 세계관광기구의 위기관리 분야 전문가 1인을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지진해일피해 후 복구상황 점검 및 위기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자문하게 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콜롬보에서 위기관리 워크숍 및 지진해일 피해 중소기업체의 금융지원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⑤ 지속 가능한 재개발

지속 가능한 재개발(Sustainable Redevelopment)사업은Indicators Workshop 개최, 스리랑카 그린벨트 재개발, 태국 그린벨트 재개발, 3차 몰디브 관광종합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졌다. 세부계획은 다음 <표 2-16>과 같다.

### 3. 이론연구 및 사례분석의 시사점

#### 1) 국내 재난피해 관광대책과 지원 사례의 시사점

국내의 경우 관광분야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나 복구나 지원에 관한 자료는 소방방재청의 자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백서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부분적으로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별도의 정리된 항목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2-16> 지속 가능한 재개발(Sustainable Redevelopment)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Indicators Workshop 개최	2005년 5월 태국 푸켓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재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Indicators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지진해일 피해국 등에서 참가하였다. 이 워크숍의 개최 목적은 지진해일 피해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에 관한 최신정보의 제공, 환경·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척도 및 모니터 방법론에 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스리랑카 그린벨트 재개발	세계관광기구는 2000년에 향후 10년간의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의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관광시설과 환경조건, 관광 인프라의 질에 관한 특별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동 계획에 대한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미 수립된 10개년계획의 권고 사항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는 데 있었다.
태국 그린벨트 재개발	지진해일로 인해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인 푸켓과 그 인근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푸켓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준비 중이다. 동 사업 또한 해변관광 관리를 위한 지침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관광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3차 몰디브 관광종합계획 수립	몰디브는 세계 6대 급부상 관광지의 하나로 세계관광기구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관광산업은 몰디브 경제의 필수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지진해일로 인해 몰디브 관광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몰디브 정부는 세계관광기구에 3차 몰디브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동 계획은 위기관리, 시장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참여와 고용 증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몰디브 경제에 있어 관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지속가능성의 방식에 있어 전반적인 몰디브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자문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구호 내용에도 관광사업자나 관광업체 등 관광부문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

이는 태풍 등 재난 시에 관광분야의 공공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적 측면의 복구 지원만 있었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대책이나 소규모 관광사업체나 관광종사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지역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하는 홍보활동이나 마케팅 활동도 없었으며, 관광분야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세부 피해 자료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태풍 피해 후 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또는 관광객들이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 잊을 때까지 관광사업체나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이중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계속 겪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 2) 외국 재난관광 피해 및 국제관광기구 지원사례의 시사점

### (1) 재난지역 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에 의한 지원대책 마련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피해국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관광 부문에서 지진해일 충격을 어떻게 보았는가와 피해 복구에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지역의 관광피해 현황에 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극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세계관광기구가 작성한 2005년 3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위한 제2차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자체적인 지원대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특히, 44개의 세부사업 중 세계관광기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주력했던 사업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제공이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언론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팸 투어를 실시하였다. 언론이나 여행업계 대상 팸 투어는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그리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볼 때 피해지역 회복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대다수 여행사는 자신들만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객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여행객을 송출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적인 팸 투어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5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TOURCOM 역시 피해지역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인식도를 높이고 피해 극복상황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지진해일 피해국가의 관광분야 피해상황 및 복구 진전도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세계관광기구 공식사이트에 지진해일관련 특별링크로 운영 하였다. 이 링크는 지진해일 피해국가의 피해현황, 복구상황, 현재 이용 가능한 호텔 및 숙박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여행객 및 언론, 여행업계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게 하였다. 즉, 피해국들과 연계, 실시간으로 관광지 복구상황 및 호텔 등 숙박시설 상황 등의 정보제공으로 관광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업 외에 인도적인 차원의 구호 캠페인도 벌였다.

또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팸 투어는 피해 관광지의 실제 피해상황을 직접 보고 느낀 점 등을 여행객들에게 균형 잡히고 솔직하게 전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소비자의 확신을 구축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피해지역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피해지역에서 관광 인프라가 실제 작동하고 있고 피해지역의 경제복구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2) 피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오게 하는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

재난 후 관광객 감소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 지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객이 해당 지역으로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2차 지진해일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관광관련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은 다시 한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해당 지역의 황폐화된 이미지와 피해지역 관광지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정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가 지진해일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돕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피해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범세계적인 여행 캠페인을 전개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우리나라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의 3·1·2캠페인은 발길을 돌린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태풍과 장마가 휩쓸고 지나간 강원도에 여름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리면 손해보다 더 큰 힘겨운 현실이 강원도에 닥치게 된다고 호소하며 손해로 인해 피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감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자원봉사와 그 지역 여행이 오히려 수재민을 도와준다는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후 이 지역으로의 관광객(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 기준)이 동 캠페인 실시 전에는 전년동기 대비 24%수준이었으나 캠페인 후에는 82% 수준까지 회복을 하였다.(2006, 강원도) 이는 피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써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3) 시장조사에 의한 지역 인지도 파악 및 마케팅 자료 활용**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는 정책수립 시 유용하고 정확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며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준다.

세계관광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발생 초기 관광분야에서 극심한 타격을 받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몰디브 4개국에 대한 2차례의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광수요 측면에서 주요 관광객 송출국가로 중심으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하였고, 관광공급 측면에서 4개 국가에서의 호텔 점유율, 항공교통 패턴, 관광객 흐름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시장 조사 결과는 여행사들에 과학적인 자료의 제공과 즉각적인 참고 자료로써 활용되게 하였고, 해당 국가들의 관광객유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게 하였다. 또한, 이 자료는 세계관광기구의 범세계적인 구호 캠페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 **(4) 지역주민과 중소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지진해일 피해 후 복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당연히 질병, 주택, 전기, 수도 등 기초 인프라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피해국들 대부분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며 피해지역 대부분의 주민이 관광관련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대개 중소기업의 관광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진해일로 인해 생계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피해복구와 관련된 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전혀 없어 상황이 더욱 곤란해졌다.

이에 따라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이러한 사업체에 대한 피해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파악 및 이용절차에 대한 조사는 생활수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본적인 도움을 주었다는데서 의미가 있었다.

세계관광기구의 지원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지 지역주민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호텔 등 대형 관광업체 등은 다양한 복구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영세업체는 복구자금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원자금 여부에 대한 정보 자체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의 마련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 운용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자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만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관광 펜션 등의 관광 숙박 시설 및 리조트로 표현되는 휴양업, 관광식당 등의 국민관광시설의 건설, 개보수 자금을 용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광호텔 등의 대형 관광업체들은 담보제공능력이 있어 기금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기업들은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자조건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법제정 취지와 재난재해를 입었다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재난지역의 중소형 관광사업체에 대한 기금 용자 조건 중 담보 능력의 완화, 저금리의 이자율 실시, 상환기간의 대폭적인 연장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5) 관광종사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과 인적프로그램 개발 실시**

지진해일로 인해 피해지역에서는 많은 관광종사자가 희생되었으며 생계 기

반을 잃고 해당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관광기구가 해당 국가들과 공동으로 신규 관광종사원이나 기존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직업훈련이나 재교육을 한 것은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또한, 미래의 위험이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기관리에 관한 인식의 공유, 위기관리기술 공유 및 습득 등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신규 및 기존 관광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재교육의 실시는 종사원의 경제적 생활뿐만 아니라 관광객 수용태세를 구축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부분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돌아온 관광객을 다시 쫓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아래 해당 지역의 관광관련 대학의 주도 하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주민 대상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관광종사자의 이탈에 따른 신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기존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재해나 재난 후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미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다양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필요**

우리나라 관광분야에서의 재해재난대책은 앞의 이론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나 대책을 원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로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유원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과 “외국관광객 안전대책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두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대책이나 위기관리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관광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관광분야에서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대한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나 관계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

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도 관광의 분야별 내용이 총망라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매뉴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Tourism Risk Management for the Asia Pacific Region: An Authoritative Guide for Managing Crises and Disasters”는 참고할 만하며, 이러한 국제기구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관리에 관한 경험의 습득,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sup>12)</sup>

### (7) 국제관광기구의 협력에 의한 관광피해 극복사업 추진

세계관광기구는 푸켓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이 액션플랜에 근거하여 44개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였거나 집행 중이다. 이와 같이 지진과 해일 등 재해에 의한 관광피해가 있을 경우 세계관광기구의 인력, 예산 등과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광피해 극복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2번째의 지진해일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관광관련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은 관광객의 부재로 인해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해당 지역의 황폐화된 이미지와 피해지역 관광지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정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피해를 된 지역주민을 돕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피해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범세계적인 여행 캠페인을 하였다. “지진해일 피해, 관광이 복구를 돕는다(Tsunami-tourism helps recovery).”는 슬로건 아래 스티커,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언론, 여행업계 등에 배포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

12) 라종민(2007), 관광산업 위기 대응방안-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국가 지원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echnical Paper, 2007.2에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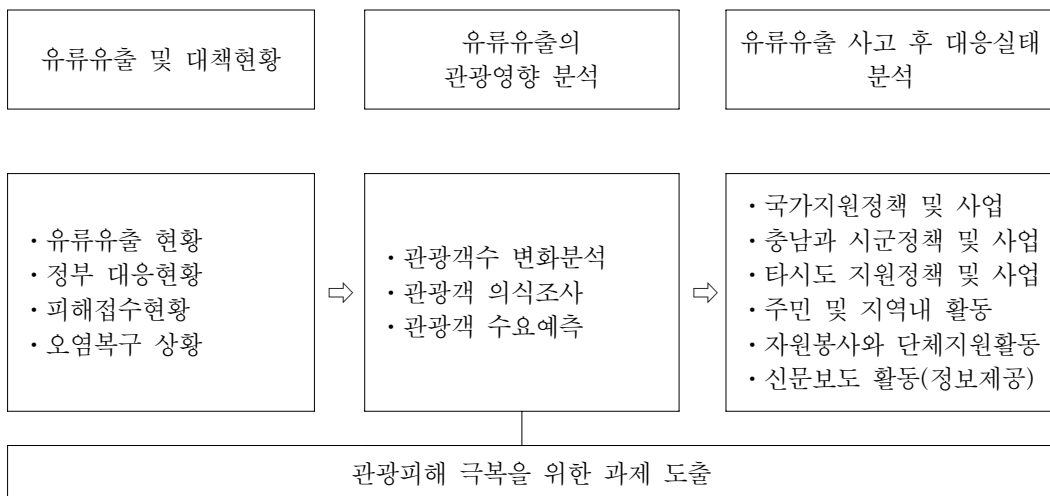
# 제3장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 분석과 과제

## 1. 실태분석의 틀과 방법

### 1) 분석의 틀

분석의 틀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하여 유류유출 사고의 개요와 대책현황, 유류유출에 의한 관광영향분석, 유류유출 사고 후 대응실태 분석을 통하여 관광피해 극복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 분석의 틀



## 2) 분석방법

본 실태분석은 2차 자료인 충청남도의 정책자료와 대전·충청권과 전국의 주요 신문사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충청남도의 정책자료로서 도정소식, 행정문서, 2008 유류유출 사고 대책기록, 그리고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신문 기사를 사용하였다. 이 중 신문기사는 유류유출 재난이 시작되는 2007년 12월 7일부터 현재 연구의 중인 2008년 8월 31일까지 수집하였다. 신문사는 중앙의 주요일간지와 충청권의 지역신문들을 선정하였고, '태안 유류유출 사고'와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신문기사와 사설을 검색하였다.

자료분석은 일반적으로 조사, 분류, 도표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량적 증거와 정성적 증거를 결합하여 기존의 연구와 정책자료, 신문보도 자료 등을 재정리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서해안 유류유출 및 관광피해 대책 추진 현황

### 1) 서해안 유류유출의 개요와 피해 현황

2007년 12월7일 오전 7시15분쯤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해상 크레인을 실은 부선(舢舨·동력 없이 떠 있는 배)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14만6800톤급)'와 충돌하면서 유조선 왼쪽 기름탱크에 3개 구멍이 뚫려 1만2547kℓ(10,900M/T)의 원유를 유출하였다. 기름 유출량은 1995년 여수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700톤 유출, 남북 30Km, 동서 15Km 범위) 때보다 2.5배가 많아 양식 어장 타격과 바다 오염 및 관광산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사고발생 4일후인 12월 11일부터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충남 태안 앞바다를 비롯한 태안군 등 서해연안 6개 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였다.

## (1) 유류유출 사고 피해상황

2007년 12월을 기준시점으로 유류유출의 주요 피해면적은 만대에서부터 근 소만, 모항까지 약 70km에 이르고 있다.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안면도 앞바다까지 50여km, 북쪽으로는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인근까지 20여km 가량 기름띠가 집중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다.

어장피해는 7개 읍·면 324개소 약 3,633ha로서, 양식품종은 굴, 바지락, 전복, 해삼, 어류 등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판매 감소로 인한 수입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태안지역 수산물의 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4개면 15개소(만리포, 천리포, 신두리, 백리포, 구름포, 학암포 등)가 사고로 인해 오염피해를 입었으며 신두리,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해수욕장의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유류유출 사고 직후에는 육안으로 봐도 해수욕장이 기름으로 덮여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안선에 기름띠가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해안이 기름범벅이었으나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해수욕장의 오염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 현장에서는 원유 악취가 심한데 오염이 대부분 제거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급한 복구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갈수록 모래사장은 예전의 상태로 복구되고 있는 상태이며 방파제, 암석 등의 청소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복구가 마무리 된 후 해양, 환경오염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와 복원 작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림 3-1] 유류유출 초기 오염 광경



자료 : 태안군(2008), 푸른태안21

## (2) 유류유출 사고 해수욕장 및 해안피해 현황

2008년 1월을 기준시점으로 사고발생 이후 1개월 내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현지 실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의 피해현황으로,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지역은 학ampo, 신두리, 의항, 천리포, 만리포, 연포 등이다. 신두리 해수욕장은 대규모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름띠가 보이고 있으며, 기름 냄새가 나는 상황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많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조류의 변화로 기름띠가 다시 해안가로 몰려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악취의 여운이 있는 상황이다.

태안 북단의 꾸지나무골해수욕장, 사목해수욕장 등은 육안으로는 기름오염을 거의 발견할 수 없으나 해안가에 살던 조그마한 게, 굴, 조개 등 바다생물들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가 큰 바위나 자갈 등에 기름이 곳곳에 묻어있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몽산포, 청포대, 백사장, 방포, 삼봉, 안면, 꽃지 해수욕장 등 몽산포 남단의 해수욕장과 안면도 지역은 기름오염이 적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는 곳은 주민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기름제거 작업이 해수욕장에서 해안의 바위, 절벽과 가의도, 정족도, 목개도 등 태안의 유·무인도로 옮겨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 해수욕장 피해 장면



자료 : 태안군(2008), 푸른태안21

현재는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봄, 여름 등 해수온도가 상승할 경우 해저면의 유류들이 부상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여름철에 타르볼에 의한 부가적인 커다란 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3-3] 바닥에 가라앉은 타르볼



### (3) 유류유출 사고 관광사업체 영업피해 현황

태안읍 및 피해지역 주변 여관, 음식점 등은 자원봉사자 등 피해복구 관련 자들로 인해 일부지역은 평소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관광객의 방문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다. 이는 태안이 오염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 방문이 급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몽산포 해수욕장 이하 태안반도의 남단은 기름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데도 TV방송 등 언론이 태안지역 해변 전체가 원유로 뒤덮인 것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태안방문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언론의 오염지역 보도에서 태안지역 전체를 언급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안전과 청결의 이미지를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펜션, 민박, 찻집 등의 영업피해가 심하고 피해가 연쇄적으로 소매점, 택시운송업, 주유소업 등으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펜션, 민박 등의 예약 취소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오션캐슬 콘도의 경우 평상시 객실점유율이 70%(주말 100%) 정도이나 기름유출 이후 약 40% 정도로

30% 이상 감소하였고 인근 펜션 등 민박은 전혀 손님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예년의 경우 연말 성수기로 많은 관광객이 몰렸으나 현재는 연말예약도 대부분 취소되고 거의 휴업 상태이다. 안면읍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역 펜션 등의 예약 취소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횃집 등은 양식장 오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몽산포 해변은 거의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없어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백사장 회타운은 태안군에서 가장 큰 어시장과 300여개의 횃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사고이후 수협이 문을 닫았고 어민들은 배를 이용하여 기름 제거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300여개의 횃집은 손님이 전혀 없어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이고 슈퍼마켓 등 가게들도 휴업중이다.

관광객의 급감으로 유람선은 휴업 상태이다. 안흥유람선은 안흥내항에서 인근 유·무인도로 정기적인 해양관광코스를 운행하는 업체이나 현재 이용객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자발적으로 수송하고 있다. 기름오염 전 11월 주중 약 200~300명, 주말 1,000~1,500명 정도의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 유람선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의 해상관광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거의 휴업상태이다.

관광부문의 피해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태안군의 관광 성수기가 여름철임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규모와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태안읍 및 피해지역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은 자원봉사자 등 피해복구 관련자들로 인해 평소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숙박시설 등에 대한 영업피해 조사는 적절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등 피해복구 관련자들이 철수한 이후, 예년과 비교하여 피해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정부의 대응 및 대책 추진현황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작업은 인력 4,220명, 함정 59척, 방제선 59척, 항공기 6대, 유회수기 50대, 오일펜스 11,854m, 유흡착제 14,079Kg, 유처리제

115,888ℓ(유관기관 포함)를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해양유출유의 방제를 위해 물포 및 유처리제를 사용하여 분산처리 하였고, 유회수기를 통한 방제와 더불어 해양표착지역에 방제조합, 방제업체 및 탱크로리 등 지원 장비를 배치하였다.

복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부처별로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 환경부 유류폐기물처리 현지대책반 및 야생동물구조활동본부가 설치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의한 지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 의거하여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등 충청남도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후 오염분포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전남 일부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지원 내용은 국고의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및 이자감면과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다.

태안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확인서에 의해 귀가 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철도이용요금 할인, 노력봉사 시 하루 5만원의 기부금으로 산정하여 연말 소득공제 혜택 제공하였다. 공무원 개인 자원봉사이시 재해구호 휴가(특별휴가 조치) 및 싱가포르 EARL 방재항공기 운항 허가('07.12.18~12.21)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충남 893억원, 전남 178억원 등 생계안정자금 지원, 보험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 방제인건비 및 방제업체 방지비 등이 112억원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태안지역 개최, 서해안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구내식당, 명절선물 등)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와 그 산하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주민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더불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금 등에 의한 손해사정액을 기준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대지급금)을 선지급 하고, 지급금 범위 내에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1항 내지 3항).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 등에 의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5항, 제6항).

특별법에 의거 정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 가운데 유조선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제1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나 특례보증 등의 지원,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제11조, 제12조)하였다.

IOPC 회의 참가 등 적극적 대응으로, 국토해양부는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보험사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에의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기금 사무총장을 초청(2008.1.14)하는 등 대외협상 전개하였다.

IOPC는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를 3,520억원~4,240억원(2월 26일 현재)로 추정하였으며,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IOPC 총회에서 보고하였다. 총회에는 국토해양부, 수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관계자 등도 총회에 참가하여 IOPC 회원국들과 피해보상액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등은 현재 해양환경생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해양오염도, 어업분야의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조사하고 있다.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연구용역(사업비 14억)과 해양연구원, 충남대, 과기부 등 관련 기관에서 모니터링, 환경영향조사 등 기술적인 조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

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MOU를 체결하고 태안지역 환경 및 관광산업의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서해유류유출사고대책포럼을 향후 5년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연구원과 외부공동 연구, 공동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3) 피해규모 추정 및 접수현황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2008년 2월에는 총 피해규모를 3,520억원~4,24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원~1,44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 6월에는 피해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5,385억원~5,735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방제작업 1,345억원, 어업 및 양식업 2,060억원, 관광업 1,980억~2,330억원 추정하였다. 이는 조업활동 정상화가 지연되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관광소비가 예상보다 더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사고 초반 예상보다 피해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1> IOPC 발표 피해추정액

(단위 : 억원)

구분	1차 피해추정액 (2008.2)	2차 피해추정액 (2008.6)
방제작업	1,100	1,345
어업 및 양식업	1,700	2,060
관광업	720~1,430	1,980~2,330
계	3,520~4,240	5,385~5,735

피해규모 추정 방법과 관광업의 범위에 대해 IOPC에서는 외부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나 IOPC에서 고용한 손해감정인(서베이어)에 의해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OPC 보상매뉴얼상의 보상 유형에 따른 것이므로 관광업(tourism)에는 순수 경제적 손실의 의미로서 음식점, 슈퍼마켓 등 여러 서비스업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IOPC 보상매뉴얼상의 보상 유형과 비교해 보면 환경 피해, 조연자 고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류유출 사고의 관광업 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씨프린스호(1995년) 538백만원, 나호토카호(1997년) 1,344,157천엔(약120억원), 에리카호(1999년) 76,450천유로(약 1,100억원), 프레스티지호(2002년) 25,957 천 유로 청구(약 4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sup>13)</sup>

관광피해 발생 신고 접수는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로 나누어서 비수산 분야는 태안군 읍·면사무소에서 양식에 의해 접수받았다.

태안군 비수산 분야 피해 접수·조사 현황으로, 비수산 분야는 숙박업 1,415건, 요식업 604건, 판매·대여업 873건, 기타 7,574건 등으로 숙박업에는 미등록 민박업체도 포함된 것이다. 기타에는 이발소, 미용실, 택시, 야채가게 등 다른 업종에서 제외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 것이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발생 신고서 접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액 산정부분에 대한 기재와 자료제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면도 지역에서는 일부 피해액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태안군에서는 법무법인과 손해감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종별 피해 확인 및 피해 입증자료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등에는 수수료와 성공보수의 조건으로 의뢰할 계획인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중(보통의 경우는 개인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 4) 오염복구 상황<sup>14)</sup>

유류유출 사고의 발생초기 시점에 조사결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서 천리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1주일여가 지난 시점에서 원유의 주성분이 되는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대기 중 농도는 매우 미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 IOPC, *Annual Report*, 2006

14) 사고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08년 4월 기준시점의 현황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기름띠가 전남해안까지 단시일내에 퍼진 것으로 볼 때 이번 원유는 바닥에 가라앉아서 오일볼을 만드는 기름이 아니라 흐르는 성질의 기름이므로 2008년 여름철에 태안 해안가에서 다시 솟아오르거나 오일볼이 발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고 발생 후 4개월 경과 시점의 현황으로, 현재 태안의 해수욕장 및 갯벌은 가시적인 오염이 모두 제거된 상태이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과 토양속에 떠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소원면 만리포 등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기름 흔적이 사라지고 바위와 자갈 등에 묻은 기름은 거의 제거되었다. 접근이 곤란한 암벽과 자갈층 등에 기름이 침투해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 1.5km 정도 되고, 방파제와 축대, 암반 속에 기름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모래층 밑에 미세 타르가 침투한 곳이 6.9km가량 남아있다. 기온 상승으로 암벽과 바위틈, 석축 사이에 남아 있는 타르성 유분이 일부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토양속의 기름은 기온, 수온, 해수 유입, 사람의 왕래 등에 따라 표면으로 용출될 수 있으나 유해성은 크지 않은 상태이다. 유출유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나 유분 증발에 따른 호흡기 흡입의 경우인데 유출유출에 의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 피해는 유출유의 양과 노출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유출사고 초기와 같이 대량 유출이 발생되어 사람들이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위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유류오염은 파도에 의한 자연정화에 의존하여 제거할 예정이며, 지속시간은 파도 강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양속의 오염은 밭갈이 방식으로 표면에 노출하여 제거할 예정이나, 오염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모든 지역을 정화하기는 어려우며, 지역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지 계획으로 태안군은 군청과 해경 직원, 주민 등 52명으로 구성된 방제지도팀을 4월말까지 주요 오염현장 115곳에 투입해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과 양수작업, 갯дю이 등 전문방제작업을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고 이어 5월과 6월 중 전문방제업체의 방제작업과 기름 제거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7월부터는 해수욕장을 정상 개장한다는 계획이었다.<sup>15)</sup>

### 3. 유류유출의 관광영향 변화 분석

#### 1) 서해안 관광객 수 변화 추이 분석

##### (1) 서해안 관광객 방문 추이

충남통계연보 및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수요예측에 사용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충남의 관광객수 총량을 분석한 결과, 2000년 56,796,029천명에서 2006년 85,700,667천명으로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3-2>참조)

동 기간(2000-2006) 중 서해안은 증가율 측면에서는 서천, 홍성 및 태안의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아 이번 유류유출로 인한 초기 관광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2> 2000-2007년 충남 관광객수 변화추이 및 증감율

(단위 : 명)

년도	충남(전체)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2000	56,796,029	15,534,452	1,582,859	3,255,247	1,115,944	9,791,603	2,791,959
2001	55,284,467	12,898,383	1,586,427	2,535,613	779,278	11,150,097	3,354,602
2002	63,221,151	14,929,255	1,877,131	2,197,492	1,356,081	14,681,979	3,273,121
2003	65,861,111	15,093,676	1,922,637	3,299,755	1,577,359	14,923,253	3,673,094
2004	67,520,223	14,871,278	1,963,347	3,714,956	1,837,334	15,997,326	3,397,575
2005	85,318,509	19,156,053	2,421,684	10,133,478	2,323,354	19,689,400	4,450,435
2006	85,700,667	19,650,926	3,271,110	7,498,768	2,356,625	20,627,493	4,613,716
2007	86,579,170	19,410,811	3,207,575	5,668,896	2,661,954	20,880,787	4,724,050
평균증감율('00-'07/%)	7.5	3.7	14.6	10.6	19.8	16.2	9.9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2000-2007년) 및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0-2007), 관광객 이동통계.

- 15) 김희수(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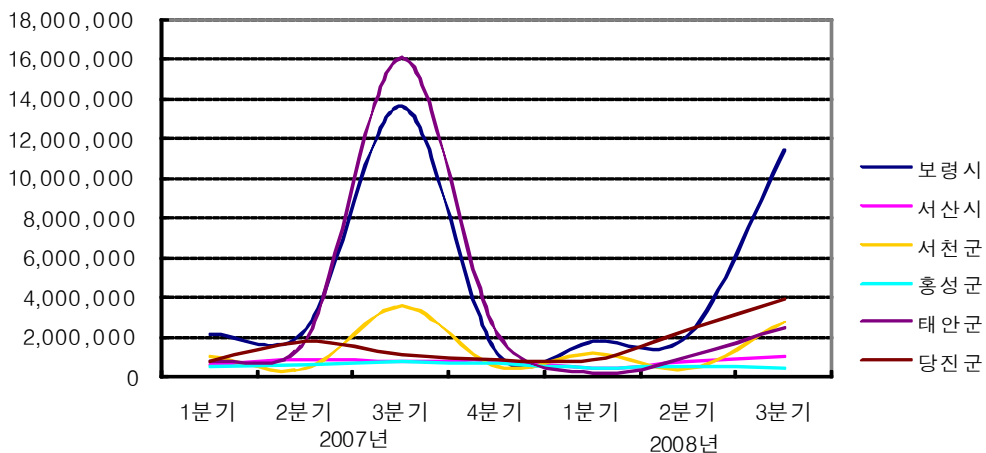
유류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의 방문추이를 분석한 결과,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의 관광객 방문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사고지역에서 원거리인 당진군과 서천군은 비교적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은 하절기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여름철이 있는 3분기까지도 관광객이 감소하였다.

<표 3-3> 충남의 서해안 시군의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성장률(%)	2분기	성장률(%)	3분기	성장률(%)
전 체	86,579,170	10,870,126	15,296,787	44,145,769	16,266,488	9,719,855	-10.6	15,460,723	1.1	32,465,273	-36.0
보령시	19,410,811	2,197,602	2,425,086	13,606,253	1,181,870	1,826,790	-16.9	2,175,753	-10.3	11,432,797	-16.0
서산시	3,207,575	649,864	907,189	803,186	847,336	451,934	-30.5	788,869	-13.0	1,067,603	32.9
서천군	5,668,896	1,103,258	458,260	3,574,956	532,422	1,217,920	10.4	467,438	2.0	2,797,702	-21.7
홍성군	2,661,954	565,243	655,264	768,466	672,981	503,641	-10.9	571,804	-12.7	457,746	-40.4
태안군	20,880,787	785,618	1,864,085	16,063,434	2,167,650	197,284	-74.9	1,036,815	-44.4	2,512,195	-84.4
당진군	4,724,050	860,838	1,817,804	1,142,037	903,371	896,450	4.1	2,475,934	36.2	3,969,100	247.5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7), 관광객 이동통계.

[그림 3-1] 충남의 서해안 분기별 시군 관광객수 변화추이 분석



또한, 서해안 6개 시군의 월별 관광객 증가율을 사고 이 후로 살펴본 결과, 보령시와 서산시, 태안군 등은 급격하게 감소했던 사고 직 후보다 관광객 감소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서천군과 홍성군을 제외하고는 2007년에 비해 관광객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충남의 서해안 시군의 1~9월 관광객 증가율 비교(2007/2008년)

시군	년도(년)	월별 관광객수(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보령시	2007	732,760	651,825	813,017	701,913	786,237	936,936	5,441,399	7,459,297	705,557
	2008	576,152	530,844	719,794	624,559	711,638	839,556	4,176,712	6,642,352	613,733
	증감율(%)	-21.4	-18.6	-11.5	-11.0	-9.5	-10.4	-23.2	-10.9	-13.0
서산시	2007	215,795	192,456	241,613	330,521	296,588	280,080	300,050	307,351	195,785
	2008	110,019	145,521	196,394	235,268	293,146	260,455	214,981	541,196	311,426
	증감율(%)	-49.0	-24.4	-18.7	-28.8	-1.2	-7.0	-28.3	76.1	59.1
서천군	2007	82,436	66,487	954,335	117,557	218,114	122,589	548,113	2,712,013	314,830
	2008	106,144	105,742	1,006,034	109,700	191,008	166,730	292,229	2,193,680	311,793
	증감율(%)	28.8	59.0	5.4	-6.7	-12.4	36.0	-46.7	-19.1	-1.0
홍성군	2007	142,438	193,678	229,127	229,778	246,193	179,293	339,260	221,096	208,110
	2008	133,586	166,791	203,264	192,116	196,562	183,126	121,640	131,302	204,804
	증감율(%)	-6.2	-13.9	-11.3	-16.4	-20.2	2.1	-64.1	-40.6	-1.6
태안군	2007	243,480	242,263	299,875	425,728	696,546	741,811	4,730,663	9,707,121	1,625,650
	2008	24,071	64,049	109,164	213,950	465,109	357,756	718,034	1,505,282	288,879
	증감율(%)	-90.1	-73.6	-63.6	-49.7	-33.2	-51.8	-84.2	-84.5	-82.2
당진군	2007	307,616	241,120	312,102	640,980	576,901	599,923	375,924	399,694	366,419
	2008	301,198	259,180	336,072	1,245,958	665,273	564,703	1,442,957	1,475,947	1,050,196
	증감율(%)	-2.1	7.5	7.7	94.4	15.3	-5.9	283.8	269.2	186.6
6개 시군 합	2007	1,724,525	1,587,829	2,850,069	2,446,477	2,820,579	2,860,632	11,735,409	20,806,572	3,416,351
	2008	1,251,170	1,272,127	2,570,722	2,621,551	2,522,736	2,372,326	6,966,553	12,489,759	2,780,831
	증감율(%)	-27.4	-19.9	-9.8	7.2	-10.6	-17.1	-40.6	-40.0	-18.6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보령시의 관광객 증감률은 동백관,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머드체험관 등 해안관광지는 분기별 성장률이 유류유출 사고 직후인 1분기에는 감소추세이나 성주산, 개화예술공원 등의 내륙형 관광지는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여름철에는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성주산자연휴양림과 개화예술공원, 머드체험관 등이 3분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보령시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2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3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성주사지	73,161	19,502	7,444	30,717	15,498	18,501	-5.1	18,305	145.9	30,559	-0.5
석탄박물관	210,947	26,125	61,402	84,754	38,666	17,748	-32.1	51,678	-15.8	74,280	-12.3
동백관	12,340	100	3,900	7,970	370	120	20.0	665	-83.0	7,750	-2.8
무창포 해수욕장	1,787,210	99,999	220,005	1,394,198	73,008	49,998	-50.0	110,011	-50.0	1,541,148	10.5
대천 해수욕장	16,742,511	1,973,921	2,014,312	11,829,278	925,000	1,680,261	-14.9	1,842,489	-8.5	9,592,437	-18.9
원산도해수 욕장	112,492	14,775	10,808	62,264	24,645	5,899	-60.0	35,980	232.9	56,582	-9.1
성주산 자연휴양림	51,135	9,391	7,454	28,540	5,750	1,444	-84.6	8,410	12.8	24,409	-14.5
오서산 자연휴양림	64,940	16,138	2,273	39,572	6,957	7,921	-50.9	2,176	-4.3	40,715	2.9
개화 예술공원	301,504	25,833	87,102	102,934	85,635	39,406	52.5	99,582	14.3	53,829	-47.7
머드체험관	54,571	11,818	10,386	26,026	6,341	5,492	-53.5	6,457	-37.8	11,088	-57.4
전체	19,410,811	2,197,602	2,425,086	13,606,253	1,181,870	1,826,790	-16.9	2,175,753	-10.3	11,432,797	-16.0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서산시 역시 해미읍성, 순교성지, 서산마애삼존불 등 내륙형 관광지는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간월도, 삼길포, 팔봉산 등 해안형 관광지는 유류유출사고 직후에는 급격히 관광객이 감소하였다가 점차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서산시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2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3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서산마애삼존 불/용현계곡	351,240	41,592	99,866	146,420	63,362	50,210	20.7	92,620	-7.3	210,244	43.6
해미읍성, 순교성지	519,298	51,424	139,632	142,788	185,454	58,345	13.5	212,519	52.2	144,840	1.4
팔봉산	249,937	47,884	84,007	47,348	70,698	25,595	-46.5	17,880	-78.7	243,823	415.0
간월도 관광지	1,006,441	283,823	273,016	174,154	275,448	136,836	-51.8	165,376	-39.4	202,466	16.3
삼길포	1,080,659	225,141	310,668	292,476	252,374	180,948	-19.6	300,474	-3.3	266,230	-9.0
전체	3,207,575	649,864	907,189	803,186	847,336	451,934	-30.5	788,869	-13.0	1,067,603	32.9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서천군도 희리산자연휴양림, 금강하구둑 관광지는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고, 마량리동백나무숲, 춘장대 해수욕장 등 해안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지의 관광객이 사고직 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춘장대해수욕장의 여름철 관광객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서천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2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3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마량리 동백나무숲	131,668	50,590	51,261	16,356	13,461	16,847	-66.7	49,560	-3.3	24,752	51.3
금강하구둑 관광지	794,860	178,095	140,485	243,493	232,787	230,946	29.7	140,653	0.1	267,678	9.9
춘장대 해수욕장	4,700,870	866,795	256,201	3,301,569	276,305	961,067	10.9	217,043	-15.3	2,455,475	-25.6
희리산 자연휴양림	4,252	220	383	1,660	1,989	1,319	499.5	20,747	5317.0	35,097	2014.3
한산도서관	37,246	7,558	9,930	11,878	7,880	7,741	2.4	39,435	297.1	14,700	23.8
전체	5,668,896	1,103,258	458,260	3,574,956	532,422	1,217,920	10.4	467,438	2.0	2,797,702	-21.7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홍성군에서도 홍성온천지구는 온천의 특성에 따라 계절적 영향을 받았으나 사고 직 후 1분기는 남당항, 용봉산 등은 감소률이 높았고, 김좌진장군생가, 한용운선생생가, 오서산 등은 점차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홍성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2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3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홍주의사총	58,232	12,008	15,414	7,090	23,720	8,265	-31.2	24,275	57.5	9,128	28.7
김좌진장군 생가	208,008	96,811	48,345	25,397	37,455	28,301	-70.8	63,718	31.8	32,160	26.6
한용운선생 생가	104,806	29,180	30,176	20,157	25,293	17,064	-41.5	25,193	-16.5	24,973	23.9
용봉산	230,482	49,225	73,483	11,806	95,968	44,646	-9.3	43,927	-40.2	17,840	51.3
오서산	251,347	33,068	46,917	34,664	136,698	31,551	-4.6	55,313	17.9	38,049	9.8
홍성온천지구	535,684	65,357	67,199	352,056	51,072	124,341	90.2	77,388	15.2	72,919	-79.3
남당항	1,273,395	279,594	373,730	317,296	302,775	249,473	-10.8	281,990	-24.5	262,677	-17.2
전체	2,661,954	565,243	655,264	768,466	672,981	503,641	-10.9	571,804	-12.7	457,746	-12.7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표 3-9> 태안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2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3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백화산	380,164	33,624	40,998	137,845	167,697	20,099	-40.2	75,151	83.3	7,740	-94.4
구름포	111,143	689	1,058	108,759	637	238	-65.5	141	-86.7	608	-99.4
영목항	179,551	10,801	12,183	133,478	23,089	9,406	-12.9	13,772	13.0	36,851	-72.4
연포	922,776	13,630	48,158	836,194	24,794	2,662	-80.5	16,279	-66.2	59,292	-92.9
바람아래	150,822	537	843	148,721	721	193	-64.1	797	-5.5	26,761	-82.0
장돌	104,425	266	712	102,725	722	160	-39.8	579	-18.7	18,087	-82.4
몽산포	2,315,405	11,813	162,030	2,088,020	53,542	5,042	-57.3	68,079	-58.0	269,465	-87.1
기지포	352,853	1,014	1,387	345,466	4,986	329	-67.6	881	-36.5	34,720	-89.9
밭개	203,691	1,082	1,374	193,900	7,335	282	-73.9	720	-47.6	29,393	-84.8
두여	202,303	817	1,108	194,932	5,446	218	-73.3	1,192	7.6	27,306	-86.0
꽃지	4,561,836	235,997	487,962	3,127,933	709,944	85,885	-63.6	320,869	-34.2	615,783	-80.3
방포	653,701	45,707	81,935	478,119	47,940	6,109	-86.6	25,307	-69.1	27,290	-94.3
백사장	675,711	51,379	72,691	514,004	37,637	6,344	-87.7	22,420	-69.2	33,652	-93.5
삼봉	738,131	10,902	12,729	690,871	23,629	1,480	-86.4	3,340	-73.8	45,816	-93.4
안면도자연 휴양림	480,518	48,491	184,070	150,236	97,721	19,916	-58.9	144,419	-21.5	117,024	-22.1
안면	313,645	987	1,400	305,792	5,466	208	-78.9	864	-38.3	24,109	-92.1
셋별	153,161	302	667	150,916	1,276	151	-50.0	580	-13.0	25,469	-83.1
방죽골	77,605	459	960	75,553	633	269	-41.4	190	-80.2	4,705	-93.8
의항	84,751	679	1,102	82,289	681	272	-59.9	267	-75.8	2,232	-97.3
만리포	2,879,121	81,825	451,973	2,269,259	76,064	2,656	-96.8	162,203	-64.1	466,232	-79.5
천리포	120,211	8,364	10,282	92,748	8,817	412	-95.1	1,052	-89.8	5,852	-93.7
파도리	265,205	1,651	2,073	258,584	2,897	397	-76.0	863	-58.4	22,141	-91.4
신두리	535,395	1,127	21,225	439,468	73,575	705	-37.4	4,780	-77.5	107,370	-75.6
학암포	563,950	7,153	7,130	541,531	8,136	980	-86.3	1,984	-72.2	46,127	-91.5
어은돌	101,610	1,914	2,391	95,906	1,399	179	-90.6	302	-87.4	7,457	-92.2
천리포 수목원	16,729	383	8,282	4,547	3,517	173	-54.8	2,590	-68.7	-	-
고남패총 박물관	47,844	3,617	11,945	18,982	13,300	5,256	45.3	6,389	-46.5	14,322	-24.5
달산포	81,646	533	697	79,518	898	223	-58.2	479	-31.3	8,713	-89.0
마검포	201,099	510	770	198,406	1,413	310	-39.2	619	-19.6	25,103	-87.3
백사장항	1,321,087	54,169	66,825	788,128	411,965	14,633	-73.0	47,726	-28.6	50,413	-93.6
안흥항	1,450,154	150,828	160,263	797,769	341,294	10,344	-93.1	103,080	-35.7	201,998	-74.7
장삼	132,313	297	688	130,712	616	153	-48.5	500	-27.3	20,567	-84.3
청포대	396,555	3,515	5,287	378,772	8,981	1,504	-57.2	8,251	56.1	127,962	-66.2
청산수목원	34,368	-	-	34,368	-	-	-	-	-	-	-
통계	71,308	556	887	68,983	882	96	-82.7	150	-83.1	1,635	-97.6
전체	20,880,787	785,618	1,864,085	16,063,434	2,167,650	197,284	-74.9	1,036,815	-44.4	2,512,195	-84.4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직접 피해지역인 태안군의 경우 해안과 내륙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3분기에는 태안군내의 사고지역과 관계 없이 84.4%가 2007년도 3분기에 비해 감소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유출 사고지역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당진군은 삼교호 관광지가 2분기에 증가하였고, 왜목마을 관광지, 난지도해수욕장, 함상공원 등은 2분기에 감소하다가 왜목마을 관광지와 난지도해수욕장은 3분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당진군 주요관광지 분기별 관광객수 변화분석

구분	2007년					2008년					
	계(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2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3분기	분기 대비 성장률 (%)
삼교호관광지	2,944,808	650,228	794,265	773,350	726,965	490,640	-24.5	1,270,172	59.9	715,132	-7.5
왜목마을관광지	1,246,358	158,753	793,005	166,910	127,690	186,574	17.5	195,014	-75.4	1,669,081	900
난지도해수욕장	328,399	9,619	158,372	154,745	5,663	9,662	0.4	17,375	-89.0	228,665	47.8
함상공원	204,485	42,238	72,162	47,032	43,053	28,381	-32.8	60,948	-15.5	42,593	-9.4
장고항 포구	-	-	-	-	-	45,519	-	290,060	-	318,033	-
성구미 포구	-	-	-	-	-	50,783	-	121,672	-	404,255	-
한진 포구	-	-	-	-	-	59,769	-	434,470	-	362,255	-
안섬포구	-	-	-	-	-	25,122	-	86,223	-	229,086	-
전 체	4,724,050	860,838	1,817,804	1,142,037	903,371	896,450	4.1	2,475,934	36.2	3,969,100	247.5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2008), 관광객 이동통계.

## (2) 주요 해수욕장 방문 추이

2008년 충남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개장 후 부터 7월 27일까지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반면, 나머지 시·도의 해수욕객은 최저 10%에서 최고 90% 가량 증가했다. 인원수로는 충남지역 39개 해수욕장 방문객은 426만 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0만 3,000명) 대비 41.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3-11> 참조).

특히 기름유출사고의 직접 피해가 컸던 태안군 관내 32개 해수욕장 방문객



은 53만 6,000여명으로 지난해 동기(350만 9,000여명) 대비 84%나 줄었다.

직접적인 기름유출 피해가 없었던 보령지역 5개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406만 여명으로 지난해 동기 506만여명에 비해 20% 가량 줄었는데, 머드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방문객도 384만여명으로 지난해 동기 467만여명에 비해 18%나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전남은 도내 62개 해수욕장 방문객이 동일 기간동안에 90만 9,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5000명)에 비해 무려 95%나 증가했으며, 해수욕장별로는 완도군 신지명사십리에 가장 많은 32만명(지난해 24만명)이 몰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26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71만 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51만여명)에 비해 41%나 늘었다.

특히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은 7월 4일 개장 이후 201만여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나 늘었으며, 환동해 출장소는 8월말까지 지난해 2,856만 6,000여명보다 많은 3,000만명 이상이 강원지역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도 7월 1일 개장 이후 27일까지 280만명이 찾아 지난해 동기(253만7000명)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2008년 전국 주요 해수욕장 관광객수 변화분석

지 역	해수욕장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충 남	도내 39개 해수욕장	40% 감소
	태안지역 해수욕장	84% 감소
부 산	해운대해수욕장	10% 증가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13% 증가
	경포해수욕장	42% 증가
전라남도	도내 62개 해수욕장	95% 증가
경상북도	도내 26개 해수욕장	41% 증가

기 준 : 개장 후부터 7월 28일까지 집계치

자 료 : 문화일보, 2008. 7. 31.

태안군유류유출사고의 영향이 가장 큰 태안지역 해수욕장의 2007년 이후 방문객수 추이는 <표 3-12>과 <표 3-13>와 같다.

<표 3-12> 2007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수 추이

(단위 : 명)

해수욕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155,098	148,844	179,763	279,352	519,837	580,330	4,612,531	9,318,010	874,750	614,668	415,222	79,152
구름포	222	231	236	302	336	420	42,212	65,716	831	300	275	62
연포	6,263	1,248	6,119	6,408	18,300	23,450	328,388	457,302	50,504	12,893	10,029	1,872
바람아래	111	139	287	209	244	390	47,624	100,503	594	345	314	62
장돌	120	74	72	200	252	260	41,790	60,307	628	356	314	52
몽산포	2,483	2,819	6,511	39,560	65,210	57,260	531,816	1,420,697	135,507	27,187	22,467	3,888
기지포	325	351	338	398	439	550	82,557	257,205	5,704	1,913	1,536	1,537
빛개	400	333	349	395	439	540	65,888	125,105	2,907	2,493	2,420	2,422
두여	227	231	359	302	336	470	68,634	122,592	3,706	2,970	2,066	410
꽃지	81,318	74,685	79,994	86,685	198,327	202,950	857,225	1,831,408	439,300	413,794	248,542	47,608
방포	13,360	15,076	17,271	37,614	17,321	27,000	133,310	320,505	24,304	27,384	17,753	2,803
백사장	14,087	17,542	19,750	14,823	21,668	36,200	154,895	325,603	33,506	19,644	15,329	2,664
삼봉	3,306	3,642	3,954	3,203	4,516	5,010	203,367	460,200	27,304	12,655	9,134	1,840
안면	325	314	348	422	448	530	73,581	227,109	5,102	2,952	2,212	302
셋별	156	74	72	201	216	250	47,856	102,302	758	603	574	99
방주골	235	111	113	201	349	410	40,678	34,301	574	332	248	53
의항	231	222	226	320	352	430	36,074	45,108	1,107	323	299	59
만리포	23,800	24,929	33,096	74,304	177,649	200,020	716,059	1,465,700	87,500	36,606	32,140	7,318
천리포	1,735	2,921	3,708	2,219	3,503	4,560	46,140	45,108	1,500	4,296	3,835	686
파도리	534	564	553	621	682	770	71,885	185,000	1,699	1,537	1,171	189
신두리	347	370	410	6,189	3,586	11,450	193,261	213,206	33,001	35,125	35,020	3,430
학암포	2,515	841	3,797	854	2,616	3,660	228,426	310,103	3,002	3,750	3,717	669
어은돌	672	638	604	728	813	850	46,301	48,105	1,500	672	613	114
달산포	289	111	133	176	211	310	36,013	42,501	1,004	439	385	74
마검포	267	120	123	206	254	310	57,397	139,207	1,802	668	641	104
장삼	160	65	72	197	241	250	43,404	86,706	602	298	259	59
청포대	1,445	1,017	1,053	2,349	1,248	1,690	116,167	252,101	10,504	4,702	3,556	723
통개	165	176	215	266	281	340	31,753	36,930	300	456	373	53
구례포							86,720	223,450				
갈음이							84,000	164,100				
사목							43,130	60,910				
꾸자나무골							55,980	88,920				

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7), 관광객 이동통계.

<표 3-13> 2008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수 추이

(단위 : 명)

해수욕장명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20일
전 체	1,399,270	11,901	44,398	61,158	103,559	326,529	213,600	638,125	1,244,967
구름포해수욕장	484	56	60	122	30	81	30	105	400
연포해수욕장	39,481	206	179	2,277	1,650	9,929	4,700	20,540	34,250
바람아래해수욕장	8,690	40	51	102	169	308	320	7700	17610
장돌해수욕장	5,989	49	40	71	160	189	230	5,250	10,110
몽산포해수욕장	112,346	1,288	1,089	2,665	5,319	29,980	32,780	39,225	207,230
기지포해수욕장	8,140	80	97	152	271	280	330	6930	14090
빛개해수욕장	8,192	71	80	131	130	270	320	7190	11660
두여해수욕장	7,920	51	75	92	290	452	450	6510	9420
꽃지해수욕장	598,904	7,277	34,857	43,751	55,418	169,751	95,700	192,150	318,200
방포해수욕장	41,746	439	2,570	3,100	3,359	17,628	4,320	10,330	14,100
백사장해수욕장	40,084	728	2,355	3,261	2,350	15,820	4,250	11,320	7,400
삼봉해수욕장	16,805	220	649	611	448	1,872	1,020	11,985	24,820
안면해수욕장	8,482	40	57	111	153	351	360	7410	13960
셋별해수욕장	6,656	31	29	91	90	270	220	5925	12030
방주골해수욕장	1,969	87	51	131	30	70	90	1510	2790
의항해수욕장	1,119	51	75	146	70	147	50	580	1525
만리포해수욕장	301,589	379	652	1,625	29,751	72,152	60,300	136,730	282,600
천리포해수욕장	3,119	65	170	177	350	372	330	1655	2610
파도리해수욕장	9,330	87	113	197	181	362	320	8070	12130
신두리해수욕장	45,855	121	135	449	1,356	1,424	2,000	40,370	57,300
학암포해수욕장	16,589	190	280	510	515	669	800	13625	27450
어은돌해수욕장	3,061	51	46	82	30	92	180	2580	4040
달산포해수욕장	2,542	31	40	152	38	211	230	1840	5280
마검포해수욕장	4,479	51	62	197	110	249	260	3550	16650
장삼해수욕장	6,523	31	51	71	110	180	210	5870	13110
청포대해수욕장	74,015	150	506	848	1,151	3,350	3,750	64,260	47,650
통개해수욕장	886	31	29	36	30	70	50	640	840
구례포해수욕장	6,985							6985	12480
갈음이해수욕장	2,910							2910	13190
사목해수욕장	5,130							5130	17890
꾸지나무골해수욕장	5,710							5710	20042
곰섬해수욕장	3,540							3540	12110

태안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수는 태안 전체 방문객수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7월과 8월 기간(여름 성수기)에 전체의 90%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왔는데, 유류유출사고의 영향으로 태안군 해수욕장의 경우, 향후 수년간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지만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태안을 살려야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사고 6개월 만에 복구를 마치고 만리포 등 30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고 피서객을 맞이한 바 있다.

태안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태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마라톤 대회와 바다수영대회, 갯벌 맨발달리기 대회, 자원봉사대축제, 서해안 살리기 행사, 춤추는 바다 태안 축제 등 수많은 이벤트를 개최하였지만,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태안을 찾은 방문객 숫자는 지난해의 10% 수준인 19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안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수가 예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원인으로 유류사고로 인한 서해안 기피현상과 불경기 등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즉,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말 유류유출사고의 영향으로 태안군지역 전체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름 성수기 기간 중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89% 감소해 유류유출사고의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백사장항에서 개최된 태안군 대하축제 기간 동안 백사장항에는 연인원 25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 예년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찾기에 골몰하던 군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면서 축제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과 상인들은 물론 인근의 꽃지, 삼봉 등 해수욕장과 자연휴양림 등 유명 관광지의 관광객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내년도 행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태안지역 방문객수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4> 2008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관광객수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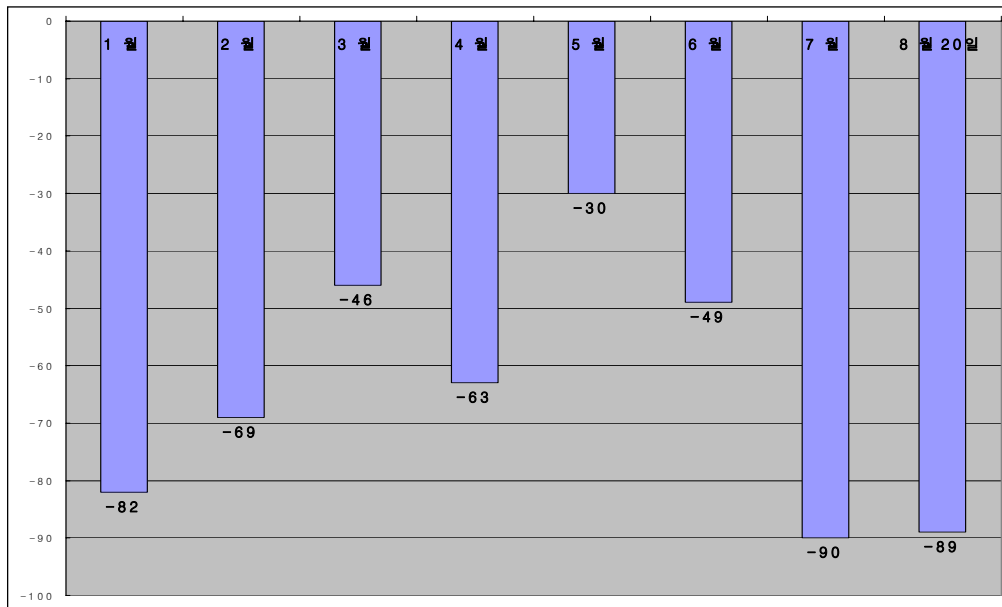
(단위 : %)

해수욕장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20일
구름포해수욕장	-75	-74	-48	-90	-76	-93	-100	-99
연포해수욕장	-97	-86	-63	-74	-46	-80	-94	-93
바람아래해수욕장	-64	-63	-64	-19	26	-18	-84	-82
장돌해수욕장	-59	-46	-1	-20	-25	-12	-87	-83
몽산포해수욕장	-48	-61	-59	-87	-54	-43	-93	-85
기지포해수욕장	-75	-72	-55	-32	-36	-40	-92	-95
빛개해수욕장	-82	-76	-62	-67	-38	-41	-89	-91
두여해수욕장	-78	-68	-74	-4	35	-4	-91	-92
꽃지해수욕장	-91	-53	-45	-36	-14	-53	-78	-83
방포해수욕장	-97	-83	-82	-91	2	-84	-92	-96
백사장해수욕장	-95	-87	-83	-84	-27	-88	-93	-98
삼봉해수욕장	-93	-82	-85	-86	-59	-80	-94	-95
안면해수욕장	-88	-82	-68	-64	-22	-32	-90	-94
샛별해수욕장	-80	-61	26	-55	25	-12	-88	-88
방주골해수욕장	-63	-54	16	-85	-80	-78	-96	-92
의항해수욕장	-78	-66	-35	-78	-58	-88	-98	-97
만리포해수욕장	-98	-97	-95	-60	-59	-70	-81	-81
천리포해수욕장	-96	-94	-95	-84	-89	-93	-96	-94
파도리해수욕장	-84	-80	-64	-71	-47	-58	-89	-93
신두리해수욕장	-65	-64	10	-78	-60	-83	-79	-73
학암포해수욕장	-92	-67	-87	-40	-74	-78	-94	-91
어은돌해수욕장	-92	-93	-86	-96	-89	-79	-94	-92
달산포해수욕장	-89	-64	14	-78	0	-26	-95	-88
마검포해수욕장	-81	-48	60	-47	-2	-16	-94	-88
장삼해수욕장	-81	-22	-1	-44	-25	-16	-86	-85
청포대해수욕장	-90	-50	-19	-51	168	122	-45	-81
통개해수욕장	-81	-84	-83	-89	-75	-85	-98	-98
구례포해수욕장							-92	-94
갈음이해수욕장							-97	-92
사목해수욕장							-88	-71
꾸지나무골해수욕장							-90	-77
평 균(%)	-82	-69	-46	-63	-30	-49	-90	-89

특히, 태안의 대표적인 전통체험마을인 뱃가리마을은 해마다 1만5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태안반도서 가장 활성화된 체험관광지로 이곳에도 유류 사고 여파가 나타나 올해 초 관광객수가 크게 줄었으나 최근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림 3-2] 태안군 해수욕장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

(단위 : %)



## 2) 관광객 설문조사 분석

### (1) 설문 조사개요

본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의 조사분석 결과로서, 설문조사는 국민 여행실태조사와 표본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전국의 만 15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샘플수를 1,000명으로 설정하여 2008년 3월 24일~4월 2일 기간 동안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2) 2007년 태안지역 여행 실태

2007년에 태안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7년 관광목적의 태안 방문 횟수를 물어본 결과, ‘1번’이 57.4%로 가장 많았고, ‘2-3번’이 32.4% , ‘4번 이상’이 10.5%이며 평균 방문 횟수는 1.8회로 나타났다.

<표 3-15> 방문 횟수

구분	1번	2번	3번	4번 이상
응답자 수	65	25	12	12
응답 비율(%)	57.0	21.9	10.5	10.5

주 : 사례수 114명

평균체류일수를 물어본 결과, ‘2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38.6%로 가장 높고, ‘1일’ 34.2%, ‘3일’ 17.5%, ‘4일’ 5.2%, ‘5일 이상’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평균 체류일 수

구분	1일(당일)	2일 (1박 2일)	3일 (2박 3일)	4일 (3박 4일)	5일 (4박 5일)이상
응답자 수	39	44	20	6	5
응답 비율(%)	34.2	38.6	17.5	5.2	4.3

주 : 사례수 114명

방문자의 주요 관광활동으로는 ‘자연경관 감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5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 체험’ 39.4%, ‘수영/해변활동’ 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주요 활동(복수응답)

구분	자연경관 감상	음식 체험	수영/ 해변활동	낚시	온천/ 휴식	역사유적지 방문	유홍, 오락
응답자 수	66	45	35	21	19	10	10
응답 비율(%)	57.8	39.4	30.7	18.4	16.6	8.7	8.7

주 : 사례수 114명

숙박 장소는 ‘펜션’이라는 응답 비율이 4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박’ 21.3%, ‘콘도미니엄’ 12.0%, ‘모텔/여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숙박 장소

구분	펜션	민박	콘도미니엄	모텔/여관	기타
응답자 수	35	16	9	8	7
응답 비율(%)	46.6	21.3	12.0	10.6	9.3

주 : 사례수 75명

1인당 여행경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31.5%로 가장 높고, ‘5만원 미만’ 26.3%,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3.6%, ‘20만원 이상’ 11.4%의 순으로 나타나며 1인당 여행 경비의 평균은 10.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1인당 여행 경비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 / 무응답
응답자 수	30	27	36	13	8
응답 비율(%)	26.3	23.6	31.5	11.4	7.0

주 : 사례수 114명

### (3) 2008년 태안지역 이미지 및 여행 계획

유류 유출 사고에 의한 태안 이미지 손상 정도에 관해서는 ‘이미지 손상을 주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87.3%로 ‘이미지 손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은 9.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 태안 이미지 손상 정도

구분	매우 많음	많음	별로	전혀	모름
응답자 수	574	299	76	21	30
응답비율(%)	57.4	29.9	7.6	2.1	3.0

주 : 전체 사례수는 1,000명, 2007년 태안방문자 114명, 2007년 태안 미방문자 886명



수질 회복 가정하의 관광 목적의 태안 지역 방문 의향은 ‘갈 것이다’(반드시 갈 것이다+아마도 갈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42.5%로 ‘가지 않을 것이다’(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아마도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 22.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태안 방문 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태안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층에서 방문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방문 의향

구분		절대 방문 안함	아마도 방문 안함	잘 모르겠음	아마도 방문	반드시 방문
전체	응답자 수	43	182	350	309	116
	응답비율(%)	4.3	18.2	35.0	30.9	11.6
2007년 태안 방문 경험자	응답자 수	4	19	17	41	33
	응답비율(%)	3.5	16.6	14.9	35.9	28.9
2007년 태안 방문 비경험자	응답자 수	38	164	333	268	83
	응답비율(%)	4.2	18.5	37.5	30.2	9.3

주 : 전체 사례수는 1,000명, 2007년 태안방문자 114명, 2007년 태안 미방문자 886명

방문할 의향이 있는 집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45.0%), 대전/충북/충남 지역 거주자(50.1%), 영업/판매/서비스직 종사자(53.1%), 2007년 태안 방문 경험자(64.6%) 등에서 방문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기름 유출 때문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14.2%이며,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85.7%로 나타나 기름유출이 방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기름 유출 때문	다른 이유 때문
응답자 수	82	493
응답 비율(%)	14.2	85.7

주 : 사례수 575명

#### (4) 태안지역 선호 관광활동

태안지역에 방문해서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자연경관 감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6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 체험’ 31.3%, ‘수영/해변활동’ 27.0%, ‘온천/휴식’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선호 관광활동(복수응답)

구분	자연경관 감상	음식 체험	수영/ 해변활동	온천/ 휴식	역사 유적지 방문	낚시	공연 관람	유흥/ 오락
응답자 수	279	133	115	103	70	71	30	17
응답비율(%)	65.6	31.3	27.0	24.2	16.4	16.7	7.0	4.0

주 : 사례수 425명

태안 지역에 방문해서 하고 싶은 해변활동은 ‘갯벌체험’이라는 응답 비율이 42.3%로 가장 높고, ‘바다경관 관람’ 38.8%, ‘해수욕’ 23.0%, ‘해양박물관/수족관 관람’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선호 해변활동(복수응답)

구분	갯벌 체험	바다 경관 관람	해수욕	해양박물관 /수족관 관람	유람선 승선	바다 낚시	섬 등 도서여행	해양축 제	해양 스포츠 활동	의향 없음
응답자 수	180	165	98	76	58	58	57	53	45	20
응답비율 (%)	42.3	38.8	23.0	17.9	13.6	13.6	13.4	12.4	10.5	4.7

주 : 사례수 425명

#### (5) 향후 개선사항

기름 제거와 생태계 복원을 제외한 태안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사항을 물어본 결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라는 응답 비율이 2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볼거리’ 18.8%, ‘음식거리’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6)</sup>

16) 김희수(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 한국문화관

<표 3-25> 우선 개선사항

구분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볼거리	음식거리	교통/주차시설	숙박시설	모름
응답자 수	250	188	122	100	79	261
응답비율(%)	25.0	18.8	12.2	10.0	7.9	26.1

주 : 사례수 1,000명

### 3) 관광산업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지역공동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어민의 가정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관광객 감소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숙박업소, 유어선, 판매업 등의 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소비감소로 전이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어선어업을 시작으로, 5~8월엔 마을어업, 8월말 형망어업, 8~9월엔 맨손어업 조업재개 등 9월 3일부로 전면 조업재개가 완료됐고 주민들은 다시금 생계의 터전으로 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4월 조업재개 이후의 태안군 수산물 생산량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조업재개 이후 어류 39%, 연체류인 오징어 및 조개류 56%가 각각 감소했지만, 지난해 9월 출어척수 8351척 대비 지난달 출어척수가 9,098척으로 9% 증가하는 등 회복의 기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꽃게생산량도 지난해 4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238톤을 생산하던 것이 올해는 같은 기 대비 114%나 늘어난 509톤을 생산했다. 넙치생산량도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20톤이 증가한 106톤의 생산량을 보였다.

---

광연구원, 정책보고서를 요약 정리함.

<표 3-26> 태안지역 어업현황

구 분	기 간	2007년	2008년	증감율
출어척수	9월	8351척	9098척	9% 상승
꽃게생산량	4. 18 ~ 9. 15	238톤	509톤	115% 상승
넙치생산량	4. 18 ~ 9. 15	86톤	106톤	23% 상승

자료 :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표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지역 전체의 월별 어업현황에서도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인해, 9월이 되면서 조업이 활성화되고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고 직후 지워지지 않던 기름때처럼 주민들의 가슴에도 어둠과 좌절이 맺혀 있었지만, 주민들의 높은 재기의욕 및 전국민의 성원과 맞물려 서해안은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한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관광의 영향중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적 갈등은 크게 대내 갈등과 대외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적 갈등의 주요 쟁점은 배·보상 및 긴급생계비 지급이다. 대외 갈등의 경우 주요 쟁점은 배·보상과 특별법 제정이었다.

태안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쟁점은 복합적이지만, 책임 당사자의 배·보상 이행과 사회안전망의 작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피해 보상의 불확실성과 지연이 사회갈등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면, 책임의 제도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사고 책임을 단기간에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비한 '2003년 보충기금'가입, 피해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절차 개선, 국제보상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의 선지급 및 초과피해 보상 규정의 일반법(유류오염보상보장법) 통합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재난으로 인한 주민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표 3-27> 충청남도 어업통계(2007. 1 ~ 2008. 9)

구 분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2007년	1월	10,216	18,699,361	3,645	9,753,562	6,571	8,945,799
	2월	9,319	18,771,659	3,290	11,605,153	6,029	7,166,506
	3월	6,430	23,727,431	4,076	20,729,551	2,354	2,997,880
	4월	5,918	23,177,580	4,380	20,508,566	1,538	2,669,014
	5월	6,310	26,272,912	5,123	23,738,091	1,187	2,534,821
	6월	5,342	22,600,588	4,411	20,488,637	931	2,111,951
	7월	9,805	22,584,868	9,069	20,280,921	736	2,303,947
	8월	8,269	26,008,049	7,626	23,951,311	643	2,056,738
	9월	8,047	39,043,590	7,136	34,694,347	911	4,349,243
	10월	10,982	43,786,778	9,470	39,184,639	1,512	4,602,139
	11월	15,013	33,400,366	7,037	25,171,915	7,976	8,228,451
	12월	9,987	17,551,613	2,930	8,733,342	7,057	8,818,271
	소계 (1-9월)	69,656	220,886,038	48,756	185,750,139	20,900	35,135,899
2008년	1월	6,015	12,072,778	2,337	6,961,604	3,678	5,111,174
	2월	5,224	8,078,384	1,555	5,291,336	3,669	2,787,048
	3월	4,873	15,268,998	2,437	13,162,744	2,436	2,106,254
	4월	4,449	22,430,893	3,826	19,585,791	623	2,845,102
	5월	6,530	28,793,160	6,068	27,066,372	462	1,726,788
	6월	6,579	21,017,565	6,066	19,131,966	513	1,885,599
	7월	5,859	11,857,112	5,514	10,578,086	345	1,279,026
	8월	6,886	17,648,348	6,135	15,567,039	751	2,081,309
	9월	9,714	35,743,012	8,909	31,654,930	805	4,088,082
	소계 (1-9월)	56,129	172,910,250	42,847	148,999,868	13,282	23,910,382
전년대비 증감율 (%)	1월	-41.1	-35.4	-35.9	-28.6	-44.0	-42.9
	2월	-43.9	-57.0	-52.7	-54.4	-39.1	-61.1
	3월	-24.2	-35.6	-40.2	-36.5	3.5	-29.7
	4월	-24.8	-3.2	-12.6	-4.5	-59.5	6.6
	5월	3.5	9.6	18.4	14.0	-61.1	-31.9
	6월	23.2	-7.0	37.5	-6.6	-44.9	-10.7
	7월	-40.2	-47.5	-39.2	-47.8	-53.1	-44.5
	8월	-16.7	-32.1	-19.6	-35.0	16.8	1.2
	9월	20.7	-8.5	24.8	-8.8	-11.6	-6.0
전년대비 증감율 (1-9월)		-19	-22	-12	-20	-36	-32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한편, 주민간 이해상충에 따른 갈등 유발 등은 최악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특정계층이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와 주민복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복지적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태안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환경과 생태보호가 높은 수준에 있고, 이번 사고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를 통해, 주민들의 생계와 자연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태안지역의 사장된 전통문화를 살리는 등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태안주민의 심리의학적 치유를 위해 의료복지가 필요하며 태안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심리 의학적으로 충격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이런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만성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관광객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급성 건강영향 조사 최종결과 요약’ 자료를 보면, 충남 태안군의 사고 발생 지역 어린이 1,2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10.3%가 우울증, 12.7%가 상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역 어린이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고 지역 어른들의 우울증 유병률(78%)보다는 낮다. 하지만 어른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 남성 직장인들의 평균치보다 10% 가량 높아진 데 그친 반면, 어린이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사고 영향이 없는 지역 어린이들의 평균치(1.6%)에 견줘 무려 5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또 상태 불안 유병률도 대조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평택 어린이들보다 5.3배 높다.

이에 환경부는 금년 9월 5일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지원하여 뜻밖의 유류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 주민들이 건강 걱정없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태안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태안지역 유류유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체계

적인 생태계 및 인체 영향 조사·연구, 주민건강관리사업, 유사사고 대비 예방 대책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9월부터 환경보건센터(태안군 보건의료원)를 거점으로 일반주민 대상 중장기 건강영향조사와 함께 건강검진사업도 실시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고지역 생태계 영향 및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건강영향 예방 및 저감방안 상담, 교육·홍보, DB 구축 등이다.

‘태안 환경보건센터’가 앞으로 태안지역의 유류유출사고 극복은 물론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름유출사고(‘97~2006년간 100톤 이상 대량유출사고 14건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환경보건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류유출사고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태안주민들이 강원도 횡성의 ‘숲 체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9월 22일부터 2박 3일간 태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사)한국EAP협회 주관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치유 프로그램은 유류사고 직후인 지난 1월말부터 3개월간 (사)한국EAP협회가 태안주민을 대상으로 HRV(심장 박동수 이용 신체 스트레스 측정)를 측정한 결과 주민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치료대책 차원에서 지난 6월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한 주민들은 1일차-웃음 찾기, 2일차-행복 찾기, 3일차-즐거 찾기 순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재충전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웃음찾기로 오감체험활동, 숲과의 만남, 행복출발검사, 갈등해결 워크숍, 행복찾기로는 숲에서 만나는 유년, 비움과 채움, 숲을 담은 T-Shirt, 웃음치료, 네트워크 빌딩, 즐겨찾기로는 행복다짐검사, 맺음의식&사진촬영 등이다.

#### 4) 관광객 수요예측

태안군 방문 관광객수는 사건 발생 시점인 2007년 12월에 전년대비 급감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전년 동기의 30%-40% 수준이다. 월별 관광수요 증감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살펴보면 2007년 12월은 123,380명으로 80.0%, 2008년 1월은 24,000명으로 90.1%, 2월은 62,000명으로 74.4%, 3월은 109,000명으로 6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안군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2008년 여름철에는 7월에 718,034명으로 -84.8% 감소, 8월에는 1,505,282명으로 -84.5% 감소, 9월에는 288,879명으로 -82.2%가 감소하여 연간 태안군 관광객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태안군 월별 방문객수

2006년		2007년			2008년		
시기	방문객	시기	방문객	전년대비 증감율(%)	시기	방문객	전년대비 증감율
1월	213,255	1월	243,480	14	1월	24,070	-90.1
2월	246,679	2월	242,263	-2	2월	64,050	-73.6
3월	291,999	3월	299,875	3	3월	109,164	-63.6
4월	364,620	4월	425,728	17	4월	213,950	-49.7
5월	610,417	5월	696,546	14	5월	465,109	-33.2
6월	669,659	6월	741,811	11	6월	357,756	-51.8
7월	4,849,431	7월	4,730,663	-2	7월	718,034	-84.8
8월	9,295,506	8월	9,707,121	4	8월	1,505,282	-84.5
9월	1,534,201	9월	1,625,650	6	9월	288,879	-82.2
10월	1,272,360	10월	1,348,700	6	10월	-	
11월	662,448	11월	695,570	5	11월	-	
12월	616,918	12월	123,380	-80.0	12월	-	
합계	20,627,493		20,880,787				

자료 : 태안군(2006, 2007, 2008), 태안군통계연보

안면도 등 오염피해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월별 감소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월~3월의 감소율 수치를 볼 때, 1월 90.1%, 2월 73.6%, 3월 63.6%로 점차적으로 호



전되면서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0.1%, 73.6%, 63.6%로 나타나는 것은 전월 수치에 비해 2월에는 81.7% 감소한 것이고 3월에는 전월 수치에 비해 86.4% 감소한 것으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등비수열(geometric progression)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안군 관광객 수요의 시나리오 설정으로, 향후 관광객의 방문수요는 수질오염의 정도, 오염복구의 속도, 오염 이미지의 감소, 해수욕장의 개장 여부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별 방문객 추정결과, 중립적 추정은 1월~3월의 감소율 수치를 볼 때, 1월 90.1%, 2월 74.4%, 3월 63.6%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도 유사한 비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전년대비 월별 감소율이 일정한 비율로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월별 관광객수 감소비율은 전월에 비해 80%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등비수열의 공비 0.8)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2007년 12월의 수치는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수치이므로 2008년 12월은 2006년 12월의 수치 616,918명에 추정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낙관적 추정은 2008년 7월부터는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2007년 월별 방문객수를 대입하였다. 2008년 4월~6월은 중립적 추정의 월별 관광객 감소율을 적용하였다.

비관적 추정은 점차적으로 전년 대비 관광객 감소율의 하락폭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단기간에 예년 수준으로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08년 7월 이후에는 전년대비 감소율을 30% 적용하였다. 2008년 4월~6월은 중립적 추정의 월별 관광객 감소율을 적용하였다.

관광객수 추정 결과, 중립적 추정의 경우 16,220,681명으로 전년대비 2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낙관적 추정의 경우 20,045,138명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하며 비관적 추정의 경우는 14,427,751명으로 전년대비 3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 분석의 결과수치 19,956,202명과 비교해보면 낙관적 추정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중립적 추정의 경우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3-29> 시나리오별 방문객수 추정

전년도 방문객	시기 (2008년)	중립적		낙관적		비관적	
		감소율(%)	방문객	감소율(%)	방문객	감소율(%)	방문객
243,480	1월	-90.1	24,070	-90.1	24,070	-90.1	24,070
242,263	2월	-73.6	64,050	-73.6	64,050	-73.6	64,050
299,875	3월	-63.6	109,164	-63.6	109,164	-63.6	109,164
425,728	4월	-50.8	209,458	-50.8	209,458	-50.8	209,458
696,546	5월	-40.7	413,052	-40.7	413,052	-40.7	413,052
741,811	6월	-32.5	500,722	-32.5	500,722	-32.5	500,722
4,730,663	7월	-26.0	3,500,691	0	4,730,663	-30	3,311,464
9,707,121	8월	-20.8	7,688,040	0	9,707,121	-30	6,794,985
1,625,650	9월	-16.6	1,355,792	0	1,625,650	-30	1,137,955
1,348,700	10월	-13.3	1,169,323	0	1,348,700	-30	944,090
695,570	11월	-10.6	621,840	0	695,570	-30	486,899
123,380	12월	-8.5	564,480	0	616,918	-30	431,843
20,880,787	합계		16,220,681		20,045,138		14,427,751

자료 : 김희수(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러나, 이상의 시나리오별 방문객 추정치와는 다르게 앞의 태안 관광객 방문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08년 3분기까지의 관광객 감소율을 8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수요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 분석

### 1) 실태분석의 방법과 내용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후 대응에 대한 실태분석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유류유출사고 이후에 2008년 8월 31일까지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국가차원에서의 관광지원 및 피해

극복 정책 추진내용, 충청남도과 서해연안 시군의 추진정책과 사업, 지역주민 등 지역차원의 관광 극복활동 내용, 자원봉사자 및 공공·민간 차원의 피해극복 지원활동 내용 등으로 하였다. 또한 앞의 분석내용을 사고 발생이후 기간 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지에 대한 대응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2) 국가지원 정책 및 사업의 변화

유류유출사고 후 국가에서 추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 보면,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정책의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위하여 법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 유류유출 오염지역의 방제작업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피해현황 조사와 훼손복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세 번째,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생계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산지원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 피해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의 복구와 회생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섯 번째, 오염피해지역의 방제작업을 위한 자원봉사자들과 기업, 기관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혜택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국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특성을 보면, 국가차원의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중앙의 부처별과 각각이 지원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역 관광산업의 대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과 사업은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도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앞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의 환경과 관광기구가 참여하는 지원 정책 및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국가지원 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국가지원 정책 및 사업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대전/2.8)</li> <li>· 태안·서산·보령·홍성·서천·당진군 등 재난사태 선포(충청투/2.10)</li> <li>· 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응급복구 지원, 금융세계 지원(이데/12.10, 국/12.10)</li> <li>· 행자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투입 결정(파이/12.11)</li> <li>· 충남도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데/12.11)</li> <li>· 해양수산부 피해배상관련 안내책자 300여부 배부(한국/12.12)</li> <li>· 태안 재난지역 최대 3,400억원 금융지원 실시 발표(이데/12.13)</li> <li>· 중국정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권고에 따라 방제물품 지원(세계/12.13)</li> <li>· 3,400억원 금융지원. 양식업자와 음식·숙박업자 등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기한 연장, 자원봉사자 1일 5만원 소득공제 혜택(서울/12.14)</li> <li>· 법무부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구성 상담·안내(파이/12.14)</li> <li>· 정부, 美해양경비대·해양대기청 등 전문가들과 환경영향조사 착수(브레/12.14)</li> <li>· 정부, 태안 피해보상 선지급 예정(파이/12.16)</li> <li>· 정부, 미국과 유럽 국제전문가 동원 생태복원 착수(파이/12.16)</li> <li>· 충남 태안 해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가칭) 제정예정(대/12.17)</li> <li>· 특별재난지역 6개 시군에서 복구활동 및 어민·지역양식업자·관광산업종사자 등을 돕기위한 기부활동과 자원봉사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중도/12.17)</li> <li>·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태안 일대 오염지역 생태계에 대한 긴급조사 착수 계획(파이/12.18)</li> <li>· 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촉진 권유 및 수산물 안전대응반 편성 운영(한국/12.18)</li> <li>· 해양수산부 기름 유출 피해조사지원단 보상 관련 현지 설명회 개최(국민/12.18)</li> <li>· 해양수산부 서해안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 통제, 과학적 관리 추진(중부/12.18)</li> <li>·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태안 유류오염사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 발표(서울/12.19)</li> <li>·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유 유출량 1만2,547kl 확인 발표(파이/12.19)</li> <li>·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오염지역 생태계의 훼손 복원 장기계획 수립' 방침, 유류오염사고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전문단 구성(대전/12.19.중도/12.19)</li> <li>· 행정자치부 충남지역 6개 시군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 12개 관계 부처 차관회의 예정(국민/12.23)</li> <li>· 2008년 서해 해수욕장 개장 가능, 펜션 등 숙박시설의 조기 영업 개시 및 정상화 지원 방침, 해수욕장 개장 긴급방제작업 예산 지원(파이/12.23)</li> <li>· 태안해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 발의: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음식, 숙박업자 등에 대해서 사고직전 3개월 평균소득 신고액 범위내에서 보상 가능토록 함(중도/12.27)</li> <li>· 태안 주민지원특별법 국회발의: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내용 명시(충청투/12.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경 방제대책본부 해안과 섬 지역 등 방제작업 강화(한국/12.27)</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기름피해지역 10년간 모니터링...환경복원계획 마련(경향/1.9)</li> <li>· 피해 주민들 완전보상 골자 '태안지원 특별법안'국제 제출(대전/1.22)</li> <li>· 해양수산부 기름유출에 대한 삼성중공업 사과외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 요구(경향/1.23.중도/1.24)</li> <li>· 국회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초청 감담회(중도/1.24)</li> <li>· 유류 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국회제출(대전/1.25)</li> <li>· 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 긴급 생계안전 지원금 468억원 추가 지원, 전남도 3개 시군 지원 포함(서울/1.29)</li> <li>·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제출(중도/1.30)</li> </ul>
200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야, 태안특별법 이달내 처리(대전/2.2)</li> <li>· 국회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중도/2.4)</li> <li>·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오염 현황을 실시간 확인 자료 공개, 온라인 공개토론의 장 제공(국제/2.12)</li> <li>· 국회 '태안특별법'제정에 대한 본격적 심사(대전/2.13)</li> <li>· 국회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대책 특별위원회'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회의실 회의(충청투/2.14)</li> <li>· 태안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소위원회 개최(중부/2.17)</li> <li>·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지원특별법'에 대한 공청회 등 본격적인 법안 심사 착수(충청투/2.19)</li> <li>· 태안 특별법 국회 법안 심사 통과 26일 본회의 상정 예상(중도/2.20.충청투/2.20.대전/2.20)</li> <li>· 해양수산부 유류 피해지역 선박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충북/2.20)</li> <li>·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태안지역 주민 대상 정신건강을 평가 실시(파이/2.21)</li> <li>· 환경부 생태계 복원대책 마련 연구중(중도/2.21)</li> <li>· 행자부 주관 주민등록업무 전국 시군공무원 연찬 워크숍 개최(중도/2.28)</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태안에서 봉사활동을 겸한 간부 대토론회 개최(파이/3.2)</li> <li>· 국토해양부 군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건의(충청투/3.3)</li> <li>· 국무총리 태안방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계대책 마련 약속(대전/3.7)</li> <li>· 정부 피해규모 4만가구, 3만5천ha, IOPC에 통보, 보상 선지급 요구(경남/3.11.국민/3.11)</li> <li>· 행정안전부 태안 만리포지구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중부/3.12.충청투/3.12)</li> <li>·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공포안 의결(중도/3.12)</li> <li>· 국토해양부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 14일 공포, 6월부터 보상 가능 전망(서울경제/3.14.국민/3.14)</li> <li>· 대통령 '태안특별법 시행령 5월말까지 제정' 약속(중도/3.21)</li> </ul>
2008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정비 추진(대전/4.1.충청투/4.1)</li> <li>· 태안 방제비 청구 늦추기로:피해보상금 많이 받도록(서울/4.2)</li> <li>· 태안 조업재개 국립수산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엇갈린 견해 주민 입장정리를 반발(중도/4.2)</li> <li>· 태안서 '유류오염특별법 시행령'공청회 개최 전망(중도/4.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태안군 2008년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운동 실시(중도/4.11.충청투/4.17)</li> <li>· 정부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태안군 및 보령시에서 공청회 개최(중도/4.15)</li> <li>· 보건복지가족부 태안 주민 건강검진 9천여명 대상 30억원 지원(중도/4.21.충청투/4.22)</li> <li>· 정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 100% 보상 방침(한겨레/4.21)</li> <li>· '태안특별법' 국제기금 보상 늦어지면 정부가 우선 지급 열개 마련(한겨레/4.21)</li> </ul>
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 앞장(중도/5.9)</li> <li>·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지역주민 고용 복원(방제)사업 실시(충청투/5.12)</li> <li>· 국토해양부 '효율적인 유류 오염 피해보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경인/5.26)</li> </ul>
20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제출(중도/6.2)</li> <li>· 정부와 충남도 특별공공근로비 200억 투입(중도/6.3)</li> <li>· 환경부 '태안 환경보건센터 설립 방안' 검토중(중도/6.4)</li> <li>· 환경부 태안군에 생태계 변화를 정밀 조사하고 연구할 전문기관 설치 운영(세계/6.5)</li> <li>· 원유유출사고 관련 정부 특별대책위원회 개최(한겨레/6.11)</li> <li>· 국토해양부장관배 국제바다수영대회 만리포해수욕장 개최(이비뉴스/6.17.중부/6.18)</li> <li>· 보건복지가족부 피해지역 주민 중 생계안정지원금 수혜자 건강보험료 감면(중도/6.18.대전/6.18)</li> <li>· 해양경찰청 섬지역 기름방제(대전/6.25)</li> </ul>
200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청 태안방제 체험수기 공모(경인/7.3)</li> <li>·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부처 낚시동호인 바다낚시대회 시상금을 태안 학생 장학금으로 기탁(중도/7.11)</li> <li>· 국토해양부장관배 국제바다수영대회 500여명 참여 성황(대전/7.14.충청투/7.14)</li> </ul>
2008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기름유출 방제 주민 인건비 44억원 지원(대전/8.7.서울/8.7.한겨레/8.7)</li> <li>· 농림수산식품부 태안 양식 어류 판매부진 피해 보상(대전/8.18)</li> </ul>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일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2) (○○/12.7)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12.7은 신문보도 날짜임

### 3) 충청남도 정책 및 사업의 변화

충남도의 지원 정책 및 사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간 역할에서 피해복구와 생계비 및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정책과 사업의 내용으로 는 첫 번째, 종합적 대응을 위한 충남도 전담 대책반 설치와 방제작업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중앙 예산확보와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비와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요구와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31> 충청남도 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충청남도 정책 및 사업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전담 대책 특별반 설치 건의 및 환경생태팀 급파 요청(중도/12.12)</li> <li>· 충청남도 대책지원반 ; 태안군, 해양수산부, 해경, 중앙부처와 협죽 업무분장 조성 및 확산 방지와 방제작업 등 추진, 자원봉사활동 대책마련, 전문방제업 체동원 기름제거 작업 전환, 주민고용 방제로 생계비 지원(중도/12.14)</li> <li>· 충남도 사고대책본부 출범(충청투/12.15)</li> <li>·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 전략 모색’ 감담 회 개최(대전/12.25.중도/12.25)</li> <li>· 충남도 서해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대책회의 개최(충청투/12.25)</li> <li>· 충남도 서해안 원유유출대책본부 긴급생계비 지급 관련 대책회의 개최:비어 업인 숙박, 음식점 등도 일부 지원 포함 의견 모음(중도/12.27)</li> <li>· 충남 도의회 태안 특별법 촉구건의안 채택(중도/12.29)</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원유유출대책본부 해상 방제작업 마무리, 생태계 조기 복원 추진:중앙 정부, 지자체, 연구소, NGO 등 전문가 조사·평가팀 발족(국민/1.1)</li> <li>· 충남도 ‘차량용자원봉사장증’교부, 6개 시군 관광지 주차료 면제 및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입장료 할인 혜택(대전/1.2.내일/1.2)</li> <li>· 충남도 사고대책본부 대표적 해수욕장 등은 주민공청회를 거쳐 복원사업 추 진 계획(대전/1.4)</li> <li>· 충남도 해양기름유출사고 피해수습 관련 일본 시마네현 벤치마킹(파이/1.4)</li> <li>· 충남도 태안유류피해대책반 일본순방:후쿠이현 피해복구 대책 의견교환(중도 /1.7)</li> <li>· 충남도 신정부 건의 특별법 건의 및 해양생태공원 조성, 대단위 관광이벤트 개최 건의(대전/1.7)</li> <li>· 충남도 유류유출대책본부 직·간접피해 주민 6개 시군 21개 읍면 3만~5만가 구 추산(한겨레/1.18)</li> <li>· 충남도지사 외신기자들과 유류유출 현장 방문 ‘태안기름유출 현장 해외에 널 리 알려달라’ 당부(충청투/1.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로 태안 명칭 빼고 국가 재앙 강조(충청투/1.21)</li> <li>· 충남도 태안 주민 생계비 지급 지연 해수부에 피해주민 돕는 차원에서 운영 되도록 건의(한겨레/1.23)</li> <li>· 충남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5년간 연안 환경모니터링 실시(대전/1.2)</li> </ul>
200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의회 ‘국가우선 배상’ 요구 4개항 성명 채택(대전/2.1.중도/2.1.충청투/2.1)</li> <li>· 태안지원특별법 등 ‘충남 4대 법안’의 국회처리 관심 집중(대전/2.11)</li> <li>· 태안서 충남발전연구원 외 공동 ‘우리바다 살리기’ 세미나 개최(중부/2.12.대전/2.13.충청투/2.13.내일/2.14)</li> <li>· 충남도 서해안 지역에 각종 회의나 교육, 세미나 개최 등 유치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대전/2.19)</li> <li>· 충남도 ‘자원봉사자 100만명 기념 행사’와 ‘서해안 살리기 4개 프로젝트’ 발표(충청투/2.22)</li> <li>· 충남도 피해 어민들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개 지방어항 156억 원 조기 투입(충청투/2.27)</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어민들 조업중지시 태안 바다 불법조업 道 특별 합동 단속(중도/3.11)</li> <li>· 충남도 ‘도시군 재난관리관계관 워크숍’이틀간 태안 개최</li> </ul>
2008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와 한국지역진흥재단 ‘전국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활용 유류피해 극복(중도/4.15)</li> <li>· 충남도 도정평가단 임원회의 태안군청에서 개최(중도/4.24)</li> </ul>
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태안 유류피해주민 지방세 15억1천4백만원 징수유예(충북/5.20)</li> <li>· 충남도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전 현안사업 43개 사업비 신청(중도/5.22)</li> <li>· 충남도 태안서 ‘서해안 관광심포지엄’ 개최(중도/5.23.충청투/5.30)</li> <li>· 충남도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홍보에 총력(충북/5.24)</li> </ul>
20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태안 ‘관광 심포지엄’ 개최(중도/6.2)</li> <li>· 충남도와 서해6개 시군 태안 자원봉사 감사축제 개최(중부/6.26.중도/6.26)</li> </ul>
2008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서해안 바다낚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추진:낚시명소 조성, 갯벌체험가 낙조 연계 패키지 관광개발(중도/8.1)</li> </ul>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일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2) (○○/12.7)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12.7은 신문보도 날짜임



세 번째, 오염지역 방제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네 번째, 유류유출에 의한 오염지역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워크숍, 세미나,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한 극복전략을 모색하였다.

다섯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충청남도의 정책 및 사업의 특성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과 제도, 재정확보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법과 제도적 개선,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오염지역의 방제와 생태계 복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참여, 다각적 워크숍 개최,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4) 서해안 6개 시군 정책 및 사업의 변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해안 6개 시군의 정책 및 사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태안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방제와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접한 5개 시군은 사고 직후 방제작업을 위한 대응에 집중되었다. 주요정책과 사업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방제작업을 위한 행정적 조직과 절차를 준비하고, 직접 방제작업을 실시하며 복구와 보상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중앙정부 차원의 복구와 보상, 예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생계비 및 보상비의 최대한 수혜와 조속한 지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세 번째, 지역의 수산과 비수산부문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판매촉진과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행사, 홍보, 지역주민 다짐대회 등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오염지역 방제작업과 지역주민의 회생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해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 전달과 감사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3-32> 서해안 6개 시군 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6개시군 정책 및 사업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진군 방제대책본부 구성과 재난상황실 운영, 유조선 해양오염사고와 관련된 안내문 배포(중부/12.10)</li> <li>· 서산시 긴급방제대책반 운영 및 방제작업, 홍성군 종합상황실 운영 및 유입방지작업, 당진군 방제요원 지원과 당진 방제대책 추진, 보령시 긴급대책회의와 피해예방활동 및 태안 방제작업반 지원, 서천군 비상근무체제 및 오염방지 대책마련(중도/12.11)</li> <li>· 태안 종합상황실 설치 행정력 집중, 서산 하루 1000여명 기름제거, 석박 500척 등 지원체계구축, 홍성 민·관·군 피해복구반 편성, 보령 오일펜스·흡착포 등 장비 갖춰, 서천 인력·물품 등 방제작업 총동원(대/12.13. 충청투/12.13)</li> <li>· 태안군 재난종합상황실 해안방제 전담 체계로 조직적 방제작업 진행(중도/12.14)</li> <li>· 서산시 유류유출사고 대책팀 설치 운영(충청투/12.19)</li> <li>· 태안군 특별법에 주민 요구사항 건의:객실 7실이하 소규모 주택에 대한 민박업 승계 허용 등(충청투/12.28)</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수 일본 후쿠이현, 알래스카 기름유출 사고 등에서 숙박업·요식업·관광업 등 모두 보상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입증과 특별법 제정 촉구(서울경제/1.1)</li> <li>· 태안군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유류피해 태안반도 살리기 염원 행사로 개최(충청투/1.2.중도1.2.대전/1.2)</li> <li>· 태안군 숙박업, 요식업, 관광업 등의 피해대책위원회 자율구성과 피해의 화학적 입증으로 특별법이 간접피해보상근거 명문화 건의(중도/1.4)</li> <li>· 서산시의회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안 제정 촉구건의안'채택(중도/1.4)</li> <li>· 당진군 서해안 해산물 안정성과 소비촉진 시식회와 가두 캠페인(중도/1.11)</li> <li>· 태안군 '태안 농특산물 팔아주세요' 서울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판매 예정(1.24)</li> </ul>
	200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55일간 태안방제작전 2월 1일 종료(내일/2.1)</li> <li>·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 운영체계 구축(대전/2.12)</li> <li>· 태안군 태안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국 워크숍, 세미나, 행사 유치(충청투/2.28)</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지역경제살리기 '다시찾는 태안만들기'프로젝트 추진(대전/3.3.충청투/3.3)</li> <li>· 당진군 아찬리 주민 무료급식봉사(중부/3.7)</li> <li>· 태안군수 '다시찾는 태안'정부 전폭 지원 요청(중도/3.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100일 맞이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중부/3.12.대전/3.12.중도/3.12)</li> <li>· 태안군 기름유출 피해액 산정 긴급회의 대책으로 근거부족 재추정 요구(중부/3.12)</li> <li>· 태안군 100일 맞이 전국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개최(충청투/3.14)</li> <li>· 태안군 100일 특별방제 기념행사와 전국 자원봉사자 감사인사(중부/3.14.중도/3.14)</li> <li>· 태안군 연중 다양한 행사 유치:중앙부처 및 각종 학회의 정기총회,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 유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충청투/3.25)</li> <li>· 태안군 피해지역 산모와 영유아 위해 태안 모자환경 보건센터 운영(충청투/3.26.대전/3.26)</li> <li>· 태안군 제3회 6쪽마늘 요리축제 개최(중도/3.28)</li> </ul>
	2008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기름유출 비수산분야 피해보상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중부/4.2.대전/4.3)</li> <li>· 태안군 생계자금 283억 9800만원 지급(충청투/4.16)</li> </ul>
	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지역경제 살리기 범군민 다짐 결의대회 개최(대전/5.2.중도/5.2)</li> <li>· 태안군 굴양식장 철거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중부/5.8.대전/5.8)</li> <li>· 태안군 비수산(관광)분야 비상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중도/5.8)</li> <li>· 태안군 전국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서한문 발송(충청투/5.13)</li> <li>· 태안군 '태안반도 주민 기 살리기 웃음 페스티벌' 공연(중부/5.15)</li> <li>· 태안군 안면도 전국마라톤대회 등 안면도 관광객 증가추세(대전/5.15)</li> <li>· 태안군 중앙 7개 부처 방문 태안지원 건의(중도/5.16.대전/5.16)</li> <li>· 태안군 32개 해수욕장서 이색축제, 별난체험으로 태안 여름에 초대(중도/5.19.대전/5.19.충청투/5.19)</li> <li>· 태안군 원유피해 굴양식장 철거 시작(한겨레/5.20.대전/5.21)</li> <li>· 태안군 군내 관광업소에 친절당부 서한문 발송(충청투/5.23)</li> </ul>
	20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올해 해수욕장 운영계획 발표(충청투/6.2)</li> <li>· 태안군 재래시장 살리기,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 시책 추진(중도/6.5)</li> <li>· 태안군과 (주)선양 에코힐링 샌드비스타 마라톤과 조개캐기, 노을음악회 등 다채행사 개최(중도/6.5)</li> <li>· 태안군 복지지원서비스 군민 혜택 확대 시행(대전/6.9)</li> <li>· 태안군 기름피해 복구 앞장 태안 명예군민 선발(대전/6.10.중도/6.10)</li> <li>· 태안군 맞춤형 생태환경 복원 사업 추진(중도/6.12)</li> <li>· 태안군 지역활성화 환경복원 등 8개 분야 선정 각 분야별 활성화 대책 추진(중도/6.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해수욕장 개장 자원봉사 은혜 친절로 보답(대전/6.25)</li> <li>· 태안군, 주민 생활안정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대전/6.27.중도/6.30)</li> </ul>
200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유류유출사고로 정신적 충격 군민을 위한 각종 상담과 치료를 병행 실시(대전/7.14.중도/7.14)</li> <li>· 태안군 '희망태안 성취를 위한 다짐대회' 개최 주민 친절 서비스 정신 발현 촉구(중도/7.14)</li> </ul>
2008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폭우 재해 경북 봉화군에 자원봉사활동과 구호물품 전달(충청투/8.1)</li> <li>· 태안군 전국 자원봉사자에 감사 편지 발송(중도/8.20)</li> </ul>

-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아이닷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 2) (○○/1.1)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1.1은 신문보도 날짜임

서해안 6개시군의 정책 및 사업 특성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일선에서 직접 오염지역의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생계비와 보상비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와 지급을 위한 실무 행정지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6개 시군이 각각 연접해 있으면서 통합적인 방제와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5) 타 시도 지원정책 및 사업의 변화

타 시도 지원정책 및 사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이후 단기간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지원정책과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제작업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급 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이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과거 태풍과 산불에 의한 사고 때 봉사에 대한 감사의 지원이 맨 먼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시도와 시군에서는 복구작업과 방제물품, 방제장비의 지원, 성금기탁 등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회의와 연찬회, 세미나 등을 태안에서 개최하였다.

<표 3-33> 타시도 지원정책 및 사업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타시도 지원 정책 및 사업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자원봉사단 등과 방제장비 및 물품 지원(강원/12.11)</li> <li>· 경남도 방제작업지원단, 자원봉사반, 환경단체 등 방제작업지원(경남도/12.11)</li> <li>· 경북도 민간단체 중심 복구인력 및 방제물품 지원(매일/12.11)</li> <li>· 충북도 복구작업과 방제물품 등 지원, 인천시 자원봉사자 방제작업, 경기도 방제 물품과 지원팀 파견, 서울시 자원봉사자와 10억원 지원(충북/12.11)</li> <li>· 울산시 방제작업 지원 및 현대중공업 등 자원봉사단 봉사활동(경상/12.12)</li> <li>· 자원봉사 전국각지에서 몰려(경북도, 강원도, 경남도, 부산시, 대전시, 여주시 등) 방제작업, 방제물품지원, 성금 등 전달(중도/12.12.서울/12.12.내일/12.12)</li> <li>· 충북도 도지사 및 민간봉사자 등 봉사단 복구활동 및 방제장비 지원(중부/12.12)</li> <li>· 강원도 여성계 자원봉사활동(강원/12.15)</li> <li>· 옥천군 자원봉사단체 방제작업(충청투/12.15)</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방제 한달째 3,000여명 방제인력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각종 회의 연찬회, 세미나 태안개최(한겨레/1.7)</li> <li>· 경기도 31개 지자체들 자원봉사자 5만2천333명 집계(경기/1.19)</li> </ul>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아이닷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미디어:미디어오늘, 국제:국제신문, 충북:충북일보

2) (○○/1.1)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2.1은 신문보도 날자임

## 6) 지역주민 및 지역내 활동의 변화

유류유출사고 후 지역주민 및 지역내 단체와 기관들의 활동의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고 오염지역의 방제작업과 생계를 위한 생계 및 보상 대책 마련, 가해회사에 대한 피해대책 촉구, 사고 이외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지원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첫 번째,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오염지역의 복구를

위해 직접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신고에 대한 자료 준비와 신고서 제출, 보상요구 활동 등을 하였다.

<표 3-34> 지역주민 및 지역내 활동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주민 및 지역내 활동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민들 피해 우려 발 동동, 사고 내용과약 분주(세계/12.8)</li> <li>· 양식어민과 관광지 상인들 복구작업에 동참(중도/12.10)</li> <li>· 서산주민 댄손어업인과 횃집, 펜션업계의 대책 마련 요구(중도/12.13)</li> <li>· 주민 ‘주민피해대책위원회’와 태안수협 ‘배상대책위원회’준비(서울/12.14)</li> <li>· 피해어민과 주민 ‘서산수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위원회’ 구성 및 정부에 피해보상금 선지급과 피해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등 요청(중도/12.18)</li> <li>· 서산 123이벤트와 서울웨딩홀 점심지원, (주)현대과워텍과 농협서산시지부 복구물품 지원, 석남도 대양합명회사, 부석면 이장단 쌀지원 등(충청투/12.19)</li> <li>· 한서대 교직원과 총학생회 봉사활동 참여, 성금 지원, 서농유통(주) 김치지원, 지곡농협 생필품 전달(중도/12.20)</li> <li>· 유류유출 피해대책위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어업피해 실사 의뢰(서울경제/12.23)</li> <li>· 21일부터 어민들 대상 피해내용 신고 접수(중도/12.24)</li> <li>· 전복, 해조류 등 종사 어민들 오염피해 보상대책위원회 발족과 피해보상조사 용역 설명회 개최, 18일 태안군내 일부 펜션과 민박업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피해보상지원단 설명회장에서 피해대책요구 갈등 발생(중도/12.25)</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피해대책 어민, 관광업 각각활동, 민간대책 기구 일원화 시급(중도/1.2)</li> <li>· 기름 유출 어민 1차 피해신고 467건:신고어업 369건, 면허어업 50건, 어선어업 등 48건 순(서울경제/1.6. 파이/1.6)</li> <li>· 피해대책위만 15개...보상창구 단일화 시급(대전/1.8)</li> <li>·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결기대회(대전/1.9.중도/1.9)</li> <li>· 태안 기름오염 주민배상 진통:협상준비대표단 구성 실패, 댄손어업 90%이상 소득증빙자료 없어, 부분 배상도 2년 걸려...특별법 서둘러야(서울/1.9)</li> <li>· 태안, 굴양식 60대 어민 ‘기름피해’비관 목숨 끊어(국민/1.11.중도/1.11)</li> <li>· 서산시 어민대표 긴급생계자금 지원방침 집단반발(대전/1.11)</li> <li>· 유류피해 생계자금 지역차등 지급 방침:서산어민 ‘시군균등분배 마땅’ 기준수</li> </ul>

		<p>정 축구, 관광, 음식, 숙박업 종사자 확대 지급 부당 주장(중도/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어민 자살 ‘유류피해대책위원회’로 치를 예정(한겨레/1.12.대전/1.12)</li> <li>· 기름피해 생계자금 보령도 반발:어민들 시군 배분 형평성 결여...원점 재검토(중도/1.14)</li> <li>· 기름유출 피해 자살 ‘군민장’으로 확대 치러(중도/1.14)</li> <li>· 태안 유류피해 투쟁위원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대회’개최키로(대전/1.18)</li> <li>· 태안 유류피해 관련 어민 두 번째 자살 사건 발생(대전/1.18)</li> <li>· 기름유출사고 피해 태안지역 비수산분야 군 대책위원회 결성:만리포관광협회장 군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대전/1.18.충청투/1.18)</li> <li>· 태안 피해어민 분신자살 기도:2명 음독자살 이어 50대도 생명위독(서울경제/1.18.국민/1.18.중도/1.18.서울/1.19.세계/1.19)</li> <li>· 생계비 배분비율과 지급시기 결정 지연(충청투/1.19)</li> <li>· 서해어민 ‘특별법 제정·생존권 보장’ 대규모 집회(대전/1.19)</li> <li>· 지자체, 주민 간 의견조율 시급, 보상절차 등 후유증 해결과제(중도/1.21)</li> <li>· 기름유출 47일째, 어민들에 이어 횃집·식당·펜션업자들, 택시기사들로 피해가 확산(국민/1.22)</li> <li>· 태안 주민 생계지원비 558억원 보상 지연:지급기준·대상 선정 안돼(내일/1.22)</li> <li>· 태안 피해 보상비 시군분배 지급, 시군에서 지급기준과 대상자 선별 및 지원금 규모 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늦어져(경향/1.22)</li> <li>· 주민 사고업체 50일만에 사과광고 비난, 서울역 집회와 태평로 거리행진 예정(한겨레/1.22.대전/1.22)</li> <li>· 태안주민들 서울역앞 정부의 즉각대처와 삼성의 무한책임보상 주장 집회(브레/1.23)</li> <li>· 수협대책위와 비상대책위 등 피해지역 주민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간담회 및 서울역 집회 삼성 무한책임 배상 촉구 계획(중도/1.23)</li> <li>· 태안 주민들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보상등 촉구 집회(세계/1.24)</li> <li>· 태안 지역주민 정부의 선보상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 삼성의 무한책임과 구체적인 보상계획 수립 촉구 서울역 집회시위(대전/1.24)</li> </ul>
	200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주민 대표 국회에서 국회의원 간담회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선보상 후정산 촉구(대전/2.1)</li> <li>· 태안주민 보상금에 불만 단지(斷指)(중도/2.1)</li> <li>· 태안 ‘황도 봉기풍어제’ 개최, 관광·탐방객 숙박료 인하(대전/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태안지역 각종 대책위원회 하나 통합 연합대책위원회 결성 무산(대전/2.13)</li> <li>· 태안군 수산 및 비수산분야 주민대책위 통합 2차 모임이 각 대책위별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아 또 무산(경향/2.14)</li> <li>· 태안특별법 제정 국회 첫 심의 무산, 태안 피해주민 배상대책위원회 청문회를 요구 반발(중도/2.15)</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이원면 관리 농촌체험관광 운영 관광객 유치(중도/3.10)</li> <li>· 서산 유류피해 투쟁위원회 구성(충청투/3.10)</li> <li>· 서산·태안 태안반도대책위, 삼성중공업 고소·고발</li> </ul>
2008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사고피해주민 24개 피해대책위 '유류피해주민전국투쟁연합' 결성 제언(한겨레/4.2)</li> <li>· 유류피해 전국투쟁연 보령서 임시모임 개최(중도/4.4)</li> <li>· 태안대책연합회 출범, 체계적 배상체계 계기마련(중도/4.8)</li> </ul>
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직능사회단체협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범군민대회 대회(중도/5.2..충청투/5.2)</li> <li>· (가칭)태안군수협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 창립총회와 피해대책 활동(중도/5.14)</li> <li>· 태안 유류피해 주민들 적극 피해보상과 각종 대안마련 요구 해상시위(대전/5.28)</li> <li>· 수협통합유류피해 대책위원장 주민결집 부재, 국가차원 매뉴얼 시급 제기(중도/5.29)</li> <li>· 태안 주민 삼성 무한책임 요구(중부/5.30.대전/5.30)</li> <li>· 태안 주민 '유류특검 실시' 촉구(충청투/5.30)</li> </ul>
20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유류대책위와 환경연합 회원 거제 삼성조선서 피해대책 촉구 집회(경남도/6.2)</li> </ul>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아이닷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미디어:미디어오늘, 국제:국제신문, 충북:충북일보, 경남:경남일보

2) (○○/1.1)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12.8은 신문보도 날짜임



세 번째, 주민들이 직접 보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상대책위원회나 협상준비대표단 등을 구성하여 보상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네 번째, 생계비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시위활동과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정부와 가해회사측에 지역주민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다섯 번째, 피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범군민대회와 이벤트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주민 및 지역내 활동의 특성을 보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제출서류의 사전 준비와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충분한 보상비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과 보상에 대한 지역의지를 위해 대표하기 위한 피해대책위원회 또는 협상대표단이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로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의 생계비 지원과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시군 간 또는 지역주민 간 갈등과 수산과 비수산 간의 갈등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이다.

## 7) 자원봉사 및 단체 등 지원활동의 변화

유류유출사고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원활동이 자원봉사 및 단체의 활동으로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IOPC에서도 감동을 하여 기존 50%이상의 1차 지급을 넘어 60%를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자원봉사자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는 보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원봉사로 참여한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계층이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체, 민·관·군, 일반인, 연예인, 학생, 주부 등 직업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참여하여 200만명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원봉사 및 단체 등의 지원활동 범위가 방제작업에서부터 방제물품과 장비, 음식제공 및 의료서비스, 성금, 장학금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원봉사는 방제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어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이 봉사로 끝나지 않고 봉사관광으로 이어져 또 다른 형태의 봉사와 관광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봉사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루어져 지역특산물 구매와 피해지역에서 워크숍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2차적인 지원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35> 자원봉사 및 단체 등 지원활동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자원봉사 및 단체 등 지원활동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중공업 방제작업(이데/12.9)</li> <li>· 공군전투비행단 모항 어은돌해수욕장 방제활동(중부/12.9)</li> <li>· 민간인 등 8,800여명 방제작업 재개(파이/12.10)</li> <li>· 방제 3일째 자율방법대 등 7,200명 방제작업. 충남도내 시군 흡착포 등 장제 물품 지원(중도/21.10.)</li> <li>· 환경운동연합 상황실 운영 및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방제활동(국민/12.11)</li> <li>· 충남개발공사 피해복구 봉사활동(중부/12.11)</li> <li>· 농협 충남지역본부 방제작업 및 6억원의 지원금·복구장비 기탁, 하나은행 방제 지원활동(충북/12.11)</li> <li>· 중앙 요식업협회 자원봉사자 무료급식(중도/12.12)</li> <li>· 지역주민, 자율방법대, 자원봉사자 등 1만1,000명 복구작업(중도/12.12)</li> <li>· 인천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 등 성금기탁(인천/12.12)</li> <li>· 쌍용자동차 방제 봉사활동(파이/12.13)</li> <li>· 조달청 기름제거용 헌옷 전달(대전/12.13)</li> <li>· 대구 학생·교사들 자원봉사 방제활동(매일/12.14)</li> <li>· 단국대학교 병원, 대전 서구청, 대한의사협회, 충남대 총학생회, 유성구 장애인 복지관, 충남도체육회,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보령출장소, 육군과 육군군수사 등 자원봉사활동, 하나은행 재해복구모금함 설치(충청투/12.18)</li> <li>· 방제 14일째 36,000여명 방제작업(중도/12.21)</li> <li>· 24일 현재 17일 동안 성금 104억8540만원, 방제활동 참여인원 67만3000여명, 자원봉사자 37만5000여명 집계(대전/12.26)</li> <li>· 건양대, 충남대, 금강대 등 방학 태안 자원봉사 방제작업(중도/12.28)</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교육청 학생 수학여행 및 교직원 연구 등 태안에서, 속리산고속 자원봉사 버스 무료 운행(한겨레/1.7)</li> <li>· 태안 사고발생 32일만에 자원봉사자 100만명 넘어, 성금 273억2000여만원 접수(국민/1.8.중도/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원대 'Buy-태안'선언:수산물 팔아주기 등, 연중 방제봉사활동, 피해지역 연수 등 총력(중도/1.11)</li> <li>· 대전고법 자원봉사단 기름제거 및 폐기물 반출 작업(중도/1.15)</li> <li>·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무국장 자원봉사자들 헌신 노력 감명...한도내 최대보상(대전/1.16)</li> <li>· 기름피해 어업인가 비어업인들 기자회견과 집회:대전관광협회, 보령유류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배상 요구(대전/1.16)</li> <li>· 농협중앙회 저소득가정에 1500만원 상당 떡국떡 전달, 환경운동연합 후원 유류와 쌀 440가구에 전달(중도/1.23)</li> <li>· 농협 충남지역본부 등 충남농협 태안에서 각종 행사 개최 및 중도일보 '서해안을 살립니다' 캠페인 실천 앞장으로 지역민들 호응(중도/1.28)</li> </ul>
200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1일 태안살리기 손길 자원봉사자 100만 돌파 기념행사 개최(세계/2.22)</li> <li>· 가수 김장훈 보령시 호도를 찾아 봉사활동(대전/2.23)</li> <li>· 한국관광공사 '서해안 찾아가기 여행'으로 태안 관광활성화 기획:'구석구석 찾아가기-서해안 살리기' 북구 캠페인 계속 추진(중부/2.26.대전/2.26)</li> <li>· 수협중앙회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어업인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토론회 개최(파이/2.27)</li> <li>· 농협중앙회 자매결연, 워크숍, 연찬회 등 태안에서 개최(중도/2.28)</li> <li>· 신혼여행을 유류피해지역 자원봉사로 선택(대전/2.28)</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진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자원봉사와 생수지원(중도/3.3)</li> <li>· 계룡건설 태안 봉사활동(중부/3.3)</li> <li>· 태안돕기 다양한 봉사, 방제작업, 자원봉사무료급식, 건강검진, 연예인 태안살리기운동, 방제장비와 물품 기증, 태안여행과 각종 워크숍 등 다양한 봉사활동(중부/3.3)</li> <li>· 재독충청향우회 성금, 중국 친진 향우회 성금(중도/3.5)</li> <li>·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보령 고대도 방제활동(중도/3.10)</li> <li>· LG전자 한국지역본부, 태안주민 4억원 성금 전달(파이/3.12)</li> <li>· 태안 피해민 각급 기관·단체 지원:세무서, 한국전력, KT 등 통신업체, 농협, 수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대전/3.18)</li> <li>· 전교조 충남지부 피해학생 400명 장학금 전달 '2억 희망'(중도/3.19)</li> <li>· 경기도 수원시가 한국JC와 함께 자원봉사 100일 행사 : 수원시 연인원 1만명 이상, 방제물품, 성금, 무료급식 지원, 서울시 강남구 '마켓투어 만원의 행복' 주제로 자원봉사활동 진행(중부/3.24.대전/3.24)</li> <li>· 태안살리기 '윈더걸스' 태안 홍보대사 위촉(중도/3.25)</li> <li>· 기름 녹고, 봉사자 줄고, 태안 '이중고':자원봉사자 감소(중도/3.26)</li> <li>· 태안 자원봉사 남미 파나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자원봉사대회에서 봉사활동 소개(국민/3.20)</li> </ul>
2008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협중앙회 116일간 피해주민들 지원(대전/4.1)</li> <li>· 국제로타리 3640지구 태안 소원면 의항2리 개목마을과 자매결연(중도/4.4)</li> <li>· SK그룹 자원봉사단 유류제거 작업과 지역특산물 구입, 강동병원 태안주민 무료 의료지원과 봉사활동(이데/4.4.파이/4.4)</li> <li>· 해군, 해병대 호도 등 도서 통합방제(중도/4.15)</li> <li>·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소방방재청 주최 '서해안 살리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와 과제' 주최 특별 포럼 개최(중도/4.16.충청투/4.16)</li> <li>· 해군, 태안 인근 도서 유류 방제활동 재개(중도/4.18)</li> <li>· 한국해양연구원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어촌사랑 자매결연 체결(충청투/4.18)</li> <li>· 계룡건설-미 해연연 전문가, 태안 갯벌복원 현장조사(대전/4.22)</li> <li>· 농협중앙회 태안농협 자발적 봉사와 자발적 판매, 봉사 지원(중도/4.25)</li> <li>· 미 유학생 이진 태안돕기 자선콘서트(중도/4.25.충청투/4.25)</li> <li>· 재해구호협회, 충남산업인력공단, 청양대 등 사회각계각층 봉사활동(중도/4.28)</li> </ul>
	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건설 '모래사장 복구' 공개 검증(중도/5.12)</li> <li>· 포스코 직원 89%가 태안을 찾아 자원봉사활동 실시(파이/5.13)</li> <li>· 충남도 행정동우회 150여명 달산포 해수욕장 정화활동(중도/5.22)</li> <li>· 태안군·SK, 지역경기 활성화 협약식 태안사랑 약속(중부/5.23)</li> <li>· 수협중앙회 태안군내 버스타어 실시(중부/5.26)</li> <li>· 계룡건설 만리포와 천리포해수욕장 복원, 경제살리기 운동 동참(충청투/5.27)</li> <li>· 한국교회봉사단 만리포해수욕장 '다시 서는 서해안만들기-위로와 소망의 날' 행사 개최(중부/5.29.대전/5.29)</li> <li>· 해군, 태안원유 유출 방제작업 완료(파이/5.30)</li> </ul>
	20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대학교 소원면 방제작업 실시(경향/6.4)</li> <li>· (주)쿨런과 스포트월드 주최 태안살리기 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잇따라 개최(중부/6.11.중도/6.11)</li> <li>· 예총 충남도연합회 서해안 살리기 전국 초중고생 백일장, 사생대회 개최(충북/6.14.중도/6.17)</li> <li>· 경기도 중소기업체, 태안 학생들에 장학금(대전/6.26)</li> </ul>
	200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진 충남사업본부와 충남농협이 동참 태안지역에 여름휴가 보내기, 성금 및 방제용품 지원, 농산물 팔아주기 등 실시(중부/7.10)</li> </ul>
	2008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 태안 해안서 '서머 페스티벌' 후원(내일/8.11)</li> <li>· 한양대학교와 태안 장기중학교 '2008 여름방학 창의체험 캠프' 개최(이비뉴스/8.13)</li> <li>· 충남대·을지대병원 등 5곳 연말까지 태안서 의료봉사(대전/8.15)</li> <li>· 아모레퍼시픽, 태안 천리포 마을과 1사1촌결연, 봉사활동 전개, 생필품 제공, 하계휴양지 마련(중부/8.27)</li> </ul>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아이닷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미디어:미디어오늘, 국제:국제신문, 충북:충북일보, 경남:경남일보

2) (○○/1.1)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1.1은 신문보도 날짜임

## 8) 신문보도 정보제공 활동의 변화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에 있어서 정부와 충남도, 서해안 6개 시군, 타시도 및 시군, 자원봉사자와 단체, 지역주민과 기관 및 단체 등이 피해복구와 대응정책과 사업을 준비하도록 지원을 한 것이 신문보도 등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복구활동과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지원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피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지원과 정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신문보도 정보제공에 의한 주요 활용내용으로는 첫 번째, 유류유출 사고 이후 그때 그때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보도를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과제를 찾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극복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내외를 비롯한 전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지원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피해지역 방제작업, 생태계 복원, 생계비 및 보상 등 지역 대책위원회 활동, 가해회사 및 보상기관의 정보 등 정부 및 민간, 보상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간접적인 정보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네 번째, 국내외의 유류유출 피해사례와 극복, 보상 등에 대한 사례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보상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피해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류유출 이 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해안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통하여 수산물 판매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표 3-36> 신문보도 정보제공 활동의 기간별 보도내용

분석내용	기간	보도내용
신문보도 정보제공	200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일 태안앞바다 원유유출사고 보도(국민/12.7)</li> <li>· 태안군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대산읍 등 피해예상(세계/12.8)</li> <li>· 태안반도, 태안항, 인근 해수욕장 집중 피해 발생 우려(대전/12.8)</li> <li>·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의 관광객 유치에 타격, 태안 반도, 태안항, 만리포, 천리포 해수욕장에 집중 피해(충청투/12.8.세12.8)</li> <li>· 인근어민들 유출 원유로 악취로 구토증세(세계/12.8)</li> <li>· 기름유출 방제비용과 어업·관광피해 배상액 및 주민들 갈등문제(충청투/12.9)</li> <li>·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기(충청투/12.10.서/12.10)</li> <li>· 5개면, 연안, 해수욕장 6곳, 어장 등 피해상황(파이/12.10)</li> <li>· 전주, 보험회사, IOPC, 검증회사 피해보상절차 돌입 및 세제, 금융지원 등 방 안 준비 요청(파이/12.10)</li> <li>· 천수만, 가로림만 등 오염확산 문제(한겨레/12.10)</li> <li>· 경기 및 전북 오염확산 예방책 마련(국민/12.10)</li> <li>· 양식어장, 자연 어종, 갯벌, 백사장등 해양생태계 집중 피해와 장기화 및 유조 선 보험사·IOPC 보상책임(세계/12.10)</li> <li>· 피해지역 인근 학교 악취로 정상수업 어려움과 자원봉사시설 활동 검토, 유조 선 피해보강 어민, 해수욕장 등 태안군 상인들도 포함(중도/2.10)</li> <li>· 씨프린스호 방제비용과 어업, 관광피해로 502억 2700만원 배상(대전/12.10)</li> <li>· 11일 현재 어장 385개소, 해수욕장 6개소 등 피해발생(이데/12.11)</li> <li>· 대규모 방제작업이 소요되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방제시스템가 국가 지원체계의 미흡, 어민과 연안 및 해수욕장, 어항 상인 피해지원 지적(대전/12.11)</li> <li>· 피해보상 준비 및 증명자료 준비 등 어민과 해수욕장 상인 등 손해 배상 청구 준비(중도/12.11)</li> <li>· 생태보호지역 종합조사 시급(대전/12.12)</li> <li>· 충남도 어민보상·생태복원 전남도 여수 벤치마킹(대전/12.12)</li> <li>· 더딘복구, 정부 재난실태조사 특별전담팀 구성 시급(중도/12.12)</li> <li>· 오염폐기물 및 양식장 제거와 피해보상 문제 갈등(국민/12.12)</li> <li>· 여수 씨프린스호 어업피해 198억, 관광피해 5억 등 203억7400만원 배상 인정 (한국/12.12)</li> <li>· 인천 옹진군과 경기도 해안 확역, 관광피해 5억 등 203억7400만원 배상</li> <li>· 피해주민, 현장 증거 확보, 피해보상 범위는 방제비와 기름제거, 환경평가, 어 업피해, 관광피해 등 전망(중도/12.13)</li> <li>· 향토사단인 32사잔 협조로 '채증작업반'운영(충청투/12.14)</li> <li>· 관광·숙박·식당업 등의 영업손실도 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입증(서울/12.14)</li> <li>· 피해어민과 정부, 해당 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피해대책위원회'구성</li> </ul>

		<p>시급(대전/12.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환경복원 방제시스템 구축 절실(중도/12.15)</li> <li>·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IOPC)기금이 피해지역 조사활동 시작, 간접피해를 입은 숙박업소와 식당 등 입증자료 확보(경향/12.16)</li> <li>· 서해안 어업피해 방지 및 서해수산물 안전인식 제고 정책추진(파이/12.18)</li> <li>· 태안 기름오염 보령 및 전북 고군산도 유입 대책마련(국민/12.18)</li> <li>· 피해보상을 위한 자료준비 및 정부차원 보상 법률지원단 구성 필요(중도/12.18)</li> <li>· 태안 등 피해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 기피와 관광지에 대한 여행 취소 등으로 파탄 위기, 피해지역 바닷가로 여행이 자원봉사 만큼 돕는 길(서울경제/12.19)</li> <li>· 섬지역 방제, 충남과 전북 259개 섬중 59개 섬 피해발생 방제작업 실시(국민/12.23)</li> <li>· 태안, 서산지역 11개 읍면 473개 어장과 태안 15개 해수욕장 피해 잠정 집계(충청투/12.25)</li> <li>· 태안 사태 배상한도 국립공원의가치, 어업소득, 관광피해의 규모와 지속성, 방제비용과 환경복구 비용 등 보상 제시(한겨레/12.27)</li> <li>· 민간조직체 구성 붓물 피해 배상 및 대책 위해 일원화 필요: 민간위원회 어촌계, 수협, 만리포해수욕장, 신두리, 펜션상가, 요식업 등 다양하여 단일화 및 창구의 일원화 필요(대전/12.27)</li> </ul>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피해와 환경 생태적 피해 충분히 보상:방제비용, 수산업·양식업 등 직접 피해, 관광·위락업계 간접피해, 생태 경관자원 손실 피해 등 실태조사와 분석으로 충분한 보상 제기(국민/1.3)</li> <li>· ‘2007 환경백서’ 97년-2006년까지3,915건의 유류오염사고 발생(파이/1.6)</li> <li>· 방제작업 참여 자원봉사자 54만여명, 지역주민 17여만명 등 96만4000여명 ‘1백만명 돌파’ 예정(경향/1.6)</li> <li>· 기금과 성금 배분 생계비 지원 기준과 분배 기준 등과 피해기준 마련 고심(중도/1.7)</li> <li>· 태안주민 80% 정도 직·간접 피해 추정...숙박업이나 음식점 등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피해자(대전/1.7)</li> <li>· 태안 기름유출 한달째...해양오염평가단 현장조사 동행:만리포와 천리포 백사장은 올 여름 개장 가능(한겨레/1.8)</li> <li>· IOPC, 태안 원유유출보상한도 3,000억원 가능성(한국/1.17)</li> <li>· 태안 지역경제 소생대책 절실:수산업분야와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 붕괴 우려(충청투/1.24)</li> <li>· 기름유출 50일 쯤 맞아 어업재개와 수산물 판매 논의 시작:수산물 안정성조사와 어업재개 방안에 대한 실문협의회 실시(중도/1.26)</li> <li>· 태안군, 서산시, 서천군 등 긴급생계비 배분기준 윤곽과 보령시 협의중(중도/1.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주민 생계비 지급 기준 마을 주민간 마찰, 피해확인증명원 없어 용자 못 받아(서울/1.30)</li> <li>· 각 정당 태안 특별법안 법안 명칭과 법안 내용 상이, 주민들 최대한 신속하게 실질적인 지원 바래(대전/1.31)</li> </ul>
200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특집)청정해역서 1박2일...봉사관광(volun-tour)함께해요(중도/2.4)</li> <li>· 원유유출사고에 '태안' 명칭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명명 주목(미디어/2.5)</li> <li>· '서해안 살리기 연중 캠페인'일환 중도일보,대전충청포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기획 '해안 기름유출 일본 사례조사'(중도/2.13)</li> <li>· 선주보험사 1월 이후 기름방제 작업 인건비 지연에 지역주민들 반발(중도/2.26)</li> <li>· 삼성중공업 원유 유출 피해사고 관련 1,000억원 출연 결정, 피해 주민 수용여부 찬반 반응 엇갈리는 양상(서울경제/2.29.파이/2.29)</li> <li>· 국제유류오염기금(IOPC)관계자 위협 등 과잉대응 비난(중도/2.29)</li> </ul>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중공업 태안에 기금 1000억원 지역발전기금, 주민기대치 충족에 극도로 미흡 지적(서울/3.1.대전/3.1.세계/3.1)</li> <li>·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출연, 생태계복원 지원, 어촌마을 자매결연 및 소외계층 후원, 서해안 휴양소 설치 등 '기름유출 피해지역 종합대책'발표(중도/3.3)</li> <li>· 태안주민 건강영향 면접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발표(서울경제/3.4.대전/3.5)</li> <li>· IOPC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수 3,520~4,240억원으로 집계.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어민 반응(경향/3.9.서울/3.10.세계/3.10)</li> <li>· 태안지역 이번주부터 조업재개(대전/3.10.세계/3.11)</li> <li>· 정부 태안 방제비용과 긴급생계비 포기해야 IOPC 3,000억 전액 주민 보상 가능, IOPC 태안피해 추정액 턱없이 부족(서울/3.11)</li> <li>· IOPC태안피해 4,240억원 산정에 주민들 반발(중도/3.11.대전/3.11)</li> <li>· [사설]태안앞바다 불법어로부터 막아야(중도/3.11)</li> <li>· 태안 피해보상 3,000억원 결정, IOPC집행위 지급 합의(경향/3.12.서울경제/3.12)</li> <li>· 태안 앞바다 동식물 50%~80%폐사, 환경부 복원계획 수립 위해 정밀조사 및 10년간 장기 모니터링 실시 계획(경향/3.13.서울경제/3.13)</li> <li>· 태안사고 100일째 유출 원유 복구, 생계비문제와 주민불만, 지역발전대책, IOPC보상비 근본대책 등의 해결과제 제기(한겨레/3.13.국민/3.13)</li> <li>· 서해참사 '100일간의 기록, 대전MBC 특별생방송'으로 환경, 건강, 지역경제, 피해보상 등 분야별 문제점 지적(중도/3.13)</li> <li>· 본격 복구 이제 시작 피해보상 '침침산중'(중도/3.13)</li> <li>· IOPC, 태안 피해보상 최대 3,000억 지급 결정(대전/3.13)</li> <li>· 태안 기름 유출 100일 '생태계 회복 최소 20년', 주민피해 청구 땀 6개월 이내 보상(서울/3.14)</li> <li>· 지역 주력 산업인 관광과 숙박·음식점 불황, 1월 신용카드 매출액은 음식점이</li> </ul>



		<p>지난해 대비 37.7%, 숙박업 61.2% 수준(세계/3.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PC, 태안 기름유출 피해보상 선지급금 1,800억원 규모(중도/3.14)</li> <li>· 태안군 민심 술렁:환경회복 20년이상 소요, 피해보상액축소 우려, 긴급 생계비 차등 지급 등 주민 심리적 공황(중도/3.18)</li> <li>· 서해안 해수욕장 개장 총력 복원프로젝트 마련(충북/3.20)</li> <li>· 봄철 먹거리 태안에 다있네:주꾸미와 간자미 등 먹거리 풍부(대전/3.20)</li> <li>· 서해안 비수산부문 바닷가 횃집, 숙박업소 등 피해신고 1만360건 접수(세계/3.24)</li> <li>· 냉대받는 태안사랑 상품권(충청투/3.25.중부/3.25)</li> <li>· 태안, 서산지역 2차 생계비 지급 4.9총선으로 내달 22일경 지급 전망(중도/3.25)</li> <li>· 보령·홍성주민, 기름유출사고 유조선社 증거보전 신청(한겨레/3.31.중도/3.31)</li> </ul>
2008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주민 조업재개지연·방제작업비 체불 주민어려움 지속(대전/4.2)</li> <li>· 태안기름유출지역 어획량 감소, 기름유출 상관관계 주목(중도/4.4)</li> <li>· 태안특별법 시행령(안)의 합리적 보상과 절차 등 미흡 견해(중도/4.9)</li> <li>· 중도일보, 대전충청미래포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기획 '태안의 기적' 해외 위기극복 모범선례 될 것(중도/4.11)</li> <li>· 태안지역 관광업소 봄이 되면서 관광객 점차 증가(충청투/4.11)</li> <li>· 서울환경영화제서 '기름 유출' 다큐 선보임(경향/4.15)</li> <li>· 태안 18일부터 태안 조업 재개 전망(중도/4.16)</li> <li>· 태안 영목항 내달부터 수산물 축제 개최(중도/4.16)</li> <li>· '태안 기름유출' 해수욕장 올해 절반 개장 어려워(경향/4.18.경남/4.18.한국/4.18)</li> <li>· 기름피해 태안 어업재개(한겨레/4.18.중도/4.21.대전/4.22)</li> <li>· '태안 주민들' 우울증, 두통, 가려움증 시달려(경향/4.20)</li> <li>· 당진 삽교호관광지 사고 후 관광객 감소 후 3-4월에 예년수준 회복(충청투/4.22)</li> <li>· 태안특별법 개정 시급:특별해양환경복원 지정 등 시행령에서 제외(중도/4.23.충청투/4.28)</li> <li>· 국립생태자원관 유류오염사고 특별전(중도/4.23)</li> </ul>
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상 소득자료 부족, 제대로 보상 받는 노하우 외국사례(서울/5.6)</li> <li>· 기업무한 책임, 불 토탈사 6100억원 보상(서울/5.6)</li> <li>· 태안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에 주민대표 참여(대전/5.7.충청투/5.7)</li> <li>· 스페인 정부 '선보상·후협상'으로 해결(서울/5.9)</li> <li>· 서울환경영화제 '지구전 2008:태안, 그리고 생명의 요람 바다' 소개(서울/5.10)</li> <li>· 해양경찰청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사진전'개최(경인/5.12.중도/5.14)</li> <li>· 태안군 봄철 수산물 축제로 관광객 유치(대전/5.12.중도/5.12)</li> <li>· MBC '태안'다큐, 환경영화제서 상영(미디어오늘/5.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 바다낚시로 관광객 유치(대전/5.14.중도/5.14.충청투/5.14)</li> <li>· 태안 6쪽 마늘 30만상자 팔아주기 운동 전개(중도/5.20)</li> <li>· 태안 이원면 뱃가리마을 농어촌체험으로 관광객 점차 증가(중도/5.22)</li> <li>· 사고 170일 제2의 도약 체비 분주:해수욕장 개장박차, 지역민 갈등해소 등 6대 중점과제 추진(중도/5.23)</li> <li>· 유류피해 배상 주민들 개별 청구로 협상력 저하, 법률자문 등 정부지원 촉구(중도/5.27)</li> <li>· 충남도 유류사고 중간보고 향후과제:경제활성화사업 186개 신청 반영 미지수, 타당성 입지와 사업시행 논리개발, 예산확보 과제(중도/5.27.충청투/5.27)</li> <li>· 태안 여름바다로 초대:7월부터 32곳 해수욕장 대부분 개장(중도/5.28)</li> <li>· IOPC 사무국장 '손실 증명 못해도 사정 등 통해 보상'(대전/5.29)</li> <li>· 태안 기름피해 연 1조3천억원 순수 환경피해 금액 분석(인천/5.30)</li> <li>·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 첫 민사소송 제기(파이/5.30.한겨레/5.30)</li> </ul>
	20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기름 건졌지만 피해보상 안돼 생계 곤란(경향/6.4)</li> <li>·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학습장으로 다시 살아났다(중부/6.5)</li> <li>· 태안 주민 건강 회복도 시급하다(중도/6.5)</li> <li>· 북서태평양 동북아 4개국 서해안 방제협력 관련 논의, 대전서 NOWPOP실무 당국자 회의(중도/6.9)</li> <li>· [사설]기적의 태안, 이젠 항구복구다(중도/6.9)</li> <li>· 서해안살리기 장소마케팅 도입을 '피해지역 교육,문화,관광명소로 육성'제안(중도/6.10)</li> <li>· '웰컴투 서해안'이달 말 해수욕장 일제 개장(중도/6.10)</li> <li>· 태안군, 충남도, 해경 협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마무리 환경복원 추진(중도/6.19)</li> <li>· 서산, 태안 낙지잡이 작년에 비해 30-40% 감소(중도/6.20)</li> <li>· 태안 32개 해수욕장중 15곳 직접피해 관광이미지 손상으로 관광분야에 큰 피해 발생(중도/6.20)</li> <li>· 스포츠 즐기며 태안도 살린다:안면도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 릴레이(중도/6.23)</li> <li>· 기름 유출 200일 맞은 태안 주민들 아직도 보상 해결 안돼 답답(국민/6.23)</li> <li>· 서해안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 만리포 시작 내달 중순까지 잇따라(중도/6.24)</li> <li>· 태안 기름유출피해 최대 5,735억원 : 방제활동분야 1,345억원, 수산양식분야 2,060억원, 관광분야 최대 2,330억원 최소1,980억원(광주일보/6.26.세계/7.4)</li> <li>· 태안 방제인건비 정부가 먼저 지급(내일/6.27)</li> <li>· 올 피서는 '서해에서 희망 찾기':서해안 해수욕장 개장(중도/6.30)</li> <li>· 안전한 바다 만드는데 최선 :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중도/6.30)</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반산리 어촌계 바지락 채취 재개(중부/7.3)</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소원면서 어촌계 마지막 채취 재개(대전/7.3)</li> <li>· 태안 유류사고 장면 국회 의원회관서 사진전(중도/7.4.중부/7.4.대전/7.5)</li> <li>· 2008 서해 어살문화축제 태안 남면 원청리 일원 개최(충청투/7.7)</li> <li>· 정부·IOPC '태안 보상' 공동진행(서울/7.8)</li> <li>· 동북아 관광메카를 향해 새출발, 위기를 기회로 관광태안 도약 날개짓(중도/7.8)</li> <li>· 태안 해수욕장 손님맞이 한창, 해수욕장 15곳 개장(중도/7.11)</li> <li>· 대전일보 주최 서해안 기름유출 사진전 만리포서 개막(대전/7.15)</li> <li>· 태안 32개 해수욕장 27일부터 축제, 해변영화제 등 다채(중도/7.17)</li> <li>· 120만 자원봉사자 태안반도를 살렸다(충청투/7.17)</li> <li>· 태안주민 'IOPC 방제작업 인건비 너무 적다' 반발(중부/7.21.중도/7.21.대전/7.21)</li> <li>· 대전충청미래포럼과 중도일보는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 대책본부회의실에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교훈과 시사점' 토론회 개최:태안 주민공동체 복원 시급(중도/7.24)</li> <li>· '관광태안 주말 관광객만 15만명(대전/7.29)</li> </ul>
	2008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 서해안 60만 찾았지만 예년보다 관광객 현저히 감소(중도/8.4)</li> <li>· 서해안 47%감소, '서해안 제2의 시련'(중도/8.4)</li> <li>· 태안주민 '방제인건비 너무 적다':112억 청구에 9억 지급될 듯(경향/8.4)</li> <li>· IOPC 태안 보상논의 본격화:충남도지사 IOPC사무국장장 의견교환(파이/8.5)</li> <li>· IOPC사무국장 '유류피해 증거 없으면 보상없다' 기존 원칙만 고수(대전/8.6)</li> <li>· IOPC 사무국장 충남도 방문 '3년까지 유효', 증거제시 요구(중도/8.6)</li> <li>· [사설]'피서봉사'로 서해안을 살리자(중도/8.8)</li> <li>· 기름오염을 극복하여 해수욕장을 정상 개장하였으나 작년 피서객의 88% 급감(세계/8.20)</li> <li>· 태안 남면에서 중,러,일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청소년 환경체험 심포지엄'개최(중도/8.19)</li> <li>· 태안지역 해수욕장 8월 17일 현재 피서객 전년비 14%수준(대전/8.19)</li> <li>· 유류방제 인건비 또 삭감땀 큰일:증빙서류 준비 철저(중도/8.22)</li> <li>· 희비 엇갈린 동·서 해수욕장:서해안 감소, 동해안 증가(내일/8.22)</li> </ul>

주 1) 대전:대전일보, 충청투:충청투데이, 파이:파이낸셜뉴스, 이데:이데일리, 한겨레:한겨레, 한국:한국아이닷컴, 조선:조선일보, 세계:세계일보, 중앙:중앙일보, 동아:동아일보, 서울:서울신문, 국민:국민일보, 경향:경향신문, 중도:중도일보, 중부:중부매일신문, 강원:강원일보, 경남도:경남도민일보, 매일:매일신문사, 충북:충북일보, 경상:경상일보, 내일:내일신문, 인천:인천일보, 브레:브레이크뉴스, 경기:경기일보, 미디어:미디어오늘, 국제:국제신문, 충북:충북일보, 경남:경남일보, 경인:경인일보

2) (○○/12.7)에서 ○○은 보도된 신문이며, 12.7은 신문보도 날자임

## 5.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극복과제

### 1) 국가 및 지역 차원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극복과정의 개선

서해안 유류유출 대규모 사고는 여수의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두 번째로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정책과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위한 법제정과 제도적 장치, 오염지역의 방제작업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피해조사 등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환경과 수산분야에서 이루어진 위기관리체계로서 비수산분야에 속하는 관광위기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을 정리했던 앞의 <표 3-30>에서도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는 비수산분야인 관광부문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IOPC의 보상 전례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의 서해안과 같이 관광산업이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유류유출 사고시에 반드시 보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충남의 서해안과 같이 관광산업이 지역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관광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 3-30>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의 각 부처별로 각각이 다른 지원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협력적이고 단계적인 피해극복과 지역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광위기 극복의 과정에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 2) 관광피해 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와 제도의 마련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에서는 수산과 비수산 분야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이

어렵게 이루어졌으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관광 관련 사업체와 맨손어업 등에서는 보상비 수령에 많은 문제와 보상액수에 있어서도 피해주민 차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자료를 구축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피해 조사 결과가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산출되고, 이것이 증명이 될 때에는 정당한 보상비의 청구뿐만 아니라 세계관광기구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서해안에 시군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의 관광업체에 대한 사업체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3)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지역 관광대응 전략의 수립과 정책 추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관광객 방문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사고 후 많은 사람들이 태안군 등의 서해안을 찾았지만 이는 단지 오염된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관광객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유류유출이 발생한 서해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서해안 지역의 관광산업의 침체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방제작업과 생태계 복원, 보상 등의 업무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관광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시장의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지역 관광대응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태안 기름유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유류유출 사고 후 태안에 대한 관광이미지와 앞으로 방문여부와 관광활동 등에 대한 파악만이 이루어진 상태다.

따라서 서해안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보

상도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서해안을 이용할 잠재관광객들의 시장조사를 통하여 유류유출 사고를 극복한 서해안으로의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전략과 이를 포함하는 ‘서해안 유류유출 극복을 위한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4) 협력적 관광피해 극복과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는 특별재난지역에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해 연안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모두 피해지역이다. 이러한 피해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동일한 지역내에서도 수산과 비수산부문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지역적으로도 생계비의 차등지급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원봉사와 다양한 지원을 해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부적 갈등이 지역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되어 지고, 관광객으로 다시 방문을 하기 위해 결정을 한 고객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단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6개 시군에 있어서도 서해안 유류유출 관련 관광종합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적 관광행정과 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서해안 지역의 NGO 역시 상호 협력체계에 의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5)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마케팅의 전략적 전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나빠진 태안군과 서해안의 환경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존에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의 신문보도자료 분석에서는 아직까지 방제작업과 피해보상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류유출 사고의 이미지 개선은 지역 수산물 판매와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서해안 지역의 이미지 개선은 지역 마케팅과 연계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단체, 언론 등은 앞으로 유류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지역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6) 자원봉사와 언론을 통한 새로운 환경관광지역으로 발전

유류유출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만의 자원봉사자 기적’을 이루었고, 여기에는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오염피해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이를 지역의 관광과 연계하는 ‘봉사관광(volun-tour)’이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자리잡을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유류유출 사고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전달되었고, 사고지역의 주변에는 양호한 생태계의 환경관광자원들이 풍부하게 있어 이들을 연계하는 환경관광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원봉사의 참여와 언론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이제부터는 방제작업에 이은 환경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서해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 7) 세계 환경 및 관광기구와 연계한 피해극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세계적인 환경오염의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신문보도자료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 환경기구 및 단체, 세계관광기구 등에 의한 정책지원과 관련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주변에는 람사르 습지와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사구 등이 있어 국제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연중 3,500만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에 유류유출의 오염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세계관광기구에 의한 관광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운영, 관광마케팅 사업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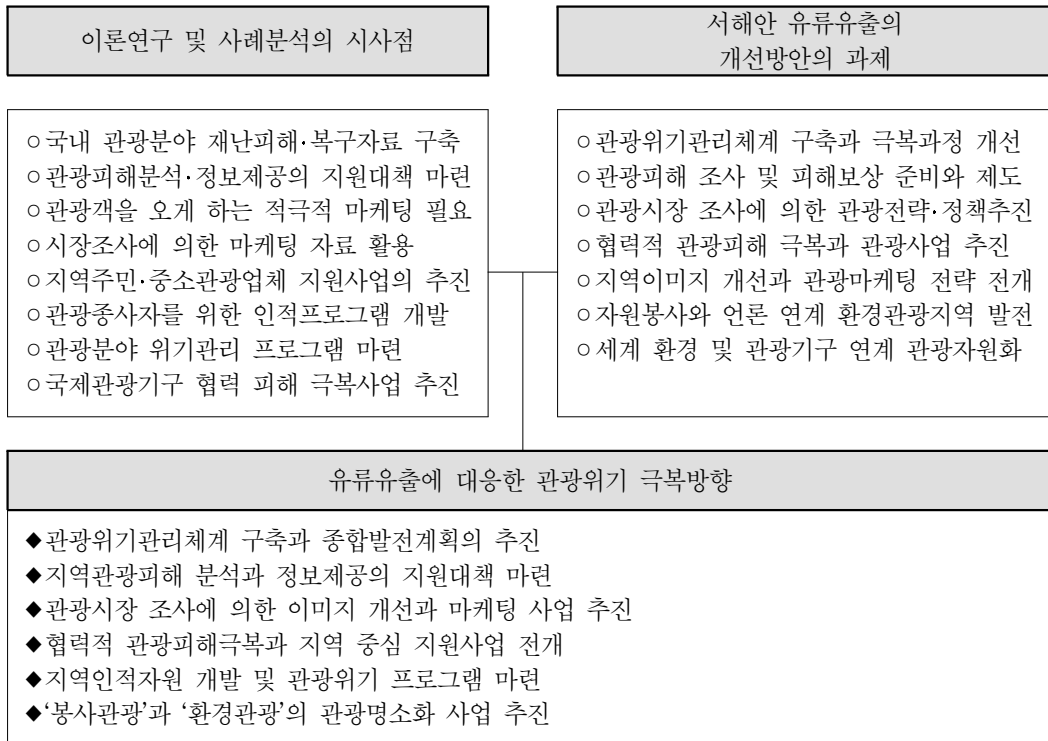


## 제4장 유류유출 관광위기 극복의 개선 방안

### 1. 관광활성화의 전략과 개선방향

서해안 유류유출에 대응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장의 이론연구 및 사례분석의 시사점과 제3장의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활성화 과제를 종합하여 향후 추진해야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림 4-1] 서해안 관광활성화의 전략과 개선방향 모색 개념도



이에 따라 도출된 관광활성화의 전략으로는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종합 발전계획의 추진,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의 지원대책 마련,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 추진, 협력적 관광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사업 전개,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 프로그램 마련,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등 6가지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의 추진

### 1) 서해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

서해안의 유류유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관광위기의 발생은 100%억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과거 충남 서해안의 홍성에 지진의 경험 있고, 태풍과 홍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 서해안이고 보면 관광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관광분야에서의 재해재난대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나 대책을 원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로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유원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과 "외국관광객 안전대책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두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충청남도, 각 시군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재해재난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경험으로 볼 때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응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에 재해재난에 의한 관광위기가 왔을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들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 대응을 하면서도 지역이 처한 관광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된 통합유류유출피해대책위원회와 지역NGO,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서해안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체계’를 구축한다.

## 2) 특별법과 연계한 시·군별 관광개발 사업 추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6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과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류오염사고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법안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여기에서 적시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관광산업이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 있어서는 지역 관광개발에 대하여 부문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충남의 서해안의 경우는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 구축’을 목표로 대중국 교류 및 수도권 배후 해양관광거점 지역 육성, 해양과 백제·내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중심지역 개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해안관광 특화지역 발굴·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자원정책 강화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고 위한 추진시책으로는 서해안 PINE Coast(Pleasure In Nature Entertainment) 국제 관광거점 조성, 백제·내포권 역사·문화 관광코스 개발, 생태체험권역 특화, 수도권 배후 당일 해양관광지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과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충남 서해안 6개 시·군별 주요 관광개발사업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서해안 6개 시·군 주요 관광개발 사업 예시

시 군	사 업 명
보령	성주사지 복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바다낚시 공원 조성, 자연휴양타운 건설, PORT 빌리지, 해양레포츠 전진기지 건설, 보령Port랜드 사업, 홍보지구 테마파크 조성, 해양휴양관광지 개발, 연도교 설치, 수륙이착륙 비행장 건설, 레일바이크, 미니열차운행, 모세의 기적, 무창포해수욕장 개발, 남포호, 죽도생태관광지 개발, 국내최대의 대천해수욕장 중심 개발,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조성, 원산도 위락·휴양·레포츠 등 종합타운 조성, 삼시도실버·요양·주거 등 자연휴양타운 관광자원화, 효자도 생태·리조트·숙박 등 교육 연수시설 관광자원화, 호도 바다낚시·해양레포츠 전진기지 관광자원화, 장고도 어촌체험, 민박마을 조성, 에너지 중요성 인식을 위한 체험관 조성(보령화력) 등
서산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푸른 청지천 가꾸기, 중왕리 어촌체험지구 개발, 구도항 관광산업지구 조성, 삼길포 관광미항, 해산물종합타운, 해상관광, 먹거리타운 조성, 삼길포 다기능어항 건설, 별천포 해양휴양지 조성, 창리·간월도 관광지 개발, 노인복합단지(실버타운) 유치, 고파도 낭만의 섬 휴양지 조성, 관광호텔 건립, 지역특산물 관광자원화, 인지 농업테마공원 조성, 부석 천수만생태공원화사업
서천	장항읍 다기능 관광어항 정비, 지역축제 사계절관광상품화, 부사호 생태관광지개발, 신재생에너지 테마관광지개발, 마량포·홍원항관광지 개발, 춘장대 관광지원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장항선 폐선부지 개발사업, 장항읍 일원 순회관광 궤도전차 운영
홍성	웅암포구(광천독배) 복원정비,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 레포츠지구 조성, 골프장 건설, 남당·궁리·어사관광지 개발, 홍성 유일의 섬(죽도)관광지 개발
태안	안홍성 공원화 사업, 소근진성 복원정비, 굴포운하 복원 정비,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안홍 다기능어항 시설사업, 이원호 주변 관광지 조성, 달산포 관광 테마파크 조성 몽산포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 남면자연체험 복합관광지구 조성,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 개발 및 정비,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가의도 해양생태공원 조성, 서해안관광도로(가로림만 교량) 건설, 고남 해안권 경관 순환도로 개설, 보령-안면간 연륙교 건설, 안홍 국제여객항만 건설, 비봉콘도미니엄 조성, 천리포 수목원 등 교육·체험관광 연계개발, 황도생태체험관광지 개발,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등 연계개발, 태안해양박물관(고려청자)건립
당진	솔피성지 성역화, 당진포진성 정비사업, 소난지도 의병충 성역화, 남이흥장군 묘역 정비, 심훈 상록수문학관 및 상록연수관 건립, 당진 생태공원 조성, 도비도 교육·체험타운 활성화, 삼교호, 함상박물관, 먹거리 개발, 왜목마을 일출·몰 동위치 관망 관광지개발, 난지도 해수욕장 연계개발, 당진 마리나리조트 조성, 당진 마린랜드 특구 건설, 황도웰빙주거·휴양단지 조성, 석문 해양·레저스포츠단지 조성, 대호주변 생태공원 조성

### 3.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의 지원대책 마련

####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관광피해조사단 구성·운영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007년 12월 19일에 ‘오염지역 생태계의 훼손 복원 장기계획 수립’ 방침을 세우고 ‘유류오염 사고 영향조사 및 평가를 위한 전문단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관광피해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조사단이나 관광영향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신문보도 자료에 나타나 있다. 다만 신문보도자료에는 없지만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는 12월 14일 태안 관광산업복구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1개월 운영하면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하여 관광피해에 대한 실사와 설문조사와 관광피해를 추정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광전문가가 포함된 관광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와 관광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도록 ‘관광피해평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서해안 관광사업체 등록 및 협력체 조직 운영 : 충남관광협회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체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펜션이나 민박과 같은 영세 업체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신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체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서해안의 경우는 관광사업체를 등록하거나 협력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펜션과 민박 같은 영세업체는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펜션이나 민박업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이나 펜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을 하고, 협력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기 보다는 충남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각 시군별 관광협회에서 통합적으로 등록하고 협력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6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

###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보고서 작성 : 관광산업편 포함

서해안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오염사고에 대한 재난백서를 편찬하면서 관광산업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찬을 한다. 관광산업편에 포함될 내용은 유류유출 오염사고에 의한 관광사업의 피해와 지역의 영향, 사고의 대응단계, 향후 피해극복 및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여수 씨프린스호의 유류유출 사고시에 작성된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해양수산부, 2002)에 관광피해 및 영향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번 사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보고서가 작성될 경우 관광산업의 피해와 영향조사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4. 관광시장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 추진

### 1) 지역이미지 개선방안<sup>17)</sup>

#### (1) 유류유출과 태안관광이미지

##### ① 태안관광이미지 변화 영향요인

태안의 청정이미지가 현재의 태안이미지로 바뀌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으로는 유류유출 관련 언론보도와 긴급방재현장에 직접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구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7) 충청남도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주최한 ‘태안국제환경포럼’(2008. 12.8 -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 언론보도

매스미디어는 지역이미지의 주요한 형성원천이다. 유류유출 사고후, 언론을 통해 재난피해 상황, 자원봉사 활동상황 등 수많은 태안 유류유출 관련 보도가 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류유출 전후의 태안관련 언론보도량의 변화를 한국언론재단의 DB(kinds)에 수록된 일간신문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태안 및 유류유출 보도건수

언론에 노출된 태안관련 보도건수가 유류유출 전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색조건으로 검색어 ‘태안’ 검색범위는 ‘제목’조건으로 최근 3개년을 검색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연도별 태안 및 유류유출 관련 언론 보도건 수

(단위 : 건, %)

유형/기간	태안 보도			태안, 유류유출 보도	
보도 일자	2005.11.1- 2006.10.31	2006.11.1- 2007.10.31	2007.11.1- 2008.10.31	2007.11.1-200 8.10.31	2007.12.7-20 08.2.6
서울종합일간지	48	106	1,222	298	161
지방종합일간지	250	917	3,780	1,168	431
인터넷 신문	7	29	577	173	115
경제일간지	47	83	822	181	89
계	352	1135	6401	1820	796
증가율	-	322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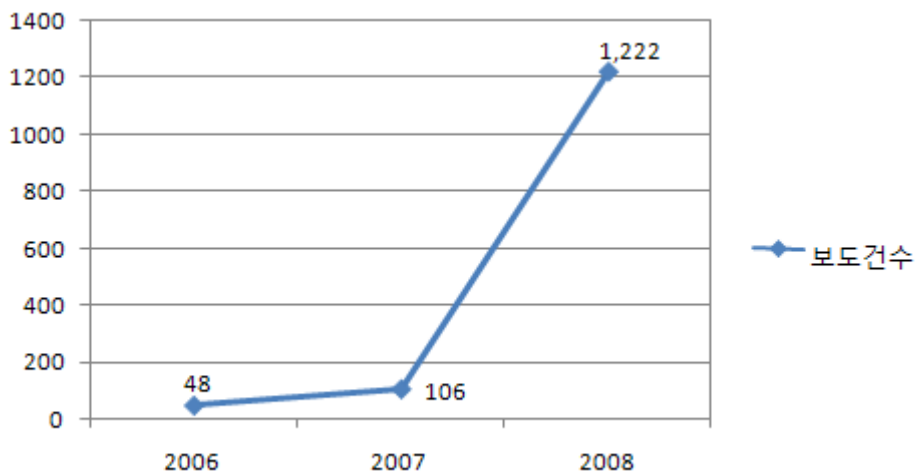
<표 4-2>를 보면, 서울종합일간지 기준으로 보면 2006년(2005년 11월 1일에서 2006년 10월 31일까지) 2007년(2005년 11월 1일에서 2006년 10월 31일까지) 보도의 경우 ‘태안’ 보도가 48건, 106건에 불과했으나, 태안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2008년(2007.11.1-2008.10.31)의 경우 무려 1,222건으로 급증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는 2007년 대비 무려 564%가 급증한 것으로, 유사 이래 최악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보도건수의 급증 현상은 지방종합일간지의 경우도 250건, 917건에서 2008년의 경우 무려 3,780건으로 증가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안관련 보도건수의 급증은 주로 유류유출 이후, 보도내용에 있어 태안의 환경오염상황, 긴급방재 관련 보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태안이 기름유출오염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들이라 사료된다.

유류유출 사고후, 유류유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도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검색조건을 ‘태안’, ‘유류유출’, 검색범위를 제목과 본문 모두 검색하는 경우, 서울종합일간지가 298건, 지방종합일간지가 1,168건 보도되었으며, 사고 후 3개월간 보도량이 161건, 431건으로 3개월간에 관련보도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2] 태안군 보도건수



#### ○ 해수욕장개장 보도건수

긍정적 메시지 보도건수 파악을 위해, 태안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

18) 이러한 결과는 검색조건을 ‘태안군’으로, 검색범위를 제목+본문으로 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2005년 1,117건, 2006년 2,504건 2007년 7,188건).

19) 2006년 대비 2007년의 경우 322% 급증함은 태안레저도시 관련 보도량 때문으로 보인다.



을 것으로 보이는 ‘태안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긍정적 메시지로, 검색어로 ‘태안’, ‘해수욕장개장’으로 설정 후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수욕장 개장 보도는 해수욕장 개장 전후 3개월 보도건수가 338건, 1년 기준으로 357건에 불과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정적 보도라고 판단되는 ‘태안 및 유류유출 보도건수’에 비해 매우 적어, 긍정적 메시지 전달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4-3> 태안해수욕장 개장 보도건수

유형/기간	2007.11.1-2008.10.31	2008.5.21-2008.8.20
서울종합일간지	77	73
지방종합일간지	230	217
인터넷 신문	27	25
경제일간지	23	23
계	357	338

## ○ 시사점

잠재관광객들에게 전달된, 정보의 양이 관광지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Raloglu, S. and KW. McCleary, 1999) 부정적 메시지 보도건수가 긍정적 메시지 보도건수 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 하에서, 유류유출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정보제공매체 측면에서 볼 때, 영상메세지가 전달되는 TV를 통한 보도는 활자매체로 전달되는 신문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V를 통한 영상보도에 있어서도 보도량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의 보도를 했을지라도, 검은기름배경의 영상메세지와 깨끗한 바다배경의 영상노출 간에는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유류유출 언론보도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 보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유류유출 후 태안이 언론에 노출된 빈도가 급증하여 태안인지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 참여 자원봉사

130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는 태안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태안의 어려움을 주변에 전파하였으나, 이미지 형성차원에서는 그들이 자원봉사기간 겪은 어려움들(두통, 역겨움 등)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전파되어 부정적 이미지 창출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② 유류유출이 이미지에 미친 영향

### ○ 유류유출에 따른 태안군 방문의향 조사결과

앞에서 살펴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조사 결과를 통해, 유류유출 후 이미지 변화상황과 방문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름 유출 사고에 의한 태안 이미지 손상정도에 관해서는 이미지 손상을 주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87.3%로 이미지 손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 9.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방문의향은 수질 회복 가정하의 관광 목적의 태안지역 방문 의향은 ‘갈 것이다’ (반드시 방문+아마도 방문)라는 응답 비율이 42.5%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방문 안함+아마도 방문안함)라는 응답 비율 22.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태안 방문 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태안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방문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유류유출에 따른 방문수요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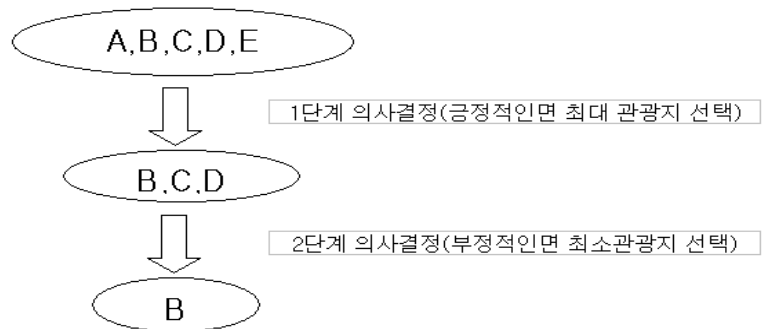
태안군 방문관광객수는 태안군방문관광객 통계기준으로, 2007년 (1월에서 9월까지) 방문객 18,713,137명 대비 2008년(1월에서 9월까지) 방문객 수에 있어 전년대비 20.0%에 불과한 3,746,294명이 방문하였다.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7,8월 2개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14,437,784명에서 2008년 2,223,316명으로 84.6%가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종합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의 수질회복 가정하의 관광목적 태안방문의향 조사결과, 응답자의 42.5%가 방문의사를 보였으나(잘 모르겠다는 응답 35.0% 제외) 실제 태안군이 집계하는 태안군 방문관광객수 집계에서는 7,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84.6%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은 결과는 방문의사는 높았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에서 방문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곧, 방문의사가 있지만, 최종결정단계에서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어 방문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기존 학자들이 개발한 2단계 관광목적지 선택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관광객들은 관광목적지를 선택할 때, 2단계 행동을 하는데, 1단계는 관광객이 해당 의사결정과 관련해 연상되는 모든 관광지가 속하는, 자각집단(awareness set)으로부터 대안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2단계에는 관광목적지 선택과 관련하여 선택가능한 관광지들이 포함되는 대안집단(evoked set)에서 최종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그림 4-3] 관광목적지 선택과정



여기서 1단계 의사결정과정을 할 때는 관광객들이 인지하고 있는 여러 관광지 중 긍정적인 면(예를 들면, 매력성이 높은 곳 등)이 뛰어난 관광지들을 몇

20) 비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파악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곳 선택하고, 2단계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최종목적지를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가장 적은(예를 들면,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목적지 등) 곳을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태안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방문의향은 높았는데, 실제 방문객이 적은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자료의 근거로 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2008월 3월 말)에서는 높은 태안방문 의향(1단계 의사결정)을 보였으나<sup>21)</sup> 실제 방문결정을 한 7, 8월에는(2단계 의사결정) 태안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태안이 최종휴가 목적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2) 이미지 개선방안

### ① 지역이미지 진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현 상황(현재 이미지)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허황된 것이라는 Gartner(1993)의 주장처럼, 현재의 이미지 수준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역이미지 개선작업의 첫 단계이다.

우선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이미지 조사를 통해, 태안지역이미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변화가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과학적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한다. 이를 기초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 개선(회복 또는 이미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 ② 긍정적 메시지 확대

관광지이미지가 정보의 양과 정보전달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Raloglu & McCleary, 1999), 적어도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잠재 관광객들에 전달되는 자극(보도량)에 있어 긍정적 자극(보도량)이 부정적 보도량 보다 많아야 한다. 특히 관광지 이미지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시각적 자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Mackay & Fesenmaier, 1997), TV매체를 통한 영상매

---

21) 관광은 고관여(high involvement)활동으로 보통 의사결정을 시작하는 시점이 최종결정 3-5개월 전 부터이다.

세지 노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을 유도하고, PPL(Product Placement)<sup>22)</su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③ 지역이미지를 청정이미지에서 환경중심지(청정한 자연, 환경교육 중심지:재난극복, 승리, 녹색성장 중심지)로 이미지의 확대, 복합화를 추구

지역이미지는 지역의 유무형적인 자연적 요소(경관, 동식물, 기후 등), 인공적 요소(건축물, 문화재, 특산물, 지역상징물, 향토역사, 주민정체성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인상이다.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태안은 단순복구가 아닌 지역재생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양한 자원적 요소를 반영하고, 유류유출로 얻게 된 새로운 정통성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만들기(image making)가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마케팅의 소재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태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기름으로 오염됐던 바다가 원상회복되었다는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 요소를 기존이미지 요소에 부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긍정적 방향의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잠재관광객들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희석되려면, 객관적으로 이미지 회복 증명이 됐더라도 회복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려 해 볼 수 있는 안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안면도 꽃박람회와의 연상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4계절 꽃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도 한방법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접근은, 기존의 단일차원의 이미지 요소를 전환하여, 다양화, 복합화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이미지를 벗어나 또는 기존이미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태안의 경우, 기존의 청정이미지를 재난극복의 중심지, 환경 교육의 중심지, 청정한 자연을 아우르는 환경중심지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유류유출 후 지역재생차원의 접근이라면 후자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22) 영화나 TV프로그램 속에 제품이나 브랜드의 계획적 배치를 통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유료의 메시지.. PPL은 시청자들에게 광고를 인식하지 않게 하면서 광고효과를 얻음. PPL의 사례로는 드라마 PPL로서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의 경우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의 ‘아바이마을’이 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된 장소들이 부각됨(박중환, 2007)

#### ④ 참여관광((Involvement Tourism) 활성화를 유도

부정적 이미지 극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광객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다. 우선적으로, 130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난극복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태안이 자원봉사, 재난극복,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자원봉사 관광(Volun- Tourism)이 아닌 참여관광(Involvement Tourism)으로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관광(involvement tourism)은 자원봉사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시대적 사명을 함께 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보람을 추구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태안의 경우 참여자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치 공유에 동참하게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재난극복에 동참하여 성공하게 한 자긍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상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참여공원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여를 통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특히, 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하다(바다수영대회, 스킨스쿠버 사진촬영대회, 바다 밑 관찰프로그램 실시 등) 이외, 오피년 리더들 대상의 팸투어(언론사, 전문가)를 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⑤ 지역민 주도의 품질보중에 노력

태안이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태안주민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안은 잠재관광객들에게 과거와 같은 청정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도 태안의 물리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원봉사자와 같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일반국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여 태안방문으로 유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태안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가치하락과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상차원에서, 방문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가격할인, 품질인증제, 가격정찰제 실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⑥ 지속가능한 대량관광(Sustainable Mass Tourism)을 실시

태안이 환경중심지로 거듭나고 청정한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태안의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래 생태관광은 자연보호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김남조, 2008). 따라서, 지역이미지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름중심의 관광목적지라는 태안관광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태안의 환경 중 관광객 통제관리가 가능하고, 환경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태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조류탐사 프로그램 등).

## ⑦ 서해안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이미지 회복 및 활성화 전략이 필요

유류유출로 인한 문제는 태안만이 아닌 인근 지역을 포함한 서해안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모색도 인근 시·군과 공조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인근 지역과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전략이 필요하며, 방문 유도 캠페인도 그 한예가 될것이다(예를 들면, “머드체험은 보령에서, 갯벌체험은 태안에서”)

이외, 국제환경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태안의 주요 환경포인트를 연결하여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로드의 개설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⑧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으로 이미지 개선

2010년이 중앙정부로부터 ‘충청권방문의 해’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이미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표 4-4> 2010충청권 방문의해 충청권(충남, 대전, 충북) 공동 추진 사업

<Premium, 충청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화합하는 충청	충청국제 관광박람회	·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세계 관광전을 개최하여 한국 및 충청관광의 위상 을 합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충청	· 서울, 부산, 목포 및 속초에서 출발하여 충청의 중심 에서 모이는 국토순례프로그램 운영 · 충청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홍보하고 전국적 행사를 통한 충청방문의 해 붐업유도
	하나되는 충청	· 국토중심에 입지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경기, 강원, 경상 및 전라도 인접지역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류사업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충청	33-24-365 프로그램	· 방문의해 통합전화망 가동으로 충청권 33개 시군에 서 24시간 365일 문화관광안내 및 안전도우미 역할 · 통신사와 연계, 해당 지역 내 관광객들이 자동으로 해당지역 도우미전화로 연결되도록 운영
하나되는 충청	방문의 해 통합 추진기획단 공동운영	· 2010년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메가이벤트 및 각종 행 사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화 된 추진기획단을 구축
	메가이벤트 통합 홍보 및 관광상품 공동 운영	· 2010년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3대 메가이벤트 공동홍 보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운영 · 3대 메가이벤트 전용 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게 임 등을 통해 행사의 노출빈도를 강화하여 관광객 연 계 방문 유도



<Oriental, 충청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Oriental 충청 재발견	충청 POTM 및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관련 이달의 역사인물(POTM; People of the Month) 선정 및 관련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해당 역사인물과 관련된 단체와 공동운영하는 방안 강구</li> </ul>
	Oriental 충청 체험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문화유적 답사와 탐방을 주로 하는 대학생 및 동호회에게 답사지 추천 및 답사일정에 대한 후원</li> <li>·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구상하고 체험수기 및 사진에 대한 후속 홍보 작업 지원</li> </ul>
	Oriental 충청 숨어있는 보물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충청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진, 회화, 서예, UCC 등 공모전 개최</li> </ul>
Worldwide Oriental 충청	웰컴! 내고향 충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충청권 방문의 해를 ‘모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여 고향방문단을 적극 유치</li> </ul>
	해외동포자녀 방한유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도의 역사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모국방문 관광상품인 연수 프로그램을 발굴·추진</li> </ul>
	충청! 친구 되기 (Friends of Chungche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관광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국과의 인연 맺는 운동, 외국인 친구사귀기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 및 충청도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li> </ul>

<Wonderful, 충청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33 릴레이 프로그램	33 릴레이 충청 축제프로그램	· 문화관광부 축제를 포함하여 각 33개 시·군 지역의 대표 축제를 4계절 릴레이로 개최하며 33개의 다른 테마 및 주제를 정하여 릴레이 축제 개최
	33 릴레이 시군구의 주 운영	· 충청권 33개 시·군·구의 주를 지정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역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 · 캘린더 제작 및 후속시군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별하고 재미있는 충청관광 프로그램	‘숨겨진 매력’ 대표관광지 연계관광상품 운영	· 대전-충북-충남의 대표관광지를 연계하는 공동관광상품 개발 운영
	동서간 (34+36+38) 관광상품 운영	· 충청권 동서간 국도인 34(당진~영덕선), 36(보령~울진선) 및 38(서산~동해선) 연계관광상품 운영 · 관련 지자체별 우수연계관광 홍보물 제작 및 공동운영
	‘특별한 재미’ 이색체험 관광상품 공동운영	· 선비/유교문화등 정신문화교육 연계관광상품 공동개발·운영 · 중원-백제-내포연계 충청문화 공동관광상품 운영 · 와인트레인, 충북선 철도여행 등과 같은 이색체험관광상품 공동 운영
	충청권 한·중·일 크루즈 및 항공연계 프로그램 공동운영	·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 일본헤이세이(平成)천도 1300년 기념행사 및 충청방문의 해를 연계한 3개국 크루즈 및 항공연계 관광상품 공동운영
	충청의 맛지도 제작	· 충청의 전통 맛지도 만들기 홈페이지 운영, 맛집평가단 운영, 각종 포탈사이트, TV 및 라디오 홍보, 전통 음식점 맛지도 제작 등

<Elevational, 충청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진충청! 관광문화 선도	• 관광업계 및 종사원들 중심으로 캠페인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관련 업체 및 관광명소들을 대상으로 청결운동 실시
	충청, 전국민 모시기 운동 전개	• 지역발전위원회, NGO 등의 기존 단체와 병행하여 협력하고 지역민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계 각층의 자원봉사 활동 유도

<Relational, 충청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방문의 해 선포식·개막 식·폐회식 공동 운영	세계로 나아가는 충청 선포식	• 국내외적으로 충청권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방문의 해 선포식과 선포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충청권 주민의 손님맞이 분위기 도모
	Welcome! Visit 충청	• 충청권의 통합과 화합, 평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열망을 전달하고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개막을 국내외에 알려 관광인지도 확산
	이제 도약! 방문의 해 폐막식	•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충청관광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음
충청관광포털 운영	종합관광시스템 'U-Tour 충청' 통합 운영	• U-대전, U-충북 및 U-충남 시스템을 결합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 충청방문의 해 행사소개 및 사업홍보, 충청방문의 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충청관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유관 Website와 연계
	관광충청 키오스크 공동운영	• 인천공항 및 청주공항에 충청관광 키오스크(종합정보 안내시스템) 설치·운영 • 충청권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안내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 및 편의 도모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국내외 공동홍보 마케팅	충청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청 앞 광장 등 전국 주요 거점지역 방문의 해 홍보관 공동운영</li> <li>· 국내외 관련 행사시 홍보·마케팅 부스 공동 운영</li> </ul>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도시주민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권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해외 도시 주민을 지자체에 유치하여 충청권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도모</li> </ul>
국내외 공동홍보 마케팅	기업 및 외국공관과의 프로모션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전개 함으로서 방문의 해 홍보효과 극대화 및 세계적인 지역 인지도 확산 도모</li> <li>· 국내외 항공사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사 공동 추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 연계, 관련 홍보물 배포 등</li> </ul>
	사이버 홍보메신저 및 방문의해 홍보 사절 공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홍보메신저와 충청방문의 해 홍보사절을 공동 선임하여 운영</li> </ul>
평가사업공동 운영	충청방문의 사후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운영 및 관리, 관광인프라, 관광상품 및 자원, 관광서비스, 홍보·마케팅, 재정집행 등의 6대 과제로 나누어 평가사업 실시</li> <li>·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1년 이후 충청관광의 전략적 연계 및 발전방안 모색</li> </ul>

<표 4-5> 2010충청권 방문의해 충청권(충남, 대전, 충북) 기획특집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대전광역시	H2O 페스티벌	· 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체 축제 구역을 4개(물 구역, 예술구역, 물 과학구역, 물 스포츠구역)로 구성하여 추진
	대전 열기구 축제	· 과학문화도시와 항공문화도시 대전의 항공축제를 통해 이미지를 부각하고 하기 위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모
	꿈돌이사이언스 페스티벌	· 국내에서 과학을 테마로 개최되는 축제 중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 발돋움하는 대전광역시의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
충청북도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행사 개최를 통해 한방산업을 과학화·산업화·세계화하고 한방산업을 지역성장 동력화
	Jump Mountain 사업	· 15개 한국명산을 활용한 충북 4대 산악탐험루트를 지정하고 4대 탐험루트를 활용한 Jump탐험대 운영, 극기체험코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충북 8경 Enjoy Korean Culture	· 충북의 대표적인 8경을 소재로 한국의 풍류와 멋을 즐길 수 있는 풍류여행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선비정신과 멋을 홍보하고, 세계인이 감동하는 관광매력물 창출
충청남도	2010 대백제전	· 백제문화를 토대로 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활성화 및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백제문화 세계화 추진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400만 환경적 대축제	· 서해안 살리기 차원에서 서해안지역 충청권 방문의해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개최시기는 서해안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1주일 정도 실시, 보령머드 축제, Sea Food 축제와 연계되도록 추진
	새로운 도약 국경 없는 다민족 다문화 관광대축제	· 국내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과 충남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소통, 화합하는 축제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관광교류전을 병행 추진 및 각 국 대사관 및 관광홍보사무소와 연계 추진

## 2)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 (1) 서해안 ‘관광살리기 운동’과 다크투어리즘 관광마케팅의 전개

서해안의 유류유출 오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안사항을 다음과 같다.

#### ① 다양한 판촉·광고·행사를 통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시행

서해안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로 개선을 앞당길 수 있는 홍보 방안 강구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광고 제작 및 실시 : 기업의 협동광고(cooperative advertising)와 유사하게 문화부, 충남, 태안군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
-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 방영시 쿠폰(coupon), 사은품(premium), 경연(contest)과 추첨(sweepstake), 환불(rebate) 등 다양한 판매촉진(sales promotion) 방법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구체적인 아이디어 기획 필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나라 구석구석 찾기 캠페인과 연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들 프로그램은 방송, 예술, 체육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기획 등으로 한다.

#### ② 관광객 대상 할인 프로그램 지원

태안군의 관광지 중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안면도자연휴양림, 고남폐총박물관 등의 입장료 면제를 검토한다.

- 유료관광지, 펜션, 여관, 민박 등 숙박시설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차액 지원
  - 지자체, 상가협의회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특별할인행사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하면 여기에 대해 차액 보전 지원
  -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 등 민간운영 관광지와 오션캐슬, 펜션 등 민간시

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시행 프로그램 기획

- 향후 태안 방문 관광객의 회복 추세를 주시해가면서 시행 여부 결정

○ 지원 근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유추해석

- 법 제9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에 의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한도초과 보상금)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액 보상을 사전에 줄이는 의미가 있음
- 법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③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 의한 관광마케팅 실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의미와 유래는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무도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것이다. 1996년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Dark tourism'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라는 잡지의 특별호에서였다. 그 후 2000년 영국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의 교수 두 명이 공저로 펴낸 자신들의 책 제목을 'Dark tourism'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명한 'Dark tourism' 장소로는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인 독일의 아우슈비츠, 9.11 테러의 참상이 새겨진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워싱턴의 대학살 추도 박물관 등과 같이 전 인류를 경악시켰던 참극의 현장이나 비극을 기리는 장소 또는 요크가의 리처드 3세와 랭커스터가의 헨리 튜더가 싸웠던 영국의 보스워스나 미국 남북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장이었던 게티스버그와 같은 역사적 격전지를 들 수 있으며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주 활동무대였던 런던의 화이트채플지역과 같은 엽기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 포함되기도 하다.

또한, 미국내에는 그라운드 제로 이외에도 비극적인 장소가 관광목적지로 된 경우들이 있다. 예전에 텍사스의 문서보관서로 사용되었던 달라스에 위치한 "The Sixth Floor Museum"이 이런 경우이다. 이곳은 저격수 오스왈드

(Lee Harvey Oswald)가 이 건물 6층에서 케네디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26년후에 문을 연 이후 매년 약 45만명이나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링컨대통령이 암살되었던 Ford's Theater,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격을 받은 Lorraine Motel, 그리고 2차대전당시 일본의 공격을 받은 하와이의 진주만 등도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 “토네이도” 관광상품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토네이도나 번개 등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관광상품으로 미국에서 체험관광상품으로 10여개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Cloud 9 Tours, Silver Lining Tours 등이 대표적인 재난 관광회사이다.

한국의 경우는 제주관광의 활력을 위해 일제전적지와 4.3 유적현장 등을 활용한 ‘Dark Tourism’(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sup>23)</sup>

이와 같이 태안의 경우에도 유류유출로 인한 재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크투어리즘에 적용한 관광마케팅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3) 한국관광공사(2008) 자체 수집자료 재인용



※ 미 Ground Zero 관광지화 사례

-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인하여 미국 맨하튼에 있는 월드트레이드센터 빌딩이 소실됨. 이후 그 자리를 보존하면서 일명 Ground Zero로 불리며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Ground Zero를 찾은 방문자들은 360만명에 달하며 주변 건물들은 Ground Zero를 관람하는 전망대로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9. 11사건 이후 Ground Zero는 예상밖으로 뉴욕시의 볼거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9. 11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주변에는 “Ground Zero NYC 티셔츠”나 “Day of Horror”라고 쓰여진 모자, “기념책자와 DVD”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복수심에 호소하기 위한 상품인 “오사마빈라텐이 인쇄된 두루마리(Toilet Paper)”는 큰 인기를 끌어 판매소에는 이를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기도 함.
- 단체관광객을 이끄는 관광가이드들도 “Ground Zero에서 사건당시 소방관들이 테러의 잔해 속에서 미국국기를 세운 곳이 저곳이다”하는 식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정부나 지방정부(뉴욕시, NYC & Company)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Ground Zero를 관광상품화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음.
- 뉴욕시에서는 Ground Zero에 이를 관광지화 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닌 9.11 테러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념관(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차원의 관광상품화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찾는 많은 외래관광객들은 Ground Zero를 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싫던 좋던 간에 Ground Zero는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볼거리가 되고 있음. 특히 Ground Zero가 관광지로 유명한 미국 월가(Wall Street)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월가관광을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월가에서 도보로 이동해서 Ground Zero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 주변의 건물들이나 인근지역의 민간을 중심으로 Ground Zero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뉴욕 시내를 운행하는 City Tour Bus의 경우도 City Tour Bus 가이드가 월가를 지나갈 때 이곳이 Ground Zero라는 설명하고 있는 등 뉴욕주정부나 뉴욕관광공사의 의도적 노력과는 상관없이 Ground Zero가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임.

## (2) 국제적 이벤트의 정기개최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서해안의 유류유출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메가이벤트를 통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2

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해양환경주제관’과 관련된 행사내용을 태안에 유치하여 ‘2012국제 해양엑스포’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 목적 : 성공적이었던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재현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서해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적 메가이벤트로 개최
- 일정 : 2009년 4월-5월경
- 장소 : 태안 안면도 꽃지지구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일원
- 사업비 : 행사계획수립 반영
- 행사내용 : 국제꽃전시회, 서해안유류사고 자원봉사전시관 등
- 기대효과 : 청정 서해안에 대한 이미지제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 마련

### ② ‘2012 국제환경엑스포’ 개최

- 목적 : 유류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극복을 전세계에 알리는 국제 행사와 국제해양환경 관련 제품의 전시판매 교역전 개최
- 일정 : 2012년
- 장소 : 태안 만리포관광지 일원
- 사업비 : 행사계획수립 반영
- 행사내용 : 해양관광전시회, 환경교역전, 자원봉사축제 등
- 기대효과 : 충남의 서해안을 해양환경과 해양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여, 유류사고 극복사례를 세계에 알리면서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 제공

### (3) 자원봉사 감사대축제의 지속 개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를 극복하고 서해안의 희망을 일구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연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개최 시기는 매년 사고가 발생했던 12월 7일을 전후한 12월초에 12월 5일의 자원봉사자의 날과 연계하여 매주년 자원봉사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매년 6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추어 자원봉사 감사 여름 대축제를 개최한다.

#### ① 서해안 유류사고 ○주년 자원봉사 대축제(○주년 + 자원봉사 축제)

- 목적 : 서해안 유류사고 ○년 맞이 '서해안 청정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출발의 기념행사로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관광객 참여축제로 개최
- 일정 : 매년 12월 5일경
- 장소 : 태안군 및 주변시군 지역
- 사업비 : 행사계획 수립 반영
- 행사내용 : 행사내용 및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대주제 : 깨끗한 서해안, 환경의 중요성, 자원봉사 감사 등 환경과 감사를 주제로 지역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 마련
  - 주 제 : '다시 찾는 깨끗한 서해안', '청정한 서해안 아름다운 기억', '서해안의 초대, 함께하는 미래'
- 주요프로그램
  - 주민 및 자원봉사자간의 화합 프로그램 : 백사장 10인 11각 릴레이 마라톤, Night of 릴레이 콘서트 (자원봉사를 한 연예인 초청 행사), 전국노래자랑 태안군편 -> 자원봉사자 초청, 서해안 해산물 축제 및 판매전 등
  - 자원봉사 상징물 : 자원봉사 장비 및 구호물품 전시, 대형 장화와

장갑&마스크 등 봉사 장비 및 자원봉사자 핸드프린트 광장 조성,  
감사의 벽(재활용 환경 제품) 제작 및 참여 등

- 자원봉사 기념 사업 : 자원봉사 주화 및 우표발행 (자원봉사자들에  
게 전달), 도로 명칭 부여 & 공원 조성 (130만 ‘기적의 길’, ‘기적  
의 공원’), 기업단위 자원봉사 ‘서해안 Forever’ 구축 (기름뺏기 외  
에 농특산품 직거래 및 섬마을 교육, 의료 등 계속해서 지역주민  
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류유출 피해 및 복  
구과정 화보집 발간, 서해안 자연환경 신문인 가칭 ‘갯벌’ 발간 및  
배포 등

- 기대효과 : 새롭게 출발하는 서해안 청정이미지 홍보와 이미지제고 기회  
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잔치로 다시 찾는 서해안의 기  
틀을 마련하고, 서해안의 관광 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

## ② 서해안을 살린 자원봉사자 감사 여름 초대축제

- 목적 :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침체된 서해안 관광  
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난 6개월간 자원봉사를 해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초대 잔치로 감사의 뜻 표현
- 일정 : 매년 6월(해수욕장 개장시기)
- 장소 : 태안군을 포함한 충남의 서해안 시군
- 사업비 : 행사계획수립 반영
- 행사내용 : 자원봉사 감사잔치, 해수욕장별 특별이벤트, 자원봉사 철도관  
광열차 운행, 자원봉사 감사 셔틀버스 운행, 자원봉사 연예인  
초청행사, 서해사랑 열린음악회 등

\* 행사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구성

\* 행사는 선언중심보다 자원봉사를 위한 감사 이벤트 중심으로 구성

\*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시군의 해수욕장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한마당 잔치 마련과 각종 감사투어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과 지속적 자원봉사자 유발계기 마련. 매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서해안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 기회 제공

#### (4) 서해안의 특색이벤트 축제의 개최와 언론 홍보 실시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지역특산물과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소재로 하여 특색 이벤트를 4계절 개최하고, 대기업체 및 각급 공공기관과 단체, 자치단체의 연수를 유치하여 개최

##### ① 계절별로 생산되는 수산물 축제의 정기개최

- 목적 : 서해안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특산물 관련 각종 이벤트와 축제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로 개최

- 일정 : 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생산 시기

- 장소 : 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생산 지역(서해안의 수산물축제벨트 구축)

- 사업비 : 각 축제별 예산산정

- 행사내용 : 실치축제, 우럭축제, 쭈꾸미축제, 광어축제,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남지축제, 키조개축제, 바지락축제, 마늘축제, 자염(소금)축제, 전복축제, 굴축제 등등

\* 서해안 Seafood Festival 시리즈의 축제로 발전 : 생산시기와 수산물을 테마로 하여 수산물 맛보러가기 등 청정 수산물 홍보행사 개최

- 기대효과 : 지역수산물 등 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 ② 지역문화행사 및 이벤트와 전통축제 등의 개최

- 목적 : 지역별로 문화행사와 이벤트, 전통축제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를 개최
- 일정 : 각 시군의 지역문화행사 개최 시기
- 장소 : 각 시군의 지역문화행사 개최 장소
- 사업비 : 각 문화행사별 예산(자원봉사행사 등은 별도 예산 지원)
- 행사내용 : 지역문화행사 + 자원봉사 및 유류사고 관련 특별전시회, 음악회 등 개최
- 기대효과 :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자원봉사자의 초정과 유류사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촉진과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 ③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대기업체 연수행사

- 목적 : 공공기관 및 대기업체 등에서 선도적으로 연수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서해안 이미지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일정 : 공공단체 및 기업체 연수 및 이벤트 일정
- 장소 : 태안군 및 충남 서해안 시군의 관광지
- 사업비 : 공공기관 및 기업체별 예산
- 행사내용 : 서해안 환경살리기 자원봉사 행사, 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등
- 기대효과 : 서해안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극복의 밑거름 역할 수행

#### ④ 각종 축제와 이벤트행사에 대한 언론 홍보와 방송이벤트 병행 개최

- 목적 :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언론 참여로 연계하여 방송이벤트로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와 전국민 참여 촉진의 계기 제공
- 일정 : 각종 축제와 이벤트 개최 시기(○주년 행사에는 전국특별방송 실시)
- 장소 : 각 축제 및 이벤트 행사장소(중앙 및 지방방송 등)
- 사업비 : 축제 및 이벤트 홍보비 반영과 방송국 협찬
- 행사내용 : 서해안의 기적 자원봉사자의 힘, 서해안 사랑 축제와 이벤트 등
- 기대효과 : 서해안 살리기의 각종 축제와 이벤트에 방송이 참여함으로써 행사의 홍보로 지역이미지가 제고되고, 전국민 참여를 촉진함

#### (5) 체류형 통합정보서비스 기반체계 구축

유류유출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통해 점진인 개선이 기대되나, 당일형이나 경유형의 방문지로 머물러서는 지역재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피해지역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진전되면 체류를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6개 시군이 보유한 관광매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정보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통합서비스 기반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6개 시군을 하나의 정보권역으로 묶는 지역정보 브랜드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① 지역 공동정보 체계화

- 6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관광정보를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잠재관광 욕구를 자극하고 장기 체류를 도모함

- 자원의 특성별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 일관성을 가진 스토리 맵을 작성해 줌으로써 관광객의 편리한 체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② 지역 공동정보 브랜드화

- 브랜드명: 가칭 ‘그린 코스트(Green Coast)’
- 온라인 상에 6개 시군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콘텐츠 중심의 정보 웹사이트 구축

## 5. 협력적 관광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사업 전개

### 1) 특별재난지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서해안은 기존에 서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계획(2008-2017),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02-2011) 등의 국가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의 유류유출 사고 이후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어 서해안 전지역에 관광객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6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중장기 관광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되 법정계획과 내용이 연결되도록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김희수, 2008)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특별법 제10조)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의 수립과 시기,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이 서로 연결되도록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2008년 8월 해양오염영향조사 중간결과 발표와 함께 지정·고시하고 친환경적 장기복원계획을 추진할 예정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및 복원프로그램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중('08.4)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2008년 3월 제정)의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연계

##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주민 관광사업의 육성

현재 서해안 기름유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6개 시·군의 신속한 관광산업 활력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역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지정관광지내 일반숙박시설 개보수자금 지원, 기존 용자업체 상환기간 연장, 특별금리 적용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용근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특별재난지역내의 경우에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서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의 조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서의 관광편의시설 건설 또는 개수와 관광진흥개발기금시행령 제2조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서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의 조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 기금지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관광지, 관광단지내에서의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용자 시행중이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내에서는 일반 음식점, 펜션의 경우 관광펜션업, 관광식당업으로의 지정신청을 조건부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고, 음식점, 펜션 시설의 품질향상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3) 지역 펜션과 민박 등 중소기업체의 활성화 사업 추진

태안군에서 가장 많이 있으면서 유류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펜션과 민박을 포함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안내 등을 통한 민박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 운영방식·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한국라보(홈스테이) 및 한국민박협회 등에서 민박 예약 및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별 민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민박 예약 안내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나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체험관광 및 농어촌 관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관광농원 및 펜션·민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서해안의 펜션과 민박업체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추진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 문화부에서는 해당 부처와 연계하여 관광농원과 민박운영자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운영자 실무안내서를 제작하고 안내서에는 민박유형 소개, 선진국 민박 프로그램, 이용객에게 대한 서비스 등 민박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민박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또한 운영중인 민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의 민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광공사 종합관광안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추진
- 우수민박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서비스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도하고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시설 개보수 자금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또한, 민관 민박체인화 사업 공동 시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민박은 펜션, 콘도, 호텔 등과는 달리 사업자금, 사업 마인드 등이 부족하여 시장자율에 맡겨두면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사업의 확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과 지원 필요하다. 체인본부는 시설·디자인 개선, 서비스 표준화, 홍보·광고, 웹사이트 운영, 고객안내, 운영현황 파악, 서비스교육 등을 수행한다. 정부, 지자체는 시설·디자인 개선, 전산입력장치, 서비스 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또는 보조를 한다. 추진조직 형태는 공공부문에서 체인을 구성하여 체인사업자, 협회 등에 위탁할 수도 있고, 민관공동사업(제3섹터)형태로 별도 조직을 설립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으로 모색한다.

## 6.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프로그램 마련

### 1) 지역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계관광기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PRACTICUM은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정부 관광조직이나 관광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쉽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협조 아래 지진해일피해 국가를 대상으로 2명씩의 공무원들을 무료로 초청하였는바, 2005년 4월과 10월에 태국을 제외한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또한, 세계관광기구 TEDQUAL은 관광분야의 교육, 훈련,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조사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방법을 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 또한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2005년 5월에 10일간의 일정으로 안도라공화국에서 진행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관광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인 PRACTICUM과 TEDQUAL에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공무원이 무료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의 경우는 지역에서 관광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교육원에 의뢰하여 교육을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 2) 관광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실시

재해재난에 의하여 지역의 관광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서해안의 유류유출 사고 후 관광위기 관리에 있어서도 거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관광위기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매뉴얼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관광재난관리구조(TDMF)에 의한 재난 관리 대응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앞의 <표 2-3>을 축약하였다.

<표 4-6> 관광재난관리구조(TDMF)의 대응요소

재난 과정 단계	재난 관리 대응 구성요소
① 전 단계	전조
② 전조	운용
③ 응급	활동
④ 조정	회복
⑤ 장기회복	재건 및 재평가
⑥ 해결	리뷰

## 7.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1) ‘봉사관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자원봉사관광은 자원봉사(volunteer)와 관광(tourism)의 합성어로 관광목적지에서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일부를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여행행태를 의미하는데 구미주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자원봉사와 관광은 오염제거, 환경 보호, 교통, 관광안내,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지 청소, 문화재 해설, 지역축제 참여 등 세부적인 자원봉사활동 종류, 가능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봉사관광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성취와 보람, 재미를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참여시간의 탄력적 운용 및 업무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서해안 자원봉사관광은 충청남도, 태안, 관광공사,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외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시행하여야 한다. 쓰나미, 카시미르 지진사태의 경우에는 외국 자원봉사자, 국제봉사캠프의 많은 참여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봉사관광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참가보다는 주로 지역사회운동단체, 민간시민단체에 의해 봉사활동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중재로 책임구간제 실시 및 자매결연에의 참여 홍보도 필요하다. 유류유출 피해지역을 구간화하여 전국의 NGO, 학교, 종교단체, 기업, 동아리 등이 해당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기구간의 피해복구는 물론 자연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모으는 공동체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현재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가칭)태안자매결연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매결연의 중재를 추진 중이다. 자원봉사자와 연계는 태안의 해안선을 마을단위로 쪼개어 각 구간마다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하고, 자매결연 후 각 기관은 자매마을의 방문객 유치,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책임구간제 및 자매결연 추진 확산을 지원하고, 2005년 입법화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의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가 되도록 한다.

더불어 자원봉사관광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역의 숙박시설 등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민박, 여관, 콘도 등 종류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 ‘환경관광지대’ 육성과 환경관광상품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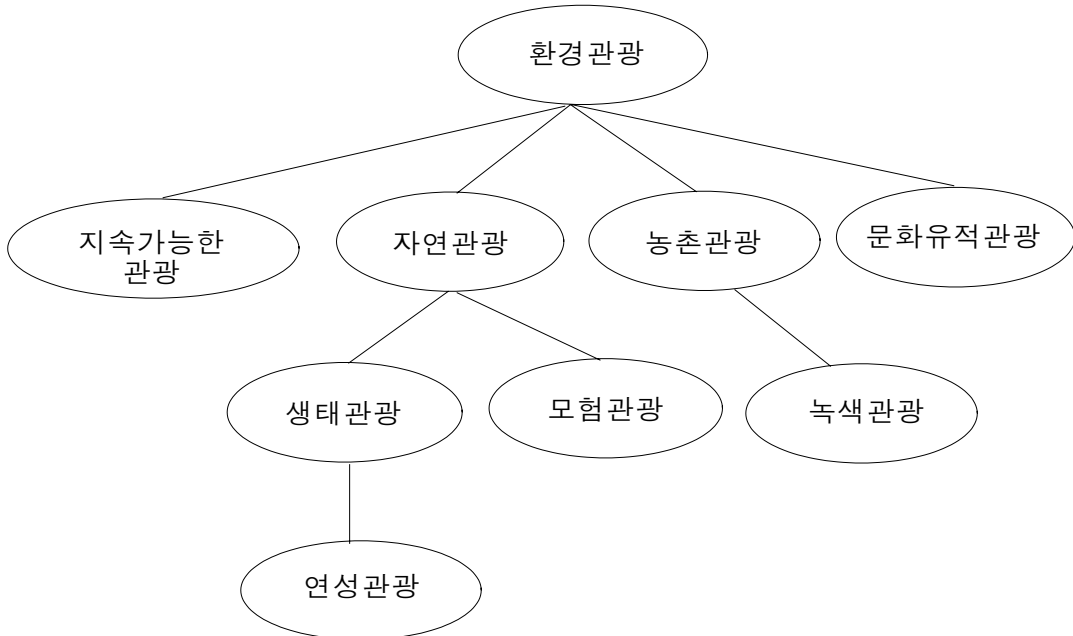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환경오염에 의해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환경교육이 가능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다. 또한 사고의 주변 지역에는 환경과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환경관광자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환경관광명소로 육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 환경기구에 의한 ‘국제환경회의’의 개최도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관광(environmental tourism)은 자연에 기반을 둔 결과로 지속가능한 관리, 환경 교육요소, 보전에 기여한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관광(Buckely, 1994)이라 할 수 있다.

환경관광은 교육적·설명적 요소를 갖추어 참가자가 기타 환경에 대해 자신이 미치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Burton, 1998) 또한, 교육적이고 설명적인 프로그램을 가지는 환경관광은 방문객의 삶의 질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고(Hunter, 1991), 지적·감정적인 자질과 함께 육체적·정신적인 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Theophile, 1995).

[그림 4-4] 환경관광의 위치

자료 : 조재문(2000), 관광동기와 유인전략이 환경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러한 환경관광의 필요성은 자연자원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예방하고 오염·훼손된 자연을 복구하여 자정 및 재생기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세대 내, 세대간에 관광자원의 편익기회를 제공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관광’ 육성의 전략적 추진

##### ○ 추진방향

- ‘유류유출’을 계기로 태안군 북쪽을 특별법에 환경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양오염의 극복과 침체 관광산업을 육성

- 기존에 개발중인 만리포관광지와 사구, 갯벌, 식물원과 연계한 환경관광지 조성으로 환경관광명소로 개발
- 해양오염과 희귀생태자원을 근거로 국제 환경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

#### ○ 사업내용

- 특별법에 유류유출 주변지역을 ‘환경관광지대’로 차별화하여 친환경관광자원개발과 상품의 개발 추진

##### \* 환경관광지대 지정자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 해안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 사업
- 만리포 관광지 : 해양환경 테마관광지로 조성(조성계획 수립중)
- 신두리사구 : 천연기념물 지정, 국제보호식물 지정
- 두웅습지 : 람사협약에 람사르습지 신규 등록
- 천리포수목원 : 세계적인 희귀 및 보호 식물과 수목 보유
- 신재생에너지특구 :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광자원 개발
- 이원간척지구 : 화훼단지 및 웰빙관광지구 조성
- 해수욕장 :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신두, 파도리 해수욕장 등
- 갯벌과 독살 : 갯벌과 독살 등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

## ② 국제 환경기구에 의한 ‘환경관광명소’ 육성

#### ○ 국제환경단체와 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관광’ 사업 추진

- 신두리사구 : 환경부 법적보호종(보호야생동물)
- 천리포수목원 : 국제 보호종 식물과 수목 보유
- 태안해안국립공원 : 희귀 동식물 및 보호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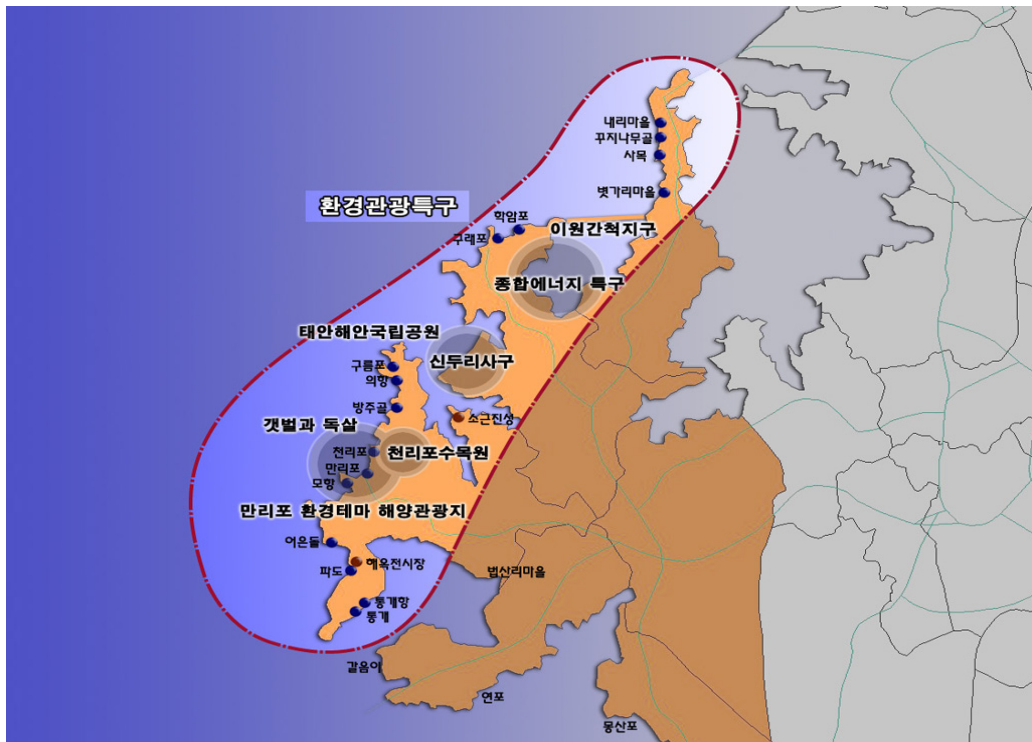
##### \* 국제환경단체 및 기구와 참여와 지원사업으로 추진

- 유네스코, 네셔널트러스트, 람사르 협약 기구 등

○ ‘해양환경전시관 및 자원봉사기념관’ 건립 : Dark Tourism 연계

- 해양환경전시관 : 해양생물 테마의 해양환경전시관 건립  
(만리포관광지의 해양환경테마관광지 조성에 반영)
- 자원봉사기념관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물품과 사진, 미담 사례, 주민들의 활동 등 기념관 건립

[그림 4-5] 환경관광지대 개념도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요약 및 결론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14만6800톤급)’ 유류유출 사고는 지역의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산업의 영업 피해로는 서해안과 태안군, 피해지역 주변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관광객의 방문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다. 서울신문(2008. 8. 20)에서는 2008년 태안 해수욕장 피서객이 2007년에 비하여 86%가 감소하여 태안의 오염지역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 방문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류유출 오염의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 민간기업의 숙박업 및 음식점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유류유출로 인한 관광수요의 감소로 투자위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유류유출 사고 후 기름에 오염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청정한 해양 지역으로 복구되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서해안의 유류유출 사고 극복은 복합적인 사업의 추진과 중앙과 지방간에 연계, 지역주민과 단체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광정책의 전략적 추진도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적 의미와 관광위기상황을 인지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유류유출이 발

생한 후 서해안의 관광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론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으로, 국내 사례의 시사점은 국내의 경우 관광분야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나 복구나 지원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가 없어 복구나 지원에 대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 재난관광 피해 및 국제관광기구 지원사례의 시사점은 ① 재난지역 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에 의한 지원대책 마련, ② 피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오게 하는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 ③ 시장조사에 의한 지역 인지도 파악 및 마케팅 자료 활용, ④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⑤ 관광종사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과 인적프로그램 개발 실시, ⑥ 미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다양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필요, ⑦ 국제관광기구의 협력에 의한 관광피해 극복사업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서해안 유류유출에 의한 관광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광활성화의 과제는, ① 국가 및 지역 차원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극복과정의 개선, ② 관광피해 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와 제도의 마련, ③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지역 관광대응 전략의 수립과 정책 추진, ④ 협력적 관광피해 극복과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 ⑤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마케팅의 전략적 전개, ⑥ 자원봉사와 언론을 통한 새로운 환경관광지역으로 발전, ⑦ 세계 환경 및 관광기구와 연계한 피해극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등 이었다.

이상의 이론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과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 관광활성화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 하였다.

-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종합발전계획의 추진
-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의 지원대책 마련
- 관광시장 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 추진
- 협력적 관광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사업 전개
-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 프로그램 마련
-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2. 정책제언

서해안 유류유출에 대응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전략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별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관광위기관리체계 구축과 특별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의 추진
  - ① 서해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
  - ② 특별법과 연계한 시·군별 관광개발 사업 추진
- 2) 지역관광피해 분석과 정보제공의 지원대책 마련
  -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관광피해조사단 구성·운영
  - ② 서해안 관광사업체 등록 및 협력체 조직 운영 : 충남관광협회
  - ③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보고서 작성 : 관광산업편 포함
- 3) 관광시장조사에 의한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사업 추진
  - ① 서해안 ‘관광살리기 운동’과 다크투어리즘 관광마케팅의 전개
    - 다양한 판촉·광고·행사를 통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시행
    - 관광객 대상 할인 프로그램 지원
    -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 의한 관광마케팅 실시
  - ② 국제적 이벤트의 정기개최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 ‘2012 국제환경엑스포’ 개최
  - ③ 자원봉사 감사대축제의 지속 개최
    - 서해안 유류사고 ○주년 자원봉사 대축제(○주년 + 자원봉사 축제)
    - 서해안을 살린 자원봉사자 감사 여름 초대축제
  - ④ 서해안의 특색이벤트 축제의 개최와 언론 홍보 실시
    - 계절별로 생사되는 수산물 축제의 정기개최
    - 지역문화행사 및 이벤트와 전통축제 등의 개최
    -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대기업체 연수행사

○ 각종 축제와 이벤트행사에 대한 언론 홍보와 방송이벤트 병행 개최

4) 협력적 관광피해극복과 지역 중심 지원사업 전개

- ① 특별재난지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주민 관광사업의 육성
- ③ 지역 펜션과 민박 등 중소기업체의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관광위기프로그램 마련

- ① 지역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관광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실시

6) ‘봉사관광’과 ‘환경관광’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① ‘봉사관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 ② ‘환경관광지대’ 육성과 환경관광상품의 개발
  - ‘환경관광’ 육성의 전략적 추진
  - 국제 환경기구에 의한 ‘환경관광명소’ 육성

###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되어 관광피해 및 복구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아 충분한 자료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유류유출 사고 후 대응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한 신문보도 자료도 2007년 12월부터 8월까지 9개월로서 대응 실태를 시계열로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와 일정 기간 후의 시점에서 본 연구를 보완하여 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원도(2003), 2002 강원 수해백서, 강원도
- 김경희(2008), “지방정부의 관광위기커뮤니케이션 체계 분석:강원도 수해대책을 사례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관(2005), “관광부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1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상태(2004), “관광정책에서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발방향”,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1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영수(199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희수(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관광정책 대응방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관광부문 대응방안 전문가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관광피해와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남궁근(1995),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9권 3호, 한국행정학회
- 라종민(2007), “관광산업 위기 대응방안:세계관광기구의 지진해일 피해국가 지원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2003, 2006), 관광시설 재해복구 관련 내부보고서, 문화관광부
- \_\_\_\_\_ (2006), “유원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박향일·김창수(2005), “국제회의산업의 위기관리 모형 연구”
- 소방방재청(2003), 재해백서, 소방방재청
- 신동주·신혜숙(2005), 해양관광개발론, 대왕사
- 유재홍(2005), “여행사의 외부위기에 대한 위기관리 연구”, 관광연구저널, 19권 3호, 한국관광학회
-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관련 충남 관광산업 대응방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관광부문 대응방안 전문가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조재문·여호근(2006), 환경관광의 이해 ;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조재문(2000), 관광동기와 유인전략이 환경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현식(2006), “국내 컨벤션산업 위기관리의 전략적 접근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1호, 한국호텔경영학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2008), 태안 해양오염 실태분석 및 대책토론회.

충남발전연구원(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대응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_\_\_\_\_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대응자료집(2007. 12. 7~2008. 1. 31)

충남발전연구원·희망제작소재난관리연구소(2007),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 전략 모색, “우리바다 살리기” 제1차 세미나

\_\_\_\_\_ (2008),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최영문(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충남 관광영향 분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관광부문 대응방안 전문가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태안군(2008), 태안군 통계연보

<http://www.provin.gangwon.kr>

<http://www.mct.go.kr>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매일신문사, 충북일보, 경상일보, 내일신문, 인천일보, 브레이크뉴스, 경기일보 태안유류유출 사고 관련 기사

## 2) 해외 문헌

BBC NEWS(2003. 3. 7.), Oil threat to French tourism.

Cioccio, L & Michael, E. J.(2007), Hazard or disaster: Tourism management for the inevitable in Northeast Victoria. *Tourism Management*, 28:1-11

Coombs, W. T.(2004). West Pharmaceutical's explosion: structuring crisis discourse knowledge, *Public Relations Review*, 30:467-473

Deuschl, D. E(2006), *Travel and Tourism Public Relations*.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European Commission, (2000): COM (2000) 142/2, 22.6.2000, Brussels.

Faulkner, B(2001), Towards a framework for tourism disaster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22:135-147

Glaesser, D(2003), *Crisis Management in the tourism industry*. Burlington : Butterworth-Heinemann

Henderson, J. C.(2003). Communicating in a crisis: flight SQ 006. *Tourism Management*, 24:279-287

Hystad, P. W & Keller, P. C.(2007), Towards a destination tourism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 Long-term lessons from a forest fire disaster

Indonesia(2005. 2), Country Report, "1st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Phuket,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05. 3), Country Report, "2nd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Berlin,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aldives(2005. 2), Country Report, "1st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Phuket,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Maldives

———(2005. 3), Country Report, "2nd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Berlin,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Maldives

M.Dolores Garza-Gil, Albino Prada-Blanco and M. Xosé Vázquez-Rodríguez(2005), Estimating the short-term economic damages from the Prestige oil spill in the Galician fisheries and tourism, *Ecological Economics*

Okumus, F., Altinay, M. & Arasli, H.(2005), The impact of Turkey's

- economic crisis of February 2001 on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ern Cyprus. *Tourism Management*, 26:95–104
- Paraskevas, A & Arendell, B(2007), A strategic framework for terrorism prevention and mitigation in tourism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doi:10.1016/j.tourman.2007.2.12
- Ritchie, B. W(2003). Chaos, Crises and disasters: a strategic approach to crisis management in the tourism industry. *Tourism Management*, 25:669–683
- Santana, G(2003). Crisis Management and Tourism: Beyond the Rhetoric.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15(4): 299–322
- Sri Lanka(2005. 2), Country Report, "1st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Phuket,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Sri Lanka
- (2005. 3), Country Report, "2nd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Berlin,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Sri Lanka
- Thailand(2005. 2), Country Report, "1st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Phuket,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Thailand
- (2005. 3), Country Report, "2nd WTO Emergency Task Force Meeting", Berlin,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Thailand
- WTTC(2005), [www.wttc.org/frameset5.htm](http://www.wttc.org/frameset5.htm),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 WTO(1998), Handbook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 in tourist areas, Madrid: World Tourism Organization
- (2003), Crisis Guidelines for the Tourism Industry. World Tourism Organization
- (2005), "Report of the 2nd Meeting of the WTO Emergency Task Force for Tsunami Recovery", World Tourism Organization
- (2005), Tsunami Disaster Meeting, World Tourism Organization
- (2005), Phuket Action Plan Follow-Up Meeting, World Tourism Organization



## 부록1 : 일반적 재난의 정의와 관리단계

### 1) 재난의 정의와 분류

#### (1) 재난의 정의

재난·재해의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로,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홍수·호우·폭설·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항공기·선박·철도사고·건축물 붕괴·가스폭발 등 각종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인위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난과 재해는 분명한 구분 없이 사용되며 재난이라는 용어는 영문으로는 Disaster, Hazard, Catastrophe, Crisis, Risk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말로는 재해, 재난, 위기, 위험, 위난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남궁근, 1995).

재해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바,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 및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와 인위재난(Man-made-Disaster)으로 구분된다. 자연재해의 종류에는 홍수, 폭풍, 지진 등이 있고, 인위적 재난은 폭발사고, 붕괴사고, 위험물사고 등의 종류가 있다. 인위적 재난은 인간의 기술발달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술적 재난(Technical Disaster)이라고도 한다. 재난을 발생원인과 사회에 미치는 충격속도, 규모, 발

생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김영수, 1997).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로 구분하고 피해속도에 따른 구분은 만성재난과 급성재난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의해서는 육상재난과 해상재난, 광역재난과 국지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나종민, 2007).

급성재난과 만성재난에서 급성재난은 그 발생과 진행과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뤄지는 재해로서 폭풍, 산불, 홍수, 태풍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면 그 진행이 더딘 재난을 만성재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겐 전염병, 환경파괴가 있다. 만성재난은 상대적으로 재난의 전달과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대응과 피해복구의 사전 준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급성재해는 만성재해에 비하여 급격하고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자연적인 현상에 기인한 재해로서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로 나눌 수 있다. 크게는 기상요인에 의한 기상재해와 지진, 화산활동 등에 의한 지질적 재해로 분류된다. 호우, 태풍, 홍수, 하천범람, 폭설, 우박, 가뭄, 폭염, 천둥, 번개, 안개, 스모그, 오존, 황사, 해일, 쓰나미, 적조, 강풍,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온난화 현상, 사막화 현상, 염수화 현상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복구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재해발생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대책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인위재난이란 인간의 잘못된 기술에 의한 것으로 그 형태와 발생원이 무척 다양하다. 흔히 발생하는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에서부터 그 원인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재난이나 재해까지 다양하다. 대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기술발달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인간의 기술 활용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재, 산불, 위험물,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교통사고, 원자력발전 사고, 폭발물 사고, 화학공장 사고, 유독 물질 누출사고, 환경오염 사고, 갯도붕괴 사고, 유기시설물의 사고 등이 이에 속한다.

## (2) 재난의 관리단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인간에게 갑작스럽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피해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재난에 대비하고 사전에 조치하는 활동과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수습하는 활동 등을 재난관리라고 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진행국면에 따라 계획 및 대비활동, 긴급대응 활동, 사후 복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재해는 존재하게 마련이지만 재난관리, 즉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단계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Petak(1985)은 재난관리과정을 재난의 진행과정과 대응활동에 따라서 재난 이전과 이후, 즉 재난완화 및 예방단계, 재난대비 및 계획단계, 재난대응단계, 재난복구단계의 4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① 완화 및 예방단계(Mitigation and Prevention Phase)

재난에 대한 완화 예방이란 재난발생 이전에 재난의 피해를 경감,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위험요인을 줄여서 재해가능성을 낮추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미래의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의 마련, 위험지도의 작성, 건축안전을 위한 기준, 수해방지시설의 공사, 재난보험제도나 재난피해 보상제도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는 다시 재해분석(위험성 분석)과 재해관리 능력평가의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해분석이란 해당 지역 사회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와 역사적 사실자료, 피해 가능범위 등을 연구함으로써 재해발생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재난관리 능력의 평가는 이러한 지역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자원과 일반적 재난에 대한 대응 자원 능력을 평가하여 부족한 자원에 대한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 ② 대비 및 계획단계(Preparedness and Planning Phase)

재난완화 노력에도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각 재난상황에 적절한 재난계획을 수립, 부족한 대응자원에 대한 보강,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의 구축,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대응요원에 대한 훈련과 재난발생 시 실제의 대응 활동을 통한 현장 대응 상의 시스템보완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 ③ 대응단계(Response Phase)

대응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직전, 도중, 직후에 인명을 구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며 복구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활동과정이다. 대응 과정은 준비과정의 활동을 이어서 재난발생의 직전, 도중, 직후에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인명구조와 추가적 피해 잠재성의 감소, 응급복구 활동을 말한다. (McLoughlin, 1985)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재난관리계획의 실행, 재난대책본부의 활동 개시, 긴급대피계획의 실천, 긴급의약품 조달, 생필품 공급, 피난처의 제공, 이재민 수용 및 보호, 후송, 탐색 및 구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재난대응단계는 재난관리의 전 과정 중 시간상으로는 가장 짧지만 중요한 단계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의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로 긴급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 ④ 복구단계(Recovery Phase)

재난으로 인한 위기상황과 혼란을 신속하게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복구과정은 크게 단기적인 응급복구와 장기간에 걸친 항구복구로 나누어진다.

복구단계는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단계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단기적으로는 피해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개량 복구를 추진한다.

### (3) 재난·재해의 관리이론

위기관리 혹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을 분류하면 "재난배양이론", "정상사건이론", "고도신뢰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재난배양이론과 정상사건이론은 모두 복잡한 현대사회의 속성 속에서 재해재난 발생의 필연성을 찾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러한 비관적인 입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해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도신뢰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은 복잡하고 정해진 체제일지라도 조직에 유연성의 요소를 도입하고 학습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면 재난 발생의 필연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김태운, 2000)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은 Barry Turner가 제기 한 것으로 주로 재난발생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재난이 이미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난발전의 초기단계인 배양단계에서부터 사회 속에 재난이 잠재되어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 자체 보다는 재난을 야기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사전적인 관심을 뒤야 함을 의미한다.(이성규, 2005) 재난과 관련된 위험평가에서 흔히 무시되었던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인식하고 위험과 관련된 조직문화의 허점, 부적절한 정보, 의사소통의 문제, 오차수정의 실패 등을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의 문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애매성, 복잡성 등으로 야기되는 불확

실성 등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Turner, 1978)

정상사건이론(Normal Accidents Theory)은 C. Perrow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현대사회의 기술적, 조직적 시스템의 특성을 복잡하고 확 짜인 것에서 찾는다. 복잡하고 꼭 짜인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이성규, 2005)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꼭 짜여진 체계란 단일성이 높고 변형이 작으며 시간 의존적인 생산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는 체제 내에 안전기제가 내장되어 있지만 그 개선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Rijmpa, 1984)

이러한 체제에서 예기치 않은 조그만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은 가속화의 과정을 거쳐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Perrow는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를 정상사고라 명명하였다. (Perrow, 1984)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은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복잡성과 꼭 짜여진 체제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전에 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정상사건이론의 비관적 측면에 대한 반발과 과거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통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으로 가외성 전략,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 관점의 유연화 전략, 조직학습전략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현대 재해재난판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Rijmpa, 1997)

## 부록2 : 세계관광기구의 관광피해 세부 지원사업 사례

### 1) 세부 지원 사업

세계관광기구는 푸켓 액션플랜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국들과 협의 및 국제관광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5개 영역 44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대상 팸 투어, 여행업자 대상 팸 투어, 언론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 중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한 지원금 이용방법의 제공, 위기관리 워크숍 개최 등이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Effective Communication)

##### ① 언론, 여행업계 대상 팸 투어 실시

언론이나 여행업계 대상 팸 투어는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스리랑카 및 몰디브에 국제투어오퍼레이터 연맹(IFT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our Operators) 회장과 이탈리아 투어오퍼레이터연맹(ASTOI: Association Tour Operators Italiani)의 전 회장 등 고위급 투어오퍼레이터를 현지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또한, 지진해일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가 극심했던 태국 남부지역에서 언론,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팸 투어를 실시하였다. 동 팸 투어는 태국 관광청, 타이항공, 세계관광기구 등이 공동 주관하여 2005년 3월 3일부터 3월7일까지 800여 명의 여행전문기자, 투어오퍼레이터를 대상으로 태국 남부 안다만(Andaman) 해안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세계관광기구는 한국정부에서 제공한 지진해일 기금(Tsunami Fund)<sup>24)</sup>을 활

---

24) 한국정부는 관광분야 지진해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세계관광기구에 50만 불을 지

용하여 한국 언론인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지진해일 피해국으로의 팸 투어를 갖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분야 언론인 40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4일부터 11일까지, 2005년 4월9일부터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푸켓, 몰디브 및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하게 하였다. 아울러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팸 투어를 실시하였는바,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몰디브와 인도네시아를,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여행업계 관계자 40명이 몰디브,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이외에 세계관광기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16명의 관광분야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팸 투어는 2005년 2월 24일부터 2006년 3월 5일까지 지진해일 피해 4개국인 몰디브,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벌였으며 이들 국가에의 관광객 주요 송출 시장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언론인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세계관광기구와 공동으로 2005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투어오퍼레이터 및 여행 작가 등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하였다.

## ② 관광박람회 부스비용 경감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위해 다양한 관광전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지진해일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들 박람회에의 참여가 어렵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박람회를 주관하는 단체나 회사 그리고 정부 기관에 박람회 참가 부스비용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06년 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FITUR를 시작으로 3월의 한국 DAEGU TOUR EXPO, 3월 헝가리의 UTASZAS, 4월 스페인 발렌시아의 TCV, 4월 중국 BITTM, 4월 멕시코의 TIANGUIS, 6월의 한국 KOTFA, 9월 일본 WTF, 10월 한국 BITF, 11월의 중국 CITM 등에서 지진

---

원하였다.



해일 피해국들에 대한 박람회 부스비용의 경감 또는 면제를 하였다.

### ③ TOURCOM(The World Conference on Tourism Communications) 개최

TOURCOM은 2004년 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1차 세계관광커뮤니케이션회의가 열린 이래 관광분야 공공, 민간 부문 및 언론인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피해지역은 아니면서 관광객들의 오도된 인식으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인식도를 높이고 지진해일 피해 극복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 5월20일부터 21일까지 TOURCOM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300여 명의 공공, 민간 부문 전문가 및 CNN을 포함한 언론이 참가하였으며 관광부문에서 언론의 역할, 지역 내 위기 커뮤니케이션, 성공적인 관광 진흥캠페인, 관광지의 브랜드화 방안, 책임 있는 관광 커뮤니케이션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관광분야 의사결정자, 언론, 공공, 민간부문 관광 커뮤니케이터 등이 함께 지진해일 피해 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관광의 더욱더 나은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④ 범세계적인 구호 캠페인 실시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피해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범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지진해일피해, 관광이 복구를 돕는다(Tsunami-tourism helps recovery)"는 슬로건 아래 스티커 2만 매 및 포스터 3천 장을 제작하여 2005년 3월에 열린 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여행업계, 투어오퍼레이터, 관광관련 언론 등에 배포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동 포스터를 통하여 전달한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5)</sup>.

"지진해일로 인한 인도적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직시해야 하고 그들이 험난한 복구의 길을 들어선 것처럼 피해지역을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다.

고통 받는 그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수입의 유일한 근거인 관광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재건축을 위하여 몇몇 호텔과 시설들이 폐쇄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완전히 운영되고 있다. 깨끗한 해안들, 강렬한 음식과 친절한 응대가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의 애정과 함께 휴가를- 인도양 목적지 여행을 통해."

#### ⑤ 세계관광기구 웹사이트에 지진해일피해 특별링크 운영

푸켓 액션플랜의 하나로 지진해일피해 국가의 관광분야 피해상황 및 복구진전도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e-Turbo News 및 해당 피해국들과 협조하여 세계관광기구 공식 사이트에 지진해일 관련 특별링크를 운영하였다.

이 링크는 피해국의 피해 상황, 복구상황, 현재 이용 가능한 호텔 및 숙박정보, 관련된 각종의 보도자료, 관련 연설문, 지진해일 피해국 지원상황,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world-tourism.org/tsunami/eng.html](http://www.world-tourism.org/tsunami/eng.html)

#### ⑥ 시장조사 실시

25) The humanitarian disaster caused by the tsunami was unprecedented. Yet, we must look to the future and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affected countries as they embark on the arduous road to recovery.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help bring relief to those who have suffered is to encourage the immediate return of tourism, for many local people their sole source of employment and income.

While some hotels and other facilities are closed for reconstruction, the majority remain fully operational. Clean beaches, exquisite food and kind hosts await you.

Holiday with your heart by travelling to these Indian Ocean destinations.

세계관광기구는 지진해일 발생 초기 관광분야에서 극심한 타격을 받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몰디브 4개국에 대한 2차례의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관광수요 측면에서 비자카드사와 함께 2005년 2월 이들 4개국으로의 주요 관광객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관광공급 측면에서 2004년 1월과 2월 2개월간의 이들 국가에서의 호텔 점유율, 항공교통 패턴, 관광객 흐름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시장 조사 결과는 여행사들에 과학적인 자료의 제공과 즉각적인 참고 자료로써 활용되었으며 해당 국가들의 관광객유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이 자료는 세계관광기구의 범세계적인 구호 캠페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 ② 지역사회 구호(Community Relief)

### ① 몰디브 지진해일충격 평가 실시

몰디브는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측면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본 국가이지만 피해의 비율 면에서 보면 인구의 절반이 피해를 보았고 국가 경제는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87개의 휴양지 섬들 중 19개만이 피해를 보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은 훨씬 더 컸다.

2005년 2월에는 호텔 점유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관광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세계관광기구는 현장의 실상을 지진해일 피해관련 지원국가나 단체 등에게 제대로 알려 관광분야에 더 많은 지원금이나 기금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3월에 몰디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진해일의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하였다.

### ② 관광관련 중소기업의 복구기금 이용방법 등 지원

지진해일 피해 후 복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은 당연히 즉각적인 질병, 주택, 전기, 수도 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피해국들의 제1산업이 관광산업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관광사업체(SMEs: Small and Medium-sized Tourism Enterprises)<sup>26)</sup>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또한, 이들 업체는 대부분 사업시작 초기 은행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익성이 높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지진해일로 인해 이러한 중소기업의 관광사업은 거의 대부분 피해를 보아 사업을 완전 정리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해지역 주민 대부분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과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3월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관광관련 중소기업 사업체에 대한 지진해일 피해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그들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금에 관한 이용절차를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 주민공동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진해일피해 지원국가나 기부단체에도 보내 활용하도록 하였다.

### ③ 직업훈련(Professional Training)

#### ① 세계관광기구 PRACTICUM 참가 지원

세계관광기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PRACTICUM은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정부 관광조직이나 관광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쉽 프로그램이다. 15-20명의 인원과 2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세계관광정책

---

26) 중소기업 관광사업체란 소규모 식당, 기념품점, 파라솔 임대업, 해변 카페, 수상 스포츠관련 장비대여업체 등을 의미한다.

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세계관광기구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한국정부의 협조 아래 지진해일피해 국가를 대상으로 2명씩의 공무원을 무료로 초청하였는바, 2005년 4월과 10월에 태국을 제외한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 ② 세계관광기구 TEDQUAL참가 지원

TEDQUAL은 관광분야의 교육, 훈련,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조사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방법을 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 또한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2005년 5월에 10일간의 일정으로 안도라공화국에서 진행 되었다.

## ④ 위기관리(Risk Management)

### ① 위기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세계관광기구는 남아시아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전시회인 남아시아여행관광 교류전(South Asia Travel & Tourism Exchange)조직위 원회와 함께 2005년 4월 20-21일 양일간 인도 델리에서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12개국에서 80여 명이 참가하여 최신의 위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토론과 자연과 인위적 재해로부터의 위기관리에 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동 세미나 개최의 목적은 관광산업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보호, 안전, 항공 등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위기관리에 관한 필요성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또한, 어떻게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관광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위기관리기술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 ② 위기관리 전문가의 스리랑카 파견

2005년 5월에 1개월간 세계관광기구의 위기관리 분야 전문가 1인을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지진해일피해 후 복구상황 점검 및 위기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자문하게 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콜롬보에서 위기관리 워크숍 및 지진해일 피해 중소기업체의 금융지원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⑤ 지속 가능한 재개발(Sustainable Redevelopment)

### ① Indicators Workshop 개최

2005년 5월 태국 푸켓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재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Indicators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지진해일 피해국 등에서 참가하였다. 이 워크숍의 개최 목적은 지진해일 피해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에 관한 최신정보의 제공, 환경·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척도 및 모니터 방법론에 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동 워크숍은 2004년 세계관광기구에서 발간한 "관광목적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표들(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ourism Destinations)"이란 안내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동 워크숍에서는 환경보전, 해안선 관리,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및 수혜 등과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빌딩(Image building) 등이 논의되었다.

이외에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이 사업들은 예산 및 절차상 아직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② 스리랑카 그린벨트 재개발

스리랑카의 주요 해안 관광지는 남부와 남서부에 걸쳐 있으며 이번 지진해일은 남부 지역에서부터 수도인 콜롬보 북부지역에까지 걸쳐 관광 인프라가

피해를 보았다. 세계관광기구는 2000년에 향후 10년간의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의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관광시설과 환경조건, 관광 인프라의 질에 관한 특별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동 계획에 대한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미 수립된 10개년계획의 권고 사항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는 데 있었다.

이 사업은 더욱더 환경 순응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보호, 오염통제의 관점에서 해안의 자연적 환경발전 골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계획수립 정책,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개발개요, 개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 ③ 태국 그린벨트 재개발

지진해일로 인해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인 푸켓과 그 인근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푸켓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준비 중이다.

동 사업 또한 해변관광 관리를 위한 지침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관광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④ 3차 몰디브 관광종합계획 수립

몰디브는 세계 6대 급부상 관광지의 하나로 세계관광기구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관광산업은 몰디브 경제의 필수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지진해일로 인해 몰디브 관광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몰디브 정부는 세계관광기구에 3차 몰디브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동 계획은 위기관리, 시장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참여와 고용 증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몰디브 경제에 있어 관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지속가능성의 방식에 있어 전반적인 몰디브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자문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연구위원  
공동연구 · 공주영성대학 양광호 교수  
충남도립청양대학 최영문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08-14 · 서해안 유류유출의 관광위기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글쓴이 · 이인배, 양광호, 최영문, 김희수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8년 12월 31일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0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55-0 03910

<http://www.cdi.re.kr>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